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 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동향 및 전망	3
3.	한국과의 무역관계	4
4.	한국과의 투자관계	6
5.	수입규제사례/수입규제사례(철강제품).....	7
6.	진출 성공/실패사례/LG전자 폴란드 생산공장	8
7.	주요 이슈	8
8.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9
9.	환전	11
10.	기후	12
11.	공휴일	13
12.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13
13.	호텔	14
14.	식당	17
15.	교통/통신/교통,통신	19
16.	유용한 연락처	20
17.	여행시 유의사항	25

18.	관 광 명 소	26
19.	유 용 한 현 지 어 표 현	36
20.	국 토	37
21.	국 민	38
22.	역 사	40
23.	국 가 조 직	45
24.	정 치 제 도	47
25.	정 치 사 회 동 향 / 최 근 폴 란 드 정 치 사 회 동 향	50
26.	국 가 원 수	52
27.	주 요 인 사	52
28.	행 정 구 역	53
29.	대 외 관 계	54
30.	국 가 경 쟁 력 / 2003년 국 가 경 쟁 력	57
31.	도 량 형	58
32.	관 공 서 관 행	58
33.	국 제 공 항 및 항 구	59
34.	매 스 미 디 어	59
35.	현 지 화 제 유 머 속 담 / 속 담	60
36.	물 가 정 보	61

37.	경 제 발 전 사	62
38.	경 제 정 책	64
39.	경 제 정 책 /EU 가 입 에 따 른 통 상 정 책 의 변 화	65
40.	금 융 통 화 제 도	66
41.	주 요 산 업 동 향 /전 체 산 업 동 향	68
42.	주 요 산 업 동 향 /섬 유 산 업 동 향	69
43.	주 요 산 업 동 향 /자 동 차 산 업 동 향	72
44.	주 요 산 업 동 향 /자 동 차 부 품 산 업 동 향	73
45.	주 요 산 업 동 향 /목 재 및 가 구 산 업 동 향	76
46.	주 요 산 업 동 향 /의 류 산 업 동 향	77
47.	주 요 산 업 동 향 /전 자 부 품 산 업 동 향	81
48.	주 요 산 업 동 향 /화 학 산 업	82
49.	주 요 산 업 동 향 /화 장 품 업 계 호 황 유 지	87
50.	지 적 재 산 권	88
51.	소 비 자 보 호	90
52.	수 입 관 리 제 도	92
53.	관 세 제 도	94
54.	통 관 절 차	95
55.	유통 구조	96

56.	국제입찰제도	98
57.	외환관리제도	101
58.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102
59.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105
60.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108
61.	투자유치정책	113
62.	외국인투자제한	116
63.	투자진출절차	116
64.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18
65.	공장설립	119
66.	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	123
67.	자유무역지대	124
68.	조세제도	126
69.	사회간접자본	127
70.	노동여건	130
71.	사회보장제도	131
72.	현지 생활여건	132
73.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133
74.	자녀 교육여건	136

75.	진출기업	136
76.	주요경제지표	150
77.	대외거래지표	150
78.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출입	151
79.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입	152
8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153
8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품목별 수출입	153
82.	대외투자진출 통계	154
83.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가별 투자유치	155
84.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업종별 투자유치	156
85.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폴란드 투자교류 통계	157
86.	물가금융지표	157
87.	노동통계	158

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명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위치	중부유럽
면적	311,904Km ² (한반도의 1.4배)
기후	유럽서부의 해양성 기후와 동부의 대륙성 기후
수도	바르샤바 (Warsaw)
인구	38,218천명
주요도시	인구 20만 이상 도시 WARSZAWA(1,635천명), WROCLAW(640), LODZ(815), KRAKOW(740) POZNAN(580), GDANSK(463), BYDGOSZCZ(387), LUBLIN(356) KATOWICE(350), CZESTOCHOWA(259), RADOM(233), KIELCE(214)
민족(인종)	폴란드인 (서슬라브계의 한 족속인 POLANIE의 자손) 98% 이상. 기타 소수민족으로 동부지역의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인, 남서부 지역의 독일계, 유대인(1만5천명) 등
언어	폴란드어 (슬라브어 계통)
종교	로만 카톨릭(97%), 그리스 정교. 프로테스탄트교 등(3%)
건국(독립일)	1918.11.11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 분할 시대 종료)
정부형태	의회공화제 (PARLIAMENTARY REPUBLIC)
국가원수	대통령 ALEKSANDER KWASNIEWSKI, 총리 Marek Belka
입법부	양원제 (상원 100석, 하원 460석)
정당	여당 SLD(민주좌파연합)-UP (시민연대)-PSL (농민당)(258석) 정부성향 : 중도좌파

경제지표 (2004년 기준)

GDP	US\$ 2,422억
경제성장률	5.3 %
1인당 GDP	US\$ 6,345
실업률	19.1 %
물가상승률 (연평균)	3.5 %
화폐단위	Polish Zloty(PLN/주워티/지페), GROSZY(그로쉐, 동전)
환율	연평균 3.65
외채(대외부채)	US\$ 1,160억
외환보유고	US\$ 368억
산업구조	제조업 40%, 무역·수선 16.8%, 건설 8.3% 농림수산 6.5%, 운송·보관·통신 6.5%
교역규모	수출 : US\$738억 수입 : US\$879억
교역품	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석유, 엔진부품, 철강제 등 (수입) 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가구, 내연기관, TV 등 (수출)

한-폴란드 관계

체결협정	체육협력의정서 (협정일 89.5/발효일-) 투자보장협정 (89.11/90.2.2) 무역협정 (89.11/90.2.2), 항공협정 (91.10/92.4.3) 이중과세방지협정 (92.1/92.2.21) EDCF차관공여 각서교환 (-/93.2.11) 문화협정(93.6/94.10.3), 과학기술협력협정(93.6/94.10.3) 비자면제협정(93.11/94.10.3) 표준화협력양해각서 (98.9/98.9) 관광협력협정(04.12.3), 청소년 체육교류협정(04.12.3)
교역규모 (2004년)	한국의 수출 - US\$807백만불 한국의 수입 - US\$89백만불
교역품	- 한국의 수출 : 칼라TV,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승용차 폴리에스터 직물, 합성수지, 에어컨 등 - 한국의 수입 : 선박,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냉장고 가축육류, 원동기, 직물제의류 등
투자교류	4개사 965.82백만불(한국의 진출) ; 전무(투자유치)
교민	영주권 소유자 10명내, 체류자 560명 내외 (대부분 주재원)

2. 경제동향 및 전망

2005년 1분기 폴란드 경기하강세 뚜렷
1분기 성장률 2.1%로 예상보다 크게 저조
2005년도 성장 전망치 3.7%로 하향 조정

폴란드 경제는 2004년 5.3%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2005년 들어 경기하강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5년 1분기 경제동향을 보면,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2.1%를 기록하여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성장률은 3.7%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지난 12월 전망치인 5%는 고사하고 수정치인 4.5%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성장을 주도하였던 내수와 수출을 대신하여 올해 성장 동력으로서 기대가 높았던 투자가 1분기중 겨우 1% 늘어났다는 점에 있다. 투자는 2004년 4분기 7.4% 성장하는 등 호조를 보였고, 정부 당국에서는 내심 금년 두자리 수의 증가를 기대한 바 있다.

1분기중 저조한 경제성장에 따라 전문가 그룹간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통화정책위원회(RPP)의 한 위원(Stanislaw Owsiak)은 비관론의 대표 주자격인데 재무부 수정 전망치 3.7%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것이다. 동 위원은 현지화(주위티) 강세와 미약한 내수 등 최근 여건을 보면, 경제를 밀어올릴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저명한 경제예측기관인 그단스크 시장경제연구소(IBGR)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 1분기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경제는 2005년 3.9%, 2006년 4.5%의 견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했다.

[폴란드의 경제성장 추이 (GDP 성장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0%	1.0%	1.4%	3.7%	5.3%	3.7 *

주: * 수정 전망치

(분기별 성장률, %)

2003년				2004년				2005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3	3.9	4.0	4.7	6.9	6.1	4.8	3.9	2.1

최근 경기하강에 대한 RPP의 Stanislaw Owsiak 위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주위티화 강세는 경제가 하강세로 돌아서는 원인의 하나이다. 주위티화가 악화되었다면, 경제 성장에는 더 좋았을 것이다. 폴란드 경제는 또한 미약한 국내수요에 의해 숨이 막히고 있다.” 폴란드 내수시장 수요 부족의 상당부분은 임금 상승의 정체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9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주위티화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밝은 면이라면,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올해 남은 기간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점이다. 금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2.5% 범위안에 들어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은 돌파구가 되고 있다. 폴란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 4월말까지 수출은 220억유로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같은 증가율의 상당부분은 30% 이상 신장되었던 지난 1월 수치에 힘입은 것이며, 2월 이후 증가율은 둔화되었음)

4월말까지 폴란드의 수입은 241억유로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6.9% 늘어났다. 당초 금년 수입 증가율은 10% 정도로 예견되었으나, 경기둔화에 따라 수입수요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BNR 발표 폴란드 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질 GDP 성장률 (%)	5.3	3.9	4.5
내수 성장률 (%)	5.0	3.2	4.2
소비지출 성장률 (%)	3.4	3.0	4.2
자본지출 성장률 (%)	5.3	7.9	9.8
실업률 (%) - 연말	19.1	17.5	16.0
인플레이션 (%)	3.5	2.3	2.1
환율(PLN/US\$) - 연말	3.10	2.99	2.90
환율(PLN/유로) - 연말	4.14	4.09	3.91

자료: 그단스크 시장경제연구소(IGBR)

정보원: 주간 Warsaw Biz Journal, Economic Review, 기타 자료 종합 (2005.6)

3. 한국과의 무역관계

<한-폴 관계>

한폴 관계는 89.11월 수교 이후 착실히 발전되어 정치, 외교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94.12월 바웬사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96.5월 이수성 국무총리의 방폴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관계로 진입후 98.7 김종필 국무총리 방폴, 99.4월 스타인호프 경제부 장관 방한, 그리고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폴 등에 힘입어 한차원 높은 실질 협력관계로 발전해오고 있다. 폴란드는 중감위, 북한 핵문제 등을 포함,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전폭 지지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교역 규모>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은 96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7년도에는 처음으로 10억불이 넘는 12억불에 달했다. '97년 한국의 대 폴란드 수출은 1,226백만불로 양국 교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수입은 91백만불에 불과했다. 이에 '97년 기준으로 한국은 폴란드의 11위 수입대

상국(아시아 국가 중 최고)으로 수입총액에서의 점유율은 2.8%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이 대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무역적자를 해소를 위한 폴란드산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한국의 대 폴란드 수출이 807백만불로 전년대비 111.2%나 증가하였으며, 대 폴란드 수입은 89백만불로 20.7%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 폴란드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01		2002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336	-36.3	349	3.7	382	9.5	807	111.2
수입	46	-19.2	47	3.4	73	56.1	89	20.7
수지	290	-38.6	302	4.1	309	2.3	718	132.4

< 주요 교역품목 >

수 출

(단위: 천불, %)

품목명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82,254	9.5	807,233	111.2
칼라TV	68,760	-2.1	308,688	348.9
승용차	25,671	168.1	67,328	162.3
자동차 부품	43,509	8.7	58,027	33.4
무선 전화기	22,609	-28.5	39,156	73.2
무선 통신기기 부품	1,414	-16.6	27,181	1,822.0
컴퓨터 부품	2,165	-66.4	26,120	1,106.5
폴리에스터 직물	27,359	-22.0	22,805	-16.6
보조기억장치	10,682	43.7	18,516	73.3
합성수지	14,129	86.1	17,821	26.1
화물자동차	8,625	63.0	16,378	89.9

수 입

(단위: 천불, %)

품목명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3,548	56.1	88,789	20.7
자동차부품	7,718	1,696.9	13,878	79.8
가축육류	2,628	-27.6	9,709	269.4
선박	75	-84.1	6,452	8,543.3
기타난방및전열기기	5,451	35.6	5,584	2.4
냉장고	2,328	8,379.3	4,974	113.7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4,638	1,827.7	4,801	-67.2
원동기	1,981	59.9	4,323	118.2
강반제품	0	-	3,790	-
무선통신기기부품	5,265	-25.4	3,550	-32.6
전구	2,444	67.9	2,891	18.3

정보원: KOTIS 한국 무역통계 등

4. 한국과의 투자관계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 현황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폴란드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다. 2004년 말 현재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액은 58건 6억 7,709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 추이

(단위: 천달러)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계
투자건수	2	2	3	58
투자액	37,824	16,921	36,070	677,091

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주: 純투자(투자 회수분 감안) 기준으로는 54건 546,861천달러 임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는 대우자동차의 파산 및 철수 이후 금액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들어 LG전자, 대우전자 등 현지 TV생산법인들이 활발하게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별 투자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66.2%, 도소매업 18.5%, 부동산/서비스업 9.2%, 기타(농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6.1%로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내 주요 투자분야로는 자동차 및 부품, 영상기기(TV), 조립금속 등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직접투자 진출한 업체로는 LG전자(TV), 대우일렉트로닉스(TV), SK 유로켄(PET 원료), 운화실업(안전벨트), JK Corp.(TV 부품), 한국유리(자동차용 유리), 한양 몰드(금형), 모나미(필기구) 등이 있다.

<폴란드의 대한국 투자현황>

폴란드의 대한국 투자는 현재로는 1건(329천 달러) 밖에 없다.

폴란드의 대한국 투자 추이

(단위: 천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 2004년	총 계
투자건수	1	없음	1
투자액	329	없음	329

정보원: Invest KOREA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5. 6)

5. 수입규제사례/수입규제사례(철강제품)

<EU 가입과 수입규제>

2004년 5월1일 폴란드의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는 EU의 공동통상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을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의 특혜무역협정(GSP제도, FTA 등)과 무역규제 조치가 신규 회원국인 폴란드에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5월1일부로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대외교역에서도 EU의 공동역외관세(CET)가 적용된다.

반면, EU가 역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는 2004년 5월부터 폴란드에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EU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컬러TV, 컬러 브라운관 등), 세이프가드(철강제품), 상계관세(반도체) 등의 수입 규제 조치가 폴란드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폴란드의 대한 수입규제 관련>

EU 가입 직전 폴란드는 10여건의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중 한국과 관련된 것은 하기 4건의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규제형태	품 목 명	해당국가	조치내용	조치 개시일*
세이프 가드	Calcium Carbide (HS 284910 000)	모든 국가 (Erga omnes)	추가관세 15% + 무관세 쿼터	2002. 2. 18
	Gas Water Heaters (HS 841911 000)	모든 국가 (Erga omnes)	추가관세 25% + 무관세 쿼터	2002. 5. 28
	Matches (HS 360500 000)	모든 국가 (Erga omnes)	N.A	2003. 5. 7
	Certain Steel Products (철강 8개 제품)	모든 국가 (Erga omnes)	추가관세 9 - 15%	2003. 3. 8

자료원: 폴란드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Labour & Social Policy)

그러나, 폴란드가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상기 세이프 가드는 2004년 4월 30일자로 모두 효력이 상실되었다. 철강제품의 경우 만료일은 2005. 3. 8로 되어 있으나, EU 가입에 따라 역시 효력이 상실되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2005. 6)

6. 진출 성공/실패사례/LG전자 폴란드 생산공장

<LG전자 폴란드공장 현지생산 성공사례>

LG전자 폴란드 공장(LGEMA)은 99.1.13 폴란드 북부도시인 Mulawa (무와바)에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컬러 TV 생산기지로 폴란드 기업인 Curtis Electronics로부터 건물과 생산설비를 인수하여 설립하고 현재 650명의 종업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장설립 이후 99년도 칼라 TV 생산량은 총 27만 5천대, 그리고 2000년도9월에는 공장 증축을 통해 연간 80만대 이상을 생산 중이며, 모델별로는 14인치에서 29인치까지로써, 폴란드를 비롯한 서부/중부/동부유럽과 발틱 3국 등 총 16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율은 80%로서 전체 생산액 130천만불중 104백만불을 폴란드를 제외한 발틱 3국 등 전유럽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함으로써,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전진기지로써 폴란드에 현지생산 투자방식을 성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대 유럽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2003.4월 공장확장 기공식을 통해 PDP 기존의 CRT TV 생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젝션 TV, LCD TV 등을 중점 생산하기 위해 15백만불을 투자하고 연산 능력을 150만대로 대폭 확대 중이다.

아울러 LG전자는 내년부터 매년 10백만불 이상씩 폴란드 생산공장 확장 투자를 통해 2006년까지 총 10억불을 투자함으로써 유럽내 생산기지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LG 전자 무와바 공장은 소재지 도시인 무와바 시장 등 주요인사의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인 직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낚시대회 등 친선행사를 매년 (2000년도부터 시작) 개최함으로써 공장 소재 도시민과의 친화를 크게 도모하고 노사간의 화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7. 주요 이슈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 문제>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관심의 초점은 폴란드가 언제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는 나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럽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EU 측은 폴란드가 언약한 대로 2007년 말까지 유로존 가입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폴란드의 재정개혁 실행의 진척도가 느리다고 보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유로존 가입 요건의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정부 재정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2003년 재정적자가 GDP의 3.9%에 달해 유로권 회원국에 요구되는 3%를 초과했다. 현재 폴란드 정부가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개방형 연금기금 (OFEs: open pension funds)을 제외할 경우 적자는 1.6% 포인트 높아지게 됨. 이와 관련, Eurostat는 최근 OFE가 재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 물가상승율도 2004년 8월말 기준 12개월간 2.5%를 기록해 한도를 0.1% 포인트 넘어서었다.
- 또한, 같은 기간 평균 장기금리(average long-term interest rates)도 6.9%에 달해 한도인 6.4% 보다 높았다.
- 다만, 폴란드의 공공부채는 GDP의 45.4%로 최대 허용치인 GDP의 6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EU 측은 폴란드의 중앙은행법(Act on the National Bank of Poland)과 헌법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109조 및 유럽의 중앙은행 시스템과 완전히 조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폴란드의 중앙은행법은 불완전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정책의 결정이 바르샤바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질 수 있도록 폴란드 헌법의 개정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요건 충족에 대한 EU의 회의적 시각은 주로 “계획된 재정개혁의 실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 9월까지 폴란드의 회가 Hausner 플랜(재정개혁안)에 규정된 절감액의 단 25% 내지 30% 만 승인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2007년 말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EU 보고서에 의하면, EU 신규 10개 회원국중 유로존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나라는 없었다. 10개국 중 유로존 가입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폴란드와 헝가리로 평가되었는데 보고서는 두 나라가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로존 도입에 가장 근접한 신규 회원국으로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가 거명되었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5.6)

8.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비자>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무비자 입국시 90일내 체류가 가능함.**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한국인의 경우 비자 또는 임시 거류증을 받아야 한다.

임시 거류증은 12개월 이상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노동허가 취득자, 개인사업자, 유학생, 폴란드 국민과 결혼한 자 등이 대상이다.

영주권은 폴란드와 지속적인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관계를 가진 자로서 폴란드 내에 주택과 소득원을 보유하고, 임시 거류증을 발급 받아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다.

임시 거류증은 폴란드 주정부 또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도 임시 거류증은 폴란드의 해당 주 정부에서 발급한다.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2년(단, 총 체류기간은 10년 초과 불가)이며,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60일전에 해야 한다.

<출입국 절차>

출입국 심사 및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 도착 후 약 15 - 30분 정도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입국시는 입국심사 및 세관검사의 순이며 검역절차 및 확인은 없다. 출국시는 세관검사, 출국심사의 순이다.

통관시에는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녹색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면 된다. 녹색 세관 검사대를 통과할 때 세관원이 입국자의 수하물이 많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외화 반입 및 면세품 보유한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같으며 다음과 같다.

- 외화: Euro5,000 상당
- 악기, 타자기, 카메라, 캠코더 등: 각 1대씩
- 카메라 필름: 12롤
- 카세트 테이프: 5개
- 고가 운동기구(써핑기구, 보트, 싸이클, 스키, 낚시대 등): 각 1대씩
- 보석류(금, Platinum, 천연석 소재): 50g
- 가공 육류: 2kg - 천연육류: 1kg
- 낙농제품: 1kg - 초콜렛 및 초콜렛 제품: 1kg
- 커피: 500g - 보드카 및 위스키: 1리터
- 포도주: 2리터 - 맥주: 5리터
- 담배: 250개피 - 시가: 50개피

<출입국 유의사항>

체류기간이 90일을 넘거나 폴란드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법에 따라 국경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입국 외국인에게 폴란드 체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일 기준 100Pln(최소 총액 500Pln), 16세 이하는 50Pln(최소 총액 300Pln)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 목적은 폴란드 동쪽 국가로부터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 입국시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풍토병 등에 대비한 예방 접종은 없다.

입국시 외화 소지금액이 1인당 Euro5,000 (약 US\$ 4,500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증서(3개월간 유효)가 있어야 출국할 때 문제없이 재 반출할 수 있다. 반입 증서가 없는 5,000Euro 초과외화에 대해서는 압류되며, 압수에 대한 이의 사항 발생시에는 소송을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

입국자의 보유 물건이 면세품의 보유 한도 이내이라도 품목의 종류가 많아서 개인 여행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예: 상업적인 목적) 과세될 수 있다.

주류, 식품, 담배 등의 반입시에는 면세품 보유 한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들 품목의 경우 폴란드 관련 부처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한도를 넘어서면 압류 당할 가능성이 높다.

9. 환전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즈워티(Zloty, 약칭: zł 또는 PLN)이다. 1'즈워티'는 100'그로셰'(Groszy)이다. 지폐는 10, 20, 50, 100, 200 즈워티가 있고, 동전은 1, 2, 5, 10, 20, 50 그로셰가 있다. 통상 1달러는 3.00pln이며, 한국 원화로는 약 300원으로 보면 되나, 수시로 환율이 변동되고 있다.

95년 1월 1일부로 '즈워티'화를 1만대 1로 액면 절하한 이후 신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종전의 즈워티 화폐는 9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했었고, 96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유통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까지는 시중 은행에서 신 '즈워티'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2004.5.1부로 EU에 가입했으며 EURO화 채택은 2007년 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2000년 4.12일부터 변동환율제가 시행중이다.

<97년 이후 환율(달러 대비)>

(단위: PLN)

구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3.2808	3.4937	3.9675	4.3464	4.0985	4.0795	3.8889	3.6540
연도말	3.5180	3.5040	4.1483	4.1432	3.9863	3.8388	3.7405	2.9904

자료원 : 중앙은행

<환전>

시내에 있는 칸토르(Kantor/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은행의 환율은 칸토르보다 못하다.

"칸토르"는 90년초 정부의 독점적인 외환관리가 풀리면서 등장했는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한다. 현재 전국에 약 3,500여개의 칸토르가 있다. 특히 바르샤바 시내에는 요처에 많기 때문에 찾는 데 어렵지 않다.

칸토르에서 외환의 매입, 매도가 모두 가능하며 환전액 제한은 없다. 동전은 환전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해주더라도 액면의 60% 정도로만 쳐준다.

칸토르는 환전시의 매입·매도를 차이로 이윤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다. 대개 아침 8시-저녁 5시 사이에 개점하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환율이 좋지 않다.

또한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구좌 보유자에 한해서만 입출금시 환전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에서 투숙객을 위해 환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급적 공항내 환전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만약 바르샤바의 오켄치 공항에 도착한 후 환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항 1층보다 2층의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

칸토르 간에도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3-4 군데의 칸토르를 둘러보고 가장 좋은 환율의 칸토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합하면, 폴란드에서 환전시 환율이 유리한 환전장소의 순서는 칸토르, 은행, 호텔, 공항내 환전소 등이다.

10. 기후

<기후 특성>

폴란드는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크지 않다.

폴란드는 북위 49도-54도, 동경 14도-24도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부 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부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 (12월-3월) 최저 온도는 -20℃도, 여름 (6월-8월) 최고 온도는 35℃이며, 연평균 기온은 6-8.8℃이다. 1월의 평균 온도는 -4℃, 7월은 19℃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고, 평야 지대 500-700mm, 중부 지역 500mm이하, 남부 산악 지대 1,000-1,100mm이다. 평균적으로 우기인 여름철의 강우량은 겨울철의 약 두 배이다.

적설일수는 동남부가 40일 이하, 동북부 90일 이상, 0℃ 이하 일수는 80-130일이다.

봄은 겨울과 봄 날씨가 계속 교차 반복되다가 4월부터 햇빛이 본격적으로 나면서 시작된다. 여름은 6-8월로서 건조한 편이다. 매우 무더울 때는 한 차례 정도 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의 평균 온도는 18℃이고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가을은 9월부터 약간씩 추워지면서 시작한다. 9월은 비오는 날이 많다. 하루에도 날씨 변동이 심하다.

겨울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겨울철은 춥고 구름이 낀 날이 대부분이고, 눈이 내릴 때가 많다.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나 기간이 길지 않다. 겨울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은 편이다.

<주요 도시의 기후>

(주요 도시의 평균 온도 및 강수량)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중부	온도(℃)	-4	-2	2	5	13	16	17	19	13	6	2	0	7.8
	강수량(mm)	1	21	24	27	57	61	214	23	38	55	39	28	588
북부	온도(℃)	-1	2	3	4	9	15	18	20	14	8	4	1	8.4
	강수량(mm)	8	23	21	38	89	36	116	4	95	117	31	42	620
중서부	온도(℃)	-3	2	3	5	13	16	19	18	13	7	2	0	8.4
	강수량(mm)	3	50	20	42	66	86	193	40	33	59	14	32	638
중남부	온도(℃)	-6	1	3	5	14	17	17	18	13	6	3	1	8
	강수량(mm)	17	50	20	36	65	91	285	49	53	68	54	65	823
서남부	온도(℃)	-4	3	4	6	13	17	17	19	14	7	3	0	7
	강수량(mm)	5	26	14	50	65	39	238	51	37	42	29	33	629

11. 공휴일

<2002-2005년도 공휴일 일정표>

공휴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년	1. 1	1. 1	1. 1	1. 1
부활절	4. 1	4.20-21	4. 11-12	3.27-28
노동절	5. 1	5. 1	5. 1	5. 1
제헌절	5. 3	5. 3	5. 3	5. 3
성체일	5.30	6. 19	6. 10	5.26
성모승천일	8. 15	8. 15	8. 15	8. 15
만성절	11. 1	11. 1	11. 1	11. 1
독립기념일	11. 11	11. 11	11. 11	11. 11
성탄절	12.25-26	12.25-26	12.25-26	12.25-26

12.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이나, 하절기 서머타임 적용시는 7시간이다. 즉, 폴란드의 하절기 서머타임 적용(4월-10월)시기에는 한국의 16:00는 폴란드의 09:00 이며, 폴란드의 동절기 서머타임 해제(11월-3월)시기에는 한국의 17:00가 폴란드의 09:00 이다.

서머 타임이 해제되는 겨울철에는 오후 3시만 되어도 어두워져 야외 활동이 어렵다.

<근무 시간>

주요 기관 및 장소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기관 및 장소	시 간	비 고
관 공 서	08:15 - 16:15	(토, 일요일 휴무)
은 행	08:30 - 17:00	(토, 일요일 휴무)
국영기업	08:00 - 15:00	(토, 일요일 휴무)
민간기업	08:00 - 16:00	(토, 일요일 휴무)
레스토랑	13: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주 유 소	08:00 - 23:00	(토, 일요일 영업)
백 화 점	10:00 - 22:00	(토, 일요일 영업)

관공서의 대민 서비스 업무는 공무원의 근로시간보다 짧으며 요일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평균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 시간대는 10:00-15:00 이다.

노동법은 일일 8시간 근무 중 15분을 점심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점심 시간은 길어야 30분내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경우 업무성격상 1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

일반 상점의 경우 길어도 저녁 8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급한 생필품은 주유소(상당수 24시간영업)를 이용한다.

<회계년도>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13. 호텔

아래의 주요 도시 호텔 정보는 호텔/전화/팩스/주소/인터넷/트윈 1박 비용의 순서이고 숙박비에는 아침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광 시즌 여부와 환율 변동 및 호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은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해 일부 주요 호텔과 협의, 특별 할인요금(diploma rate) 으로 예약하고 있다.

바르샤바 (Warszawa)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Novotel	22)621 0271	22)625 0476	forum@forum.netix.pl	UL.Nowogrodzka 24/26	160불
Holiday Inn	22)697 3999	22)697 3899	holiday@orbis.pl	UL.Zlota 48/54	251불
Mercure Fryderyk Chopin	22)620 0201	22)620 8779	N.A	UL.Jana Pawla II 22	145불
Jan III Sobieski	22)658 4444	22)659 8828	hotel@sobieski.com.pl	Pl.Zawiszy 1	257 불
Le Royal Meridian Bristol	22)551 1000	22)625 2577	bristol@it.com.pl	UL.Krakowskie Przedmiescie 42/44	350 불
Sheraton Warsaw Hotel & Towers	22)657 6100	22)657 6200	sheraton1@wonet.com.pl	UL.Prusa 2	360 불
Warsaw Marriott Hotel	22)630 6306	22)830 0311	marriott.bc@it.com.pl	UL.Jerozolimski e 65/79	270불
Hotel Europejski	22)583 2100	22)621 9724	N.A	UL.Krakowskie Przedmiescie 13	90불
Grand Hotel	22)583 2100	22)621 9724	wagrand@orbis.pl	UL.Krucza 28	145불
Reytan	22)646 3166	22)646 2989	www.polhotels.com/warsz/reytan	UL.Reytana 6	81불
Gromada Hotel	22)609 9600	22)846 1580	airport@gromada.pl	UL.17 Stycznia	90불
Radisson SAS Hotel	22)321 8888	22)321 8889	www.radissonsas.com	UL.Grzybowska 24	145-246 불
The Westin Warsaw	22)450 8000	22)450 8111	www.westin.pl	UL.Jana Pawl all 21	190-299 불
Hotel Interconti nental	22)328 8888	22)328 8889	www.warsaw.intercontinental.com	UL.Emilii Plater 49	125-150 유로
한국인 운영 Guest House	22)641 8787	22)643 8127	N.A	UL.Zolny 27A	50불 (아침식사 포함)

브로추와프 (Wroclaw)
 여행안내센터: 71)344 3111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Monopol	71)343 7041	71)343 5103	monopol@orbis.pl	UL.Modrzejewskiej 2	92불
Dwor Polski	71)372 3415	71)372 3415	dworpol@wr.onet.pl	UL.Kielbasnicza 2	103불
Maria Magdalena	71)341 0898	71)341 0920	hotel@hotel-mm.com.pl	UL.Sw.M.Magdaleny 2	125불
Polonia	71)343 1021	71)344 7310	N.A	UL.Pilsudskiego 66	71불

우찌 (Lodz)
 여행안내센터: 42)633 7169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Swiatowid	42)636 3817	42)636 5291	N.A	AL.Kosciuki 68	85불
Grand	42)633 9920	42)633 7876	Res.logrand@orbis.pl	UL.Piotrkowska 72	110불
Centrum	42)632 8640	42)636 9650	centrum@hotelspt.com.pl	UL.Kilinskiego 59/63	86불

크라코프 (Krakow)
 여행안내센터: 12)421 7787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Continental	12)637 5044	12)429 6821	Res.continen@orbis.pl	UL.Armi Krajowej 11	144불
Forum	12)261 9212	12)269 0080	Dh.krforum@orbis.pl	UL.M.Konopnickiej 28	191불
Pollera	12)422 1044	12)422 1389	rezerwac@pollera.com.pl	UL.Szpitalna 30	77불
Demel	12)636 1600	12)636 4543	hotel@demel.com.pl	UL.Glowackiego 22	122불
Grand Hotel	12)421 7255	12)421 8360	grand@kr.onet.pl	UL.Slankowska 5/7	189불
Cracovia	12)422 5122	12)421 9586	cracovia@orbis.pl	Al.Focha 1	171불
Francuski	12)422 5122	12)422 5270	francuska@orbis.pl	UL.Pijarska 13	163불
Logos	12)632 3333	12)632 4210	Logos-kr@intercom.pl	UL.Szujskiego 5	100불

포즈난 (Poznan)
 여행안내센터: 61)852 6156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Mercury	61)855 8000	61)855 8955	mercury@orbis.pl	UL.Roosvelta 20	113불
Novotel	61)877 0011	61)877 3654	rez.npoznan@orbis.pl	UL.Warszawska 64	96불
Poznan	61)833 2081	61)833 2961	hpoznan@orbis.pl	PL.Andersa 1	95불
Lech	61)853 0151	61)853 0880	N.A	UL.Sw Marcin 74	60불
Batory	61)832 4481	61)832 4230	info@batory.pl	UL.Leszczynska 7/13	84불

그단스크 (Gdansk)
 여행안내센터: 58)301 4355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Novotel	58)301 5611	58)301 5619	res.ngdanski@orbis.pl	UL.Pszenna 1	99불
Hevelius	58)301 5631	58)301 1922	hevelius@orbis.pl	UL.Heveliusza 22	125불
Szydlowski	58)345 7040	58)344 3877	office@hotel-szydlowski.com.pl	UL.Grunwaldzka 114	109불
Posejdon	58)553 1803	58)553 0228	posejdon@orbis.pl	UL.Kapliczna 30	97불
Marina	58)553 2079	58)553 3159	marina@orbis.pl	UL.Kapliczna 30	114불
Talar	58)309 0882	58)306 5865	N.A	UL.Trakt Sw.Wojciecha 212	52불

카토비체 (Katowice)
 여행안내센터: 32)599 414

호텔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homepage	주소	요금
Silesia	32)596 211	32)596 140	silensia@orbis.pl	UL.Piotra Skargi 2	123불

참고 사이트: www.poltravel.com (All hotels in Poland)

14. 식당

<폴란드 식당>

폴란드 전통음식은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구운 Pork Chop(돈까스와 비슷)이며, 양배추 절임과 사탕무를 갈아 만든 Salad와 함께 나온다.

식사 시 즐겨 마시는 술은 대개 보드카, 맥주, 포도주 등이다. 폴란드 특산 보드카인 Zubrowka(주브루프카)는 Bialystok(비아위스톡)이라는 폴란드 지방 도시에만 자라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 풀잎을(이 풀잎 이름이 주브루프카 잎) 넣어 만든 것으로 일본에서도 최상의 보드카로(대부분이 러시아 보드카로 알고 있음) 알려져 있다. 폴란드산 맥주는 유럽식으로 맛이 진하며 독특한 쓴맛이 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Zywiec(지비에츠)라는 맥주가 비교적 맞으며, 포도주는 주로 헝가리산과 불가리아산을 마시는데 점차적으로 서유럽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산 등도 수요가 늘고 있다.

주요 폴란드 메뉴는 타타르(Tatar/폴란드식 육회), 샤슈윅(Szaszlyk/ 돼지고기, 소고기, 햄, 양파 등의 꼬치구이), 비고스(Bigos / 신 양배추, 버섯, 고기 또는 소세지 등을 넣고 삶은 요리), 바르슈츠(Barszcz/ Beet를 갈아 만든 전통 스프로서 감기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짐), 카푸스타 키쇼나(Kapusta Kiszona/ 신 양배추 절임) 등이 있다. 특히 Adler 라는 폴란드 전통음식점의 Golonka (돼지족발요리)가 유명하다.

<현지식당>

식 당	주 소	전 화	구 분
Adler	Ul. Mokotowska 69	(22)628 7384	폴란드식
Arkadia	Rynek Starego Miasta18/20	(22)635 9214	유럽식
Belvedere	New Orangery, Lazienki Park	(22)841 4806	폴란드식
Bazylierek	Rynek Starego Miasta 3/9	(22)831 1841	유럽식
Café Eljat	Al. Ujazdowskie 47	(22)628 5472	유럽식
Fukier	Rynek Starego Miasta 27	(22)831 1013	폴란드식
Konstancja	Ul. Zrodlna 6/8	(22)756 4325	유럽식
La Boheme	Pl. Teatralny 1	(22)692 0681	유럽식
Przy Zamku	Plac Zamkowy 15/19	(22)831 0259	유럽식
Blue Cactus	Ul. Zojaczowska 11	(22)651 2323	멕시코식

<동양식당>

식 당	주 소	전 화	구 분
Bliss	Ul. Boczna 3	(22)826 3210	중국식
Pekin	Ul. Senatorska 27	(22)827 4804	중국식
Maharaja	Ul. Marszałkowska 34	(22)621 1392	인도식
Taj Mahal	Ul. Brzozowa 27/29	(22)831 8926	인도식
Azalia Thai	Ul. Filtrowa 70	(22)658 0068	태국식
Ha Long	Ul. Emilii Plater 36	(22)620 1523	베트남식
Inaba	Ul. Nowogrodzka 84/86	(22)622 5955	일본식
Tokio	Ul. Dobra 17	(22)827 4632	일본식
Tsubame	Ul. Foksal 16	(22)826 5127	일본식

<한국식당>

식 당	주 소	전 화	구 분
서울가든	Ul. Wiertnicza 102	(22)642-1618	한국/일본식
한강	Ul. Walbrzyska 11,lok 159	(22)549-9152	한국/일본식
라스	Ul. Kostki Potockiego 24A	(22)642-1471	한국/일본식
아리랑	Ul. Wolnosz 7	(22)862-2000	한국/일본식
아카시아	Ul. Jana Pawla 61	(22)636-6767	한국/일본식

15. 교통/통신/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과의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텔담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이태리 로마,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할 경우의 공항 대기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며 총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다.

폴란드 - 한국간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과 폴란드 항공(LOT)간에 추진한 바 있었으나, 한국의 IMF 여파로 중단되었다.

<시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가전차(tram), 지하철 등이 있는데 한 가지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일회권 2.4Pln, 일일권 7.2Pln, 일주일권 26Pln, 한달권 66Pln의 가격이다. 12세 이하의 어린이, 학생, 정년퇴직자에게는 50% 할인된다.

버스는 5시-23시, 트램은 4시-24시까지 운행된다. 지하철은 1개 노선으로 유용하지 못하다. 23시부터 새벽 5.30분까지 운행되는 야간 버스(Night bus) 승차권은 7.2Pln 정도이다.

승차권은 곳곳의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있는 Kiosk(신문 등을 파는 소형 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택시>

콜택시가 일반화되어 있다. 택시 지붕에 써 있는 전화번호(9191, 9621, 9644, 9623, 9624 등)를 이용, 호출한다. 택시의 대기시간은 약 10분이며, 요금은 기본 5Pln에 1Km당 2Pln씩 추가된다. 시내에서는 20-30Pln이면 주요 지역을 갈 수 있고, 밤 10시 이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증요금이 붙는다. 팁에 관한 관습이 일반화되지 않게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번호가 없이 "Taxi" 라고만 적혀 있는 일반택시는 콜(번호)택시보다 가격이 5배 이상 비싸다. 특히 공항, 호텔, 중앙역, 백화점, 구시가(Old Town) 앞에서 관광객 상대로 한 바가지 행위가 많다.

바르샤바 공항 입국시에는 공항 로비의 Airport Taxi 창구에서 티켓을 구입한 후 동 티켓으로 운행되는 택시를 승차하거나 공항 밖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타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항 내에서 호출하는 택시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호텔에서 이용할 경우, 프런트 데스크에 콜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면 약 10분 정도 후에 탑승할 수 있다.

<국제통신>

한국에서 폴란드로 전화할 경우, 001(혹은 002)+48+지역번호("0"은 제외)+해당번호를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데, 공중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00+82+지역번호("0"은 제외)+해당번호를 누르면 되며, 한국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번호가 011로 시작되는 경우 "0"을 제외하고 00-82-11 순으로 번호를 누르면 된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의 일반 국제전화 요금은 1분당 2.56Pln,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은 약 60 - 70% 저렴하지만 호텔에서서는 이용할 수 없다.

<국내통신>

유선전화는 10가구당 2.6대의 전화기가 보급되어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공중전화는 공중전화 전용 카드 또는 동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화카드 등은 키오스크(소형매점)에서 판매한다.

시내 전화는 3 분당 0.29Pln이 부과되며, 22-08시 사이에는 6 분당 0.29Pln이 부과된다. 시외전화는 주중에는 1 분당 0.40Pln 부과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1 분당 0.30Pln 이 부과된다. (VAT 미포함 가격)

16. 유용한 연락처

<비상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경찰	997	교통사고 포함
화재	998	
응급환자	999	
전화안내	118 913	
24시간약국	825-6986	바르샤바 중앙기차역 (Central Station) 구내 소재
카드분실신고	625 4030	Amex 카드
	515 3000	비자/마스터카드(24시간 운영)

<관광서>

경제, 노동, 사회정책부

주소 : Pl.Trzech Krzyzy 3/5, 00-950 Warszawa

전화 : (22)693 5000 / 팩스 : (22)693 4048 / 인터넷 : www.mgip.gov.pl

재무부

주소 : Ul.Swietokrzyska 12, 00-916 Warszawa

전화 : (22)694 5555 / 팩스 : (22)826 6352 / 인터넷 : Www.Mofnet.Gov.Pl

국고부

주소 : Ul.Krucza 36, 00-522 Warszawa

전화 : (22)695 8000 / 팩스 : (22)621 3361 / 인터넷 : www.msp.gov.pl

법무부

주소 : Al.Ujazdowskie 11, 00-950 Warszawa

전화 : (22)628 44 31 / 팩스 : (22)621 3095

내부행정부

주소 : Ul.Batorego 5, 02-517 Warszawa

전화 : (22)621 0251 / 팩스 : (22)628 7488 / 인터넷 : Www.Mswia.Gov.Pl

외무부

주소 : Al.Szucha 23, 00-580 Warszawa

전화 : (22)623 9000 / 팩스 : (22)629 0500 / 인터넷 : Www.Msz.Gov.Pl

교육부

주소 : Al.Szucha 25, 00-918 Warszawa

전화 : (22)628 0461 / 팩스 : (22)628 6953 / 인터넷 : www.men.waw.pl

문화예술부

주소 : Ul.Krakowskie Przedmiescie 15/17, 00-071 Warszawa

전화 : (22)421 0100 / 팩스 : (22)826 7533 / 인터넷 : www.mk.gov.pl

국방부

주소 : Ul.Klonowa 1, 00-909 Warszawa

전화 : (22) 628 0031 / 팩스 : (22) 687 1393

농업식품부

주소 : Ul.Wspolna 30, 00-930 Warszawa

전화 : (22)623 1000 / 팩스 : (22)623 2750 / 인터넷 : Www.Minrol.Gov.Pl

교통해양부

주소 : Ul.Chalubinskiego 4/6, 00-928 Warszawa

전화 : (22)630 1000 / 팩스 : (22)830 0261 / 인터넷 : Www.Mtigm.Gov.Pl

보건부

주소 : Ul.Miodowa 15, 00-952 Warszawa

전화 : (22)831 2144 / 팩스 : (22)831 1212 / 인터넷 : Www.Mzios.Gov.Pl

투자유치청

주소 : Al.Roz 2, 00-559 Warszawa

전화 : (22)629 5717 / 팩스 : (22)621 8427 / 인터넷 : Www.Paiz.Gov.Pl

기술청

주소 : Ul.Krucza 38/42, 00-512 Warszawa

전화 : (22)629 4151 / 전화 : (22)628 3611 / 인터넷 : Www.Att.Gov.Pl

중앙은행

주소 : Ul.Swietokrzyska 11/21, 00-919 Warszawa

전화 : (22)653 1000 / 팩스 : (22)620 8518 / 인터넷 : Www.Nbp.Pl

조달청

주소 : Al.Szucha 2/4, 00-582 Warszawa

전화 : (22)694 7141 / 팩스 : (22)628 8938 / 인터넷 : Www.Uzp.Gov.Pl

통계청

주소 : Al.Niepodleglosci 208, 00-925 Warszawa

전화 : (22)608 3000 / 팩스 : (22)608 3863 / 인터넷 : Www.Stat.Gov.Pl

관세청

주소 : Pl.Powstancow Warszawy 1, 00-030 Warszawa

전화 : (22)826 1031 / 팩스 : (22)827 3427 /

인터넷 : Grazyna.Barczewska@Guc.Ac.Gov.Pl

산업개발청

주소 : Ul.Wspolna 4, 00-926 Warszawa

전화 : (22)628 2350 / 팩스 : (22)628 0934 / 인터넷 : Www.Arp.Com.Pl

<은행>

상위 10대 은행(매출액 기준)

Pko S.A.

주소 : Ul. Grzybowska 53/57, 00-950 Warszawa

전화 : (22)656 0000 / 팩스 : (22)656 0004 / 인터넷 : Www.Pekao.Com.Pl

Pko Bp

주소 : Ul. Pulawska 15, 00-950 Warszawa

전화 : (22)521 8641 / 팩스 : (22)521 8642 / 인터넷 : Www.Pkobp.Pl

Bh S.A.

주소 : Ul. Chalubiskiego 8, 00-950 Warszawa

전화 : (22)690 4792 / 팩스 : (22)830 0113 / 인터넷 : Www.Bh.Com.Pl

Bph S.A.

주소 : Ul. Na Zjezdzie 11, 30-527 Krakow

전화 : (12)422 3333 / 팩스 : (12)618 7187 / 인터넷 : Www.Bph.Pl

Bank Gospodarstwa Krajowego

주소 : Ul. Lucka 7/9, 00-958 Warszawa

전화 : (22)627 0386 / 팩스 : (22)658 6711 / 인터넷 : Www.Bgk.Com.Pl

Big Bank Gdanski

주소 : Ul. Kopernika 36/40, 00-924 Warszawa

전화 : (22)657 5000 / 팩스 : (22)826 7180

Bank Slaski

주소 : Ul. Warszawska 14, 40-950 Katowice

전화 : (32)253 0337 / 팩스 : (32)253 7852 / 인터넷 : Www.Bsk.Com.Pl

Bre Bank

주소 : Ul. Senatorska 18, 00-950 Warszawa

전화 : (22)829 0000 / 팩스 : (22)829 0081 / 인터넷 : Www.Bresa.Com.Pl

Powszechny Bank Kredytowy

주소 : Ul. Towarowa 25A, 00-958 Warszawa

전화 : (22)531 8000 / 팩스 : (22)531 8705 / 인터넷 : Www.Pbk.Pl

Kredyt Bank Pbi

주소 : Ul. Kasprzaka 2/8, 01-211 Warszawa

전화 : (22)634 5400 / 팩스 : (22)634 5335 / 인터넷 : Www.Kredytbank.Com.Pl

<경제단체>

Government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주소 : Ul. Wspolna 4, 00-926 Warszawa

전화 : (22)661 8111 / 팩스 : (22)621 2550

Polish Chamber Of Commerce

주소 : Ul. Tr?Backa 4, 00-074 Warszawa

전화 : (22) 630 9600 / 팩스 : (22)827 4673 / 인터넷 : Www.Kig.Pl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주소 : Ul. Sienkiewicza 12, 00-010 Warszawa

전화 : (22)622 6627 / 팩스 : (22)828 6069 / 인터넷 : Www.Case.Com.Pl

Adam Smith Research Centre

주소 : Ul. Bednarska 16, 00-321 Warszawa

전화 : (22)828 4707 / 팩스 : (22)828 0614 / 인터넷 : Www.Adam-Smith.Pol.Pl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Researches

주소 : Ul.Kolobrzaska 16, 02-923 Warszawa

전화 : (22)651 8660 / 팩스 : (22)651 8662 / 인터넷 : Www.lbngr.Edu.Pl

Institute For Economic Studies(Pan)

주소 : Ul.Marszalkowska 77/79, 00-683 Warszawa

전화 : (22)629 9146 / (22)629 5897

Institute For Researches Of Economic Situation And Prices

주소 : Ul.Frascati 2, 00-483 Warszawa

전화 : (22)629 5892 / 팩스 : (22)628 1777 / 인터넷 : Www.lkchz.Warszawa.Pl

Institute For Economic Development

주소 : Ul.Rakowiecka 22, 02-521 Warszawa

전화 : (22)849 5327 / 팩스 : (22)849 5327

Market &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

주소 : Ul.Krowoderska 59/6, 31-141 Warszawa

전화 : (22)646 3021 / 팩스 : (22)622 6351 / 인터넷 : Www.Cem.Pl

Polish Banking Institute

주소 : Ul.Nowogrodzka 22, 00-511 Warszawa

전화 : (22)622 5237 / 팩스 : (22)622 9896 / 인터넷 : Instytut@Bib.Com.Pl

Business Centre Club

주소 : Pl.Zelaznej Bramy 2, 00-529 Warszawa

전화 : 22 627 17 19 / 팩스 : 22 621 84 20 / 인터넷 : Www.Bccnet.Com.Pl

Polish Cha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 주소 : ul. Nowogrodzka 31, RM 204, 00-511 Warszawa, Poland

- 전화 : (48 22) 628 2260/2406

- 팩스 : (48 22) 628 5536

- 홈페이지 : www.piit.org.pl/index_eng.html

- e-mail : piit@ikp.pl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대사관	Ul.Szwolzerow 6, 00-464 Warsaw	(22)559-2900	(22)559-2905
KOTRA바르샤바무역관	Ul.Emilii Plater 53, 00-113 Warsaw	(22)520-6230	(22)520-6231

기타 폴란드 정보 : www.poland.pl

17.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준비>

한국과 거의 같은 계절이지만, 한국 보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추운 편이다.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긴팔과 외투를 입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무덥지는 않으며, 5-6월에도 기온차가 심해서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다. 겨울철에는 매우 춥고, 또 강한 눈바람이 불기 때문에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여행여건>

(치안)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살인,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강력 조직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버스나 전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소매치기와 야간 기차에서의 강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국경을 넘는 야간 기차에는 강력한 마취제를 살포한 뒤, 강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

Skin Head족 등 불량배와 마피아가 있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알려진 우범지역은 기차역, 야간의 Old Town 주변, '비스와' 강 동쪽 북부의 프라가(Praga)지역 등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기는 하나,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베트남, 중국인에 대해 간혹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식수)

석회질이 많고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수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수돗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물은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저기압)

폴란드는 기압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편두통이 있을 수 있다. 취침 전에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저기압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

전기규격은 50Hz, 220 Volt이다. 특히 한국의 60 Hz와 상이한 점에 유의하여 전기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쓰'용 폴이 돌출된 소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의 경우 납작한 '프라그'가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납작한 '프라그'가 아닌 원형인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전기 '소켓 어댑터 또는 코드를 구입하면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 운영 상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5개소), 한국식품점 (1개소), 선물가게 (1개소) 등이 있다.

(팁 관행)

일반적으로 10%정도이다. 주로 음식점, 호텔, 이발소, 카페 등에서는 팁을 기대한다.

<쇼핑>

폴란드의 특산품으로 호박(Amber)과 전통 술 '보드카'가 유명하다. 구시가지 내에 호박 취급점이 있으며, 시내 각처와 호텔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Zubrowska" 보드카는 독특한 향이 나는 풀잎을 넣고 만든 것으로 폴란드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다. 이외에도 "Chopin" 보드카는 포장에 잘 되어 있어 선물 증정용으로 구입된다. 대체로 폴란드산 보드카 가격은 50 pln (14불) 내외이다.

손으로 수를 놓은 폴란드 특산 식탁보도 이색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는데, 폴란드 민속품 판매 체인인 Cepelia에서 구입할 수 있다. Cepelia는 구시가지에 많이 있다.

18. 관광명소

가. 바르샤바 및 근교지역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Warszawa)는 남쪽 국경 산악지역에서 발원하여 북쪽의 발틱해로 흘러 들어가는 비스와(Wisla)강과 모스크바-베를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폴란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위도상으로는 북위 55도에 위치하며, 면적은 485km², 인구는 165만명에 이른다.

바르샤바는 13세기에 도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여 1413년 마조비아 공작 Janusz The Elder에 의해 마조비아 공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1526년 마조비아 공국이 폴란드 왕의 직속 영토가 되면서 1569년부터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왕국의 연합의 회의 개최지가 되었다. 1596년 Zygmunt 3세는 당시 왕궁인 크라코프(Krakow)소재 바벨성이 소실되자 왕궁을 바르샤바로 옮기면서 폴란드의 수도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었던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중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으나, 전후에 복구되어 현재 폴란드의 행정, 교육, 상업의 중심이 되어 있다.

주요 명소로는 Royal Castle, 구시가 광장(인어동상, 바르샤바 역사 박물관 등), 퀴리 부인 생가 & 박물관, 바르샤바 봉기 영웅 기념비, 무명용사 기념비, 성 세례요한 대성당, 와지엔키 공원, 빌라노프 궁전, 문화과학 궁전 등이 있으며, 바르샤바에서 50Km 떨어진 인근 젤라조바볼라에는 쇼팽 생가가 있다.

(1) 와지엔키 공원(Lazienki)

18세기 후반 폴란드 최후의 왕 Stanislaw Augustus Poniatowski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 공원의 이름 와지엔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수렵 장소이었는데 수렵을 마친 후 이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한다.

러시아의 여황제 애카테리나 2세의 젊은 연인으로서 그녀의 후광으로 왕이 된 Poniatowski는 정치적으로 무력하여 현실에서 도망치듯 공원의 조경에 열중했다. 그는 폴란드 영토가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삼국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1795년 애카테리나 2세로부터 폴란드 분할 문서의 조인을 강요당한 후에 퇴위하여, 1798년 성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Poniatowski왕은 열렬한 그림 애호가로서 당시 이 공원내의 궁에 회화와 조각품 5천 점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그가 페테르부르크로 갈 당시에 약 2천 점을 가지고 갔다.

2차대전 당시 이 궁에 소장되었던 많은 그림들은 독일로 유출되었고 1944년 큰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완전히 불타는 수난을 겪었으나 복구되어 지금은 국립박물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공원 입구에는 보리수 나무아래 쇼팽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해마다 5월 ~ 9월 사이 매주 일요일 12시, 16시에 쇼팽의 피아노 연주회가 무료로 열리고 있어 많은 바르샤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공원의 동쪽에는 귀족들이 수렵후 휴식을 취하던 '레스트하우스'와 '화이트하우스'가 있으며, 유명한 금세기초의 폴란드 피아니스트이자 정치가였던 파테레프스키의 박물관도 이곳에 있다. 또한 남쪽에는 식물원과 함께 야외극장 등이 있다.

(2) 바르샤바 왕궁(Royal Castle)

폴란드 왕국의 상징인 이 왕궁은 13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조비아(Mazovia) 공작의 요새였으며, 14세기 중반에 방어용의 큰 탑과 성벽이 세워졌으며, 15세기 초에는 벽돌로 고딕식 왕궁이 세워졌고 수개의 부속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야기에오' 왕조의 마지막 왕이던 '지그문트 아우구스투스'왕 시절이며, 그는 종래의 건물을 '우아드로'라는 궁정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오늘날의 르네상스식 왕궁으로 변모시켰다.

스웨덴의 침입과 대형 화재로 크라코프의 바벨궁이 큰 손실을 입자, 1596년 Zygmunt Waza 3세는 수도를 바르샤바로 천도하고 이곳을 새 수도로 정했다 (구시가의 입구에 높이 서 있는 높다란 원주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그문트왕의 동상임).

이후에도 이곳은 역대 왕조의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제 2차 스웨덴의 침입으로 왕궁이 전소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시 새롭게 복구되었다.

16, 17세기에는 이 왕궁이 의회(Sejm)를 포함한 정치의 중심이었으며, 폴란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교도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또한 1791년 5월 3일 이곳에서 유럽최초로 성문헌법이 상원을 통과하여 폴란드의 현대 국가 형성을 목표로 "무혈혁명"이라고 까지 불리워진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18년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왕궁은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으며, 나치의 침략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이 왕궁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주춧돌만 남은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

다. 1971년부터 이 왕궁을 복구하자는 국민들의 열광에 해외 동포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의 헌금과 정성으로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1988년에 이르러 완전히 제 모습을 찾았다.

(3) 빌라노프 궁전(Palac Wilanowski)

바르샤바 남쪽 교외의 빌라노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세의 사가들로부터 17세기 중엽 회교도의 침입에 대항하여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구출했다는 평가를 듣는 비엔나 전투의 영웅 '얀 소비에스키' 3세의 여름 별궁으로 건립되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이 건물은 바로크식의 궁전건물과 프랑스 왕가인 부르봉가출신인 '소비에스키'왕의 왕비가 정성을 쏟아서 조경하였다는 프랑스식정원이 유명하다.

(4) 무명용사비(Monument Of The Unknown Soldier)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외곽인 승리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폴란드 독립을 위해 약 130년의 기간 동안 죽어간 수많은 무명용사를 위해 1925년 건립되었다.

Saxon궁의 3층 아케이트로 건립되었으나 Saxon궁은 1944년 파괴되고 현재는 아케이드와 무덤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무명용사의 유해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교전지에서 가져온 흙을 담은 14개의 항아리도 묻혀있으며, 2차대전후 대리석판이 추가되었고, 폴란드 및 외국 주요 인사의 중요 행사 시에 헌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5) 국립미술관(National Museum)>

1862년 설립된 바르샤바 미술관(Museum Of Fine Arts)이 1916년에 국립미술관으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26년 건축되었으며, 초대 및 제2대 박물관장의 노력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국립미술관으로 건재할 수 있었다.

현재 동 미술관은 78만여 점의 그림, 사진, 아이콘, 동전 및 메달, 고인쇄물, 지도 등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그림은 고대미술관, Michalowski 교수관, Wyszynski 추기경 중세미술관, 외국회화관, 폴란드 회화관, 20세기 폴란드관, 폴란드 장식예술관 등에 전시되었다.

1995년에 동 미술관은 완전히 재정비되었고, 조각품이 재배치되었으며, Michalowski 교수관은 비잔틴 예술을 포함한 기독교 정교의 미술품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동 미술관은 유럽 장식예술관, 동양미술관, 또 다른 고대미술관을 개관하기도 하고 있다.

(6) 퀴리부인 생가 & 박물관(Maria-Sklodowska Curie's Museum)

구시가(Old Town)의 북쪽에 위치한 동 박물관은 퀴리부인이 탄생한 생가로, 퀴리부인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소장품으로는 실험도구와 여러 기념사진들이 있으며, 방문자의 요청에 따라 퀴리부인의 일생을 담은 영화도 상영된다.

개장시간은 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일요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 이다.

(7) 쇼팽의 생가,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

프레데릭 쇼팽의 출생지인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는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50킬로에 위치한다.

쇼팽은 당시 이곳의 영주였던 스카르벡 백작의 먼 친척이자 프랑스어 교사였던 프랑스인 아버지와 평범한 여성이었던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하였던 쇼팽은 그의 나이 7세때 바르샤바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이곳을 방문하여 예술가로서의 그의 감성을 연마했으며, 지역 농민들이 즐겨 부르는 마주르카곡은 나중에 그가 고향을 생각하고 작곡한 많은 곡들 속에 융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쇼팽이 바르샤바로 이사를 가고 스카르벡 백작이 죽은 후 이 집은 농장의 마굿간으로 사용되는 등 점차 퇴락하여 갔으나, 19세기말 쇼팽을 추앙하였던 한 러시아 음악가에 의하여 이 집이 복원, 수리되어 박물관으로 변모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폴란드에서는 쇼팽협회가 발족되고 이 집의 관리는 쇼팽협회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이때에 원래 작은 지역이었던 것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넓은 부지를 추가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물들을 기증하여, 현재 이 공원에는 약 1만 5천종의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한편 1830년 폴란드를 떠난 쇼팽은 크라코프, 프라하, 비엔나, 뮌헨 등을 거쳐서 파리에 정착한 뒤 작가 조르주 상드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의 후원 아래 쇼팽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여동생이 파리를 방문하여 그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바르샤바 구시가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했다.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매주 일요일 11:00-15:30이면 이 생가에서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회가 열린다.

나. 유네스코 지정 9대 문화 유산

폴란드에는 다양한 관광 명소 외에도,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 유산(World Heritage)' 9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크라쿠프의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Cracow)

1978년에 지정. 지정 당시 유네스코는 전세계에 단 12개소를 문화유산 지구로 선포했는데 크라쿠프 구시가지가 그 중의 하나였음.

16세기 폴란드의 수도를 현재의 바르샤바로 옮기기전까지 수도였으며, 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의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중세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음.

또한 폴란드 전역을 통해 드물게도 제2차 세계대전의 戰禍를 입지 않은 덕분에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00년대의 100년 동안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내에 단 한 채의 신축 건물도 없는 것으로 유명.

타원형으로 조성된 시가지는 주변이 녹지대로 둘러 쌓여 도시건축 공학 측면에서도 유명함. 구시가지의 중심부는 40,000s/m(약 13,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광장이 조성되어 옛부터 市場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태리 베네치아의 마르코 광장과 더불어 유럽 최대 규모의 마켓스퀘어(Market Square)를 자랑하고 있음. 광장 중앙부에 있는 직물회관과 거대하면서도 내부 장식이 정교한 '聖 마리아' 성당은 특히 주목을 끌고 있음.

중세식 구시가지와 더불어 인접한 왕궁(Royal Castle) 및 바벨 언덕(Wawel Hill)까지 보존 지구에 포함되어 있음.

광장 주변부의 건물들은 대개가 지하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이 '부띠끄' 형태의 상점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하공간도 카페 등 훌륭한 지하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바르샤바에는 여행사들이 주관하는 패키지 투어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주로 열차편으로 (Inter City로 불리는 특급열차로 약 2시간 30-40분 소요)이동하여, 현지에서 별도의 교통편을 이용, 60킬로미터 떨어진 유명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와 30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130미터에 조성된 관광 명소인 거대한 '소금 광산'을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비아보비에차 숲(Bialowieza Forest)

1978년에 지정. 1992년에는 폴란드 동부에 인접한 벨로루시(白러시아) 지역까지 보존구에 포함 시켜 관리되고 있음.

(3) 비엘리츠키 소금 광산(Wieliczka Salt Mine)

1978년에 지정. 13세기 이래 岩鹽 鑛山으로 개발된 이래, 오늘날까지 무려 700년 이상 활용이 되고있어 전 세계 광산 중 가장 오랜 기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함.

鹽水 탐사를 하다 발견된 岩鹽鑛은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4세기에 이르러 왕국 재정 수입의 1/3이 이 소금 광산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함.

同 소금광산은 13세기, 당시 '헝가리'왕 벨라 4세의 딸인 '킹가' 공주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킹가 공주는 '비엘리츠키'의 수호 성인으로 봉안되면서, 갱도 내 곳곳에 다양한 소금 조각상이 세워져 있음.

이후 700년 동안 약 7,500만 톤이 채취되었는데 이를 화차에 적재하면 지구 둘레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임. 전체 갱도는 지하 64미터에 위치한 1단계에서 지하 327미터에 위치한 제9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250킬로미터 이르며, 채굴하면서 남겨진 방의 형태만 2,040개에 이름. 오늘날 일반에게 관람이 허용된 부분은 전체의 3%에 불과함.

한편, 광산내부는 늘 화재와 낙반 사고 등이 뒤따라 매우 위험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16세기에는 한 때 매년 전체 광부의 10%가 사고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지하 광산 내부를 둘러 보는 데는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반드시 가이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볼 수는 없게 되어있음.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할 때 20-30명 단위로 그룹을 지어 구경을 하게 되므로 입장이 약간 지체됨.

또한 지하 광산내부는 평균 10도 내외로 다소 서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긴 팔 상의를 한 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는 마지막 입장이 오후 6시까지 가능함.

(4)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centration Camp)

1979년에 지정. 독일의 나치 제3제국 시절에 조성된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 겸 처형장으로, 194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약 400만 명이 기아, 고문, 처형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희생자의 대부분이 유럽 각지로부터 압송된 유대인이었음.

희생자 숫자는 통상 40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과장되게 발표했다는 설과 함께, 지속적인 사실 관계 추적에 따라 오늘날에는 150만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함. 바르샤바에서 360킬로미터, 크라쿠프시에서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이 지역은 폴란드 지명으로 '오시비엡침'(Oswiecim)이라 불려오다 독일에 의해 편입되면서 독일명으로 아우슈비츠로 변경되었음. 당초에는 폴란드 등 점령지의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압송되어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나치에 의해 분류된 이른바 저질 인종이라는 집시 등을 강제 수용하여 노동력 착취는 물론 결국에는 처형시키는 대규모 처형장으로 바뀜.

수용소 소장은 '루돌프 헤스'였으며, 총 28개 동으로 구성된 수용소 규모였음. 피크타임이었던 1942년에는 동시 수용인원이 한 때 28,000명에 달하였으나, 평상시에는 15,000명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헤스는 유대인들의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음.

이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41년 아우슈비츠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브제젠키아(Brzezinka: 폴란드 지명. 독일명으로 비르케나우)에 제 2수용소를 지었는데, 후에 아우슈비츠 제 2수용소라고 명명되었음. 전체 부지가 무려 53만평에 달하며 수용소 건물만도 300동에 달하였는데, 1941년에는 한때 동시 수용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음.

이후 1942년에는 또 다시 인근 '모노비체' 지역에 제 3수용소를 설립한 바 있는데, 현재는 제1수용소와 제 2수용소만이 보존되어 일반 관람을 시키고 있는 것임.

당시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이곳에 진입하기 직전 나치에 의해 수용소 시설은 물론, 각종 문서 기록들이 파괴되어 어느 누구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후 유대인들이 사실 추적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자료들이 수집된 것임. 현재 전시되고 있는 희생자들의 유품들도 전쟁 말기에 파괴되지 못한 채 발견된 일부분에 불과하나, 이것만으로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유례없던 비극을 짐작케 하고 있음. 매년 최소한 100만 명의 관광객,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음.

폴란드 내에는 아우슈비츠 외에도 2차 대전 중 20만 명이 희생된 바르샤바 시내 소재 유대인 '게토' 지구가 극히 일부분만의 시설을 보존하고 있으며, 폴란드 동부의 중심도시 루블린(Lublin) 근교에도 엄청난 규모의 유대인 수용소 현장이 보존되고 있으나, 아우슈비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5) 바르샤바 舊市街地(The Historic Center of Warsaw)

1980년에 지정.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여름 독일군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바르샤바 시민군이 무장 봉기를 일으킴에 따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쌍방이 막대한 희생자를 낸 바 있는데, 독일군은 시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키는 한편, 소련군의 바르샤바진주에 앞서 퇴각하면서,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잘 축조된 舊시가지(Old Town) 전체를 다이나마이트로 완전히 초토화시킴.

이후 폴란드는 공산 치하에 있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 각층의 고증 자료를 활용하고, 복구에 따른 막대한 인력 수요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근로 참여 등을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5년 만에 완전히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킴.

유네스코는 지정할 당시, 13세기의 역사를 20세기에 고스란히 복원해낸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음.

규모 면에서는 크라쿠프의 구 시가지와 비교가 되지 않으나, '바르샤바'시의 80%가 2차 대전 중 초토화 된 만큼,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바르샤바로서는 이곳 만이라도 드물게 중세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곳이 되고 있음.

(6) 자모츠 舊市街地(The Old City of Zamosc)

1992년에 지정. 16세기 '얀 자모이스키'장군(Jan Zamoyski)에 의해 축조되고, 파우다(Paouda)의 건축가 베르나르도 모란도(Bernardo Morando)에 의해 설계된 곳으로, 오늘날 "가장 완벽한" 르네상스식 건축물이 보존된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7) 토론시의 中世式 舊市街地(The Medieval Town of Torun)

1997년에 지정. 14세기-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식 건축물을 구비한 "한자 同盟(Hanseatic League)" 시절의 상업중심 지구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토룬은 한때 독일의 튜턴 기사단(Teuton Knights)의 거점지역중의 하나였으며, 오늘날 까지도 '튜턴'식 건축물의 잔재가 구 시가지 곳곳에 남아있음.

또한 이곳은 폴란드의 남북을 관통해 '발틱'해로 흘러내리는 '비스와'강에 인접해 있는 도시였기에 당시 호박 등 토산물의 무역 통로로도 잘 활용되던 곳임.

현재는 교육 중심 도시이기도 한 이곳은, 地動說로 유명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탄생지이기도 함.

(8) 말보르크의 튜톤식 城砦(The Castle of the Teutonic Order in Malbork)

1997년에 지정. 튜톤 기사단 시대의 중심지로서 중세식 붉은 벽돌 양식을 이용하여 축성된 대표적인 성채로 꼽히고 있음. 19세기에 일차 보수가 있었으며, 2차 대전 당시 공습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또다시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진 바 있음.

튜톤식 성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한 만큼, 오늘날 독일로부터의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음.

내성과 외성으로 축성되고, 가운데 탑 부분은 10층 높이로 당시의 건축술로 볼 때 벽돌만으로 이만한 높이를 축조한 것은 대단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

(9) 칼바리아 제브리돔스카(Kalwar ia Zebrzydowska)

1999년에 지정. 예루살렘을 모델로 한 16세기 유행한 '마니에리즘' 양식의 건축물과 자연 풍경이 복합된 장소로, 전형적인 폴란드의 전통 민속종교인 "예수 고난(the Passion of Christ)회"의 기도 장소이기도 함.

다. 카톨릭 성지

현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을 배출한 폴란드는 정통 카톨릭 국가로서 많은 종교적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은 성모 발현지로서, 바르샤바 市에서 남서쪽 25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성당에 있는 '검은 성모상'과, 바르샤바市 서쪽 200 Km에 위치하고 있는 '리헨' 성당의 성모상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1) 첸스토호바의 검은 성모상 (聖母像)

첸스토호바(Czestochowa)시의 야스나 구라(Jasna Gora : 빛의 언덕)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검은 성모상은 폴란드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키면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인들은 이곳을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검은 성모상의 유래는, 누가복음을 지은 루가(St. Luke) 성인(聖人)이 나자렛에서 성모로부터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던 삼나무 식탁에 그린 그림이라고 전해진다. 이후 서기 326년, 예루살렘에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모후인 헬레나 성인에게 발견되어 보관되었다가 헬레나 성인이 성지 순례차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할 때 아들 콘스탄틴 황제에게 전해졌으며, 황제는 곧 성당을 지어 이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5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보관되어 있던 성모상은,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전하다가 결혼 지참 예물의 일부로 폴란드의 라디스와브 (Radysław) 왕에게로 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에 보관되었던 성모상은 1382년 타타르족의 침공시 '타타르'군이 쏜 화살에 맞아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라디스와브 왕은 보다 안전한 곳에 보관할 곳을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오폴레(Opole)로 옮기기로 하였다.

옮기던 중 '첸스토호바'에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왕은 꿈을 꾸었다. 꿈에 자신들이 묵고 있는 첸스토호바의 야스나 구라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의 정상에 "성모의 승천"이라는 조그만 목조 성당에 자신이 옮기고 있는 성모상이 걸려 있는 것이었다. 이튿날 일행이 오폴레로 출발하기 위해 성모상을 마차에 옮겨 실었으나, 마차를 끄는 말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왕은 『이는 분명히 하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야스나 구라의 성당에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1430년 후스(Huss)의 추종자들이 야스나 구라를 침입하여 사원과 성모상을 파괴하려고 성모상을 향하여 칼을 뽑았다. 두번이나 칼을 휘둘렀으나 성모상의 얼굴에 칼자국만 남겼으며, 세 번째 휘두르려 하자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때 입은 두 번의 칼자국이 지금의 성모상에 나타나 있으며, 후세에 이 칼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번 수리하였으나 보수가 끝나면 다시 선명하게 칼자국이 되살아났다고 알려지고 있다.

카지미어즈(Jan Kazimierz)왕은 1656년 야스나 구라 요새에서 스웨덴 침략군을 격파하고 폴란드와 유럽을 스웨덴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1659년 이 성모상을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공식 공포하였다.

폴란드의 수호신이라는 명칭은 1962년 당시 교황 요한 13세로부터 재차 인정을 받았다. 1979년 교황으로 선출된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의 자격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성모'의 보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그 후로도 1983년과 1991년 두 차례 더 방문을 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야스나 구라가 널리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되었다.

성모상이 일으킨 기적(奇蹟)의 사례:

1655년 폴란드를 침범한 스웨덴군은 야스나구라 성당을 포위하고 화살을 퍼부었으나 성벽에 다다른 화살은 마치 그물에 걸린 듯 모두 성벽 밖으로 떨어지고, 이에 힘입은 폴란드 군의 반격으로 스웨덴군은 대패했다고 전해진다. 이 정경을 묘사한 그림은 지금도 많은 화가들에게 의하여 그려지고 있다. 또한, 1920년 러시아를 적화시킨 레닌의 적군(赤軍)이 서유럽에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맨 먼저 폴란드를 공격했다. 당시 독일은 폴란드가 곧 패배할 것이며 이어서 베를린으로 몰려올 러시아 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공황에 빠졌다. 그러나 바르샤바의 동쪽, '비스와' 강변에 도착한 러시아군은 구름 속에 나타난 성모의 모습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싸였고,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폴란드의 독립 영웅 피우수드스키(Jozef Piłsudski) 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군에 대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소련은 유럽 적화라는 야욕을 포기해야만 했고, 폴란드는 전 유럽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되었다.

성모상이 검은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같이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성모상의 유래를 조사한 크루즈(Joan Carol Cruz)는 그 단서를 기도서에서 찾는다. 즉 성가(聖歌)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검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제단을 밝히는 초의 그을음이나 향연(香煙)이 착색되어 이로 인하여 검게 변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성모상이 안치되었던 사원들이 이교도들에게 여러 번 침입을 받았고 그때마다 불에 탄 적이 많았는데 이 때의 화염(火焰)과 연기로 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모스(Moss)는 회화(繪畵)에서 인물의 피부를 검게 변색시키는 것이 중세기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의 한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이 성모상의 모작(模作)은 여러 곳에 있는데, 스위스의 복제화는 야스나 구라의 성당의 원화(原畵)보다 더 검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도일스타운에 있는 복제화는 오히려 옅은 살색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검은 성모상이 안치된 성당에는 기적에 힘입어 장애를 치료 받은 순례자들이 기증한 선물들이 온 벽을 덮고 있으며, 성물들을 보관한 보물관에는 역대의 제왕이나 순례객들이 봉헌한 수많은 보물과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중세 폴란드의 카톨릭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귀한 서적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

성당내의 박물관에는 고(古) 성경과 성모상을 감싸던 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성의(聖衣)들이 있으며, 진열장 한쪽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신자들이 빵 조각을 이용해 만들어 사용했다는 목주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노조'를 지도하던 바웬사의 투옥 당시의 초상화도 있으며, 그가 자유노조 지도자로서 정부와 함께 사인을 하던 볼펜과 함께 노벨 평화상도 진열되어 있다. 수상후,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훈장들도 함께 진열되어 있다.

(2) 성모 발현지 리헨(Lichen)

또 다른 성모상으로 리헨(Lichen)의 것이 유명하다. 코닌(Konin) 근교에 있는 리헨의 성모상(애도의 성모상, sorrowful Madonna)은 1813년에 라이프치히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폴란드 출신 병사에 성모가 발현하면서 구함을 받은 이 병사가 고국으로 생환하여 자신에게 나타났던 성모상을 찾아서 봉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성모상은 1850년 리헨 근교 숲속에서 발현, 당시 전 유럽을 휩쓸던 콜레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구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킨 만큼 폴란드의 수호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1967년 요한 바오로 6세로부터 공인을 받으면서 매년 수백 만명의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2000년은 성모 발현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많은 순례자들의 참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데 2만 명이 동시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전 유럽에서 7번째로 큰 규모의 성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기적을 일으키는 검은 성모상이 있는 곳으로는 폴란드 외에도, 알토팅(Altötting)의 성모(Bavaria, Germany), 헤르밋(Hermits)의 성모(Einsiedeln, Swiss), 과달루페(Guadalupe)의 성모(Mexico City), 몬세랏(Montserrat)의 성모(Spain), 틴다리(Tindari)의 성모상(Sicily)이 있다.

19. 유용한 현지어 표현

<발음 규칙>

(알파벳 읽기)

W(ㅍ), Ch(ㅎ), C(ㄸ), Sz(쉬), Cz(츠), Dz(즈), Prze(프제), Ę(앵), A(옹), Ł(우), Ó(우), J(이), Y (영어의 I 또는 E)

(모음)

모음은 단모음과 장모음에 구별이 없이 짧고 분명하게 발음한다.

(자음)

유성음(B, W, D, Z, Dz, Z, Rz, Z, Dz, G)은 어미에서는 무성음으로 발음된다.

예) Juz(유쉬), Francuz(프란추스), Katalog(카탈로크)

무성음 앞에서 유성음은 무성음으로 변한다.

예) Wtorek(프토렉), Ksiązka(크송스카)

유성음 앞에서 무성음은 유성음화 한다.

예) Prosba(프로지바), Liczba(리즈바)

Rz, W가 무성음 다음에 올 때는 무성음화 한다.

예) Przez(프세스), Przychodze(프시호쟁), Czwartek(츠평아르테크), Twoj(트부이)

<인사말>

아침, 낮 인사 Dzień Dobry(지엔 도브리)

저녁 인사 Dobry Wieczor(도브리 비에추르)

헤어질 때 인사 Do Widzenia(도 비제니아)

밤에 헤어질 때 Dobranoc(도브라노츠)

만나서 반갑습니다. Bardzo Mi Miło(바르조 미 미워)

(대단히) 감사합니다. Dziękuję (Bardzo) 지앵쿠예 (바르조)

미안합니다. Przepraszam(프쉐프라삼)

사람을 부를 때 Proszę Pana(프로쉐 파나)/남성, Proszę Pani(프로쉐 파니)/여성

<주요표현>

네 Tak(탁), 아니오 Nie(니에),

누구? Kto(크토), 어디에? Gdzie(그지에), 언제? Kiedy(키에디), 어떻게? Jak(약),

왜? Dlaczego(들라체고)

얼마입니까? Ile Kosztuje(일레 코스투예), 얼마큼? Ile(일레)

좋습니다 Dobrze(도브제), 좋지 않습니다 Nie Dobrze(니에 도브제)

모르겠습니다 Nie Wiem(니에 비엠),
물론입니다 Oczywiście(오취비쉬체)
없습니다 Nie Ma(니에 마)
너무 비쌉니다 To Za Drogo(토 자 드로고)
그게 전부입니다 To Wszystko(토 브시스트코)
이것은 무엇입니까? Co To Jest(초 토 예스트)
언제 출발합니까? Kiedy Odlatuje(키에디 오토라투예)- 비행기인 경우
언제 도착합니까? Kiedy Przylatuje(키에디 프시라투예)- 비행기인 경우
가능합니까? Można(모즈나)

<주요 단어>

0 Zero(제로), 1 Jeden(예덴), 2 Dwa(드바), 3 Trzy(트쉬), 4 Cztery(츠테리), 5 Piec(피엔취),
6 Szesc(쉐시치), 7 Siedem(시에DEM), 8 Osiem(오셈), 9 Dziewiec(제비엔취), 10 Dziesiec
(제시엔취), 50 Piecdziesiat(피엔제시옹트), 100 Sto(스토)

월요일 Poniedziałek(포니에자웨크), 화요일 Wtorek(프토레크), 수요일 Sroda(쉬로다),
목요일 Czwartek(츠바르테크), 금요일 Piątek(피온테크), 토요일 Sobota(쏘보타), 일요일
Niedziela(니에지엘라)

어제 Wczoraj(프초라이), 오늘 Dzisiaj(지샤이), 내일 Jutro(유틀로), 오전 Rano(라노),
오후 Po Poludniu(포 포우드니우)

이름 Nazwisko(나즈비스코), 환전소 Kantor(칸토르), 시내지도 Plan Miasta(플란 미아스타),
예약 Rezerwacja(레제르바치아), 화장실 Toaleta(토알레타), 택시 Taksowka(탁수프카),
영수증 Rachunek(라후네크),

오른쪽 Prawo(프라보), 왼쪽 Lewo(레보), 직진 Prosto(프로스토)

물 Woda(보다), 주스 Sok(쏘크), 와인 Wino(비노), 맥주 Piwo(피보), 커피 Kawa(카바), 차
Herbata(헤르바타)

20. 국토

<위치>

폴란드는 중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경국가는 러시아(칼리닌그라드), 리투아
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등 7개국이다.

<면적>

면적은 312,683Km²로서 한반도의 1.4배이며 유럽 9위의 크기이다.

<지형>

국경선의 총 연장길이 3,600km이다. 동서 689km, 남북 649km이며 평균고도는 해발 173m이다. 해발 200m 이하가 전 국토의 75%를 차지한다. 국토의 60%는 농업용지이고 28%가 삼림이다. 1헥타르가 넘는 호수가 9,300개가 있다. 가장 높은 산은 해발 2,499m의 Rysy이다. 가장 긴 강은 1,080km의 비스와(Wisla)강이고 다음은 854km의 오드라(Ordra)강이다.

<부존자원>

폴란드는 비교적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생산과 수출규모가 세계적인 자원은 무연탄, 유황, 동(銅), 은(銀) 등이다. 이밖에 ZINC, LEAD, 천연가스, 소금 등도 상당규모 생산되고 있다. 철광석 자원은 거의 고갈되어 러시아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원유, 천연가스는 개방 이전에 거의 소련에 공급을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북해,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고 있다. 석탄은 폴란드 에너지 공급의 79%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자원이며, 생산과 수출규모에서도 유럽 최대(러시아 제외) 및 세계 7위이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1,214억㎥인데 현 생산수준으로 향후 33년간 생산이 가능하며 국내 수요의 1/3정도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원유 생산량은 없으나, 탐사 개발 중이며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銅)의 경우 현 생산 수준으로 향후 96년간 채광이 가능할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하다. 폴란드 동광은 은 광석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수익성이 높다. 동 생산량은 유럽(러시아 제외)에서 1위이며 세계 7위이다.

ZINC와 LEAD광산은 주로 남서부지역인 실레지아(Silesia), 크라코프(Krakow)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급 자족하는 정도이다.

대표적인 비금속자원은 유황(sulphur)으로, 세계 최대이며 수출규모도 세계 2위를 차지한다. 총 매장량은 512백만 톤으로 향후 125년간 채광이 가능하며 생산량의 70%가 수출된다.

21. 국민

<인구>

폴란드의 총인구는 38,173천명이다. 역사적으로 지방 분권이 발달하여 인구는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총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폴란드계 민족은 1천만 명 이상이며,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 변동

(단위:천명)

	1995	1996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인구	38,609	38,639	38,660	38,709	38,632	38,218	38,191	38,173
(남성)	18,786	18,797	18,801	18,815	18,760	18,506	18,487	18,470
(여성)	19,823	19,842	19,859	19,894	19,871	19,711	19,704	19,703

자료 : 통계청(GUS), YEARBOOK 2004

(* 주: 2005년도 인구는 2004에 비해 감소 예상)

<종족>

폴란드인이 98% 이상을 점하고 있다. 폴란드인은 9세기 중반 비스와강과 오데르강 중간지대에 거주하던 서슬라브계의 한 족속인 폴라니에(POLANIE)의 자손이다.

소수민족으로는 동부지역의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백러시아인과 남서부지역의 독일계가 각각 20만 명 정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폴란드에 3백여만명의 유대인이 살았으나 나치 점령 기간 중 대량 학살과 미국 및 이스라엘로의 이주로 현재는 1만5천명 정도의 유대인만 거주하고 있다.

<종교>

전체 인구의 97%가 로마 카톨릭을 믿으며 그리스 정교/프로테스탄트 교 등은 3%이다. 공산국가시대에도 유일하게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었다.

<국민성>

폴란드인은 공산통치하에서도 신앙을 유지해 온 국민으로서 높은 윤리 및 질서 의식을 갖고 있다. 123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설움 속에서 애국심이 강하게 남아 있고, 자유, 명예, 자존심 등의 감정이 강하다.

국민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폴란드 국민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한다. 서구보다는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으며, 전통적인 사회관습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카톨릭과 연관된 성탄절, 부활절, 만성절 등은 폴란드의 큰 명절로서 도시 근로자의 대부분은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어머니의 결정권이 커서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자녀는 2명이고 다산의 가족도 있다. 주택난 때문에 결혼 때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노부모는 아들딸 구별 없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모시고 부모와 가까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존중 풍토가 뿌리 깊다. 자동차 등을 승하차할 때는 여성이 먼저 하도록 양보한다. 대중 교통수단 탑승 후에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카톨릭의 영향이 강하여 서구보다는 보수적이나, 한편으로는 슬라브 문화의 영향으로 술과 춤을 좋아하는 자유 분방한 기질도 있다.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아 조직력과 단결력이 취약한 면도 있다. "세명이 모이면 네개의 의견이 나온다(3명의 개별의견+3명의 공동의견)."라는 농담도 있으나, 외부로부터 공동의 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치 단결하여 대항하는 기질도 있다.

이민족과 이교도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잘사는 나라의 근면한 민족으로 인식되나 중국인,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는 경시의 풍조가 있다. 유대인, 아랍인에 대한 편견과, 집시에 대한 배타성도 강하다.

<문화수준>

폴란드는 피아노의 시인이자 불리는 쇼팽, '쿠오바디스'의 쟁케비치를 배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예술과 문학 등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폴란드인은 음악을 일반적으로 좋아하며, 오페라, 클래식 연주 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지방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연주회가 연중 수시로 열린다.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 영화제작 기술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인 우즈(Lodz) 및 포츠난(Poznan)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학교가 있다. 극장이 도시마다 요소 요소에 있고 시설도 선진국 수준이다.

남녀 공히 댄스를 좋아하는데, 파티나 모임에 댄스는 일상화되어 있다. 애완견이 한 가구에 한 마리씩 있을 정도로 개를 좋아하며 아침, 저녁 개와 함께 산책을 많이 한다. 스포츠 중에서는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

22. 역사

<왕조 이전>

유럽 민족 대이동 시기인 7세기, 현재의 폴란드 지역에 초기 부족 연맹이 출현했으며, 9-10 세기에 폴란드 남부 소폴란드(Malopolska) 지역에 비슬라니에(Wislania), 서부 폴란드 지역에 폴라니에(Polanie)라는 초기 부족 국가체제가 형성되었다.

<피아스트(PIAST) 왕조(960년경-1370년)>

966년 폴란드 최초 군주 미에쉬코 1세 (Mieszko I)에 의해 로마 카톨릭을 도입되었다. 이후 폴란드는 서구화된 라틴 문화를 도입하여, 당시 수도인 그니에즈노(Gniezno)를 중심으로 폴라니에(폴란드라는 국가명은 여기서 유래) 부족의 피아스트 가문이 폴란드 각 부족을 통합하면서 국가를 형성하였다.

1000년에 황제 오토3세의 그니에즈노 방문후 대주교구가 창설되었다. 1025년에 볼레스와프 군주(Boleslaw chrobry)가 폴란드 최초 왕으로 즉위하였다. 당시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 왕국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현재와 유사한 영토를 형성하였고, 크라쿠프(Krakow)로 천도했다.

1138년부터 봉건 분할 공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4세기까지 200년간 폴란드 왕국은 소수의 공국으로 분열되었다.

1216년 마조프셰(Mazowsze)지역 군주가 프루시(Prusy) 이민족과의 싸움에 독일 튜튼 기사단(Krzyzacy, Teutonic order)을 불러들여 정착시켰다. 이후 폴란드 북부지역을 둘러싸고 폴란드 왕국과 튜튼 기사단의 치열한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1241년에는 몽고족이 침략하여 레그니차(Legnica) 전투 등으로 폴란드가 황폐화되었다.

1320년 브와디스와프 난쟁이 왕(Wladyslaw Iokietek)이 분할시대를 종결시키는 제관식과 함께 폴란드 왕국이 재통합되었다. 1333년 "나무로 된 폴란드를 물려받아 돌로 된 폴란드를 남긴" 카지미에쉬 대왕(Kazimierza Wielki)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폴란드 전역에 수공업과 무역을 장려하고 광업(비엘리츠키/Wielicka/소금광산) 대혁신과 농업 발전을 추진했다.

이때에 최초로 법체제도 완성하였다. 1364년 크라쿠프 대학(현 야기엘로니안 대학 Uniwersytet Jagiellonski)이 설립되었다.

<헝가리 앙주(Anjou) 왕조의 폴란드-헝가리 연합(1370-1385)>

1384년 헝가리 앙주가문의 야드비가(Jadwiga)가 폴란드 여왕으로 즉위했다.

<야기엘로니안(Jagiellonian) 왕조(1385-1572),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

1386년 리투아니아 대공국 군주 야기에우오(Jagiello)는 기독교 개종후 야드비가 여왕과 결혼하여 폴란드 왕으로 즉위했다. 튜튼 기사단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 연합을 이루며 야기엘로니안 왕조를 시작한 것이다.

1410년 그룬발트(Grunwald) 전투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군이 당시 불패를 자랑하던 강력한 튜튼 기사단을 대파하였다. 1454년 폴란드-튜튼 기사단 사이에 13년 전쟁(1454-1466)이 있었고, 토룬(Torun) 조약으로 폴란드는 150여년 만에 그다인스크(Gdansk)를 재 획득하며 발틱해로의 출구를 확보했다. 패한 튜튼 기사단은 수도인 말보르크(Malbork)에서 크롤레비츠(Krolewicz, 현재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로 천도했다.

1506년 지그문트(Zygmunt stary)가 즉위했다. 16세기 폴란드의 황금시대가 시작되었다. 당시 폴란드는 내정이 안정되었고 그다인스크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로 경제적으로 번성하였다. 학문, 예술, 문화가 발달했던 유럽 최강국 중의 하나였다.

1525년 크라쿠프 중앙광장에서 튜튼 기사단장이 폴란드 왕에게 항복을 선언(Hodpruski)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1569년 루블린 합의(Unia lubelska)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Rzeczpospolita)시대(1569-1975)가 개막되었다.

<선거 국왕 시대(1573-1795)>

1573년 프랑스 헨리가 폴란드 최초 선출 왕으로 즉위했다. 이때부터 폴란드 중앙에 위치한 바르샤바(Warszawa)에서 선거로 국왕을 선출하는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왕 선출권을 가진 귀족(szlachta)과 국익보다는 사욕을 우선하던 대귀족의 영향력이 커져서 국력이 서서

히 쇠퇴해졌다. 특히 주변국(스웨덴, 러시아, 터키,코작 등)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1587년 3대에 걸친 스웨덴 바자(Waza) 가문의 통치시대(1587-1668)가 시작되었다. 1596년 지그문트 3세(Zygmunt III)에 의해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천도했다.

1655년 스웨덴의 "대홍수(Potop)" 침략이 있었고, 첵스트호바(Czestochowa) 야스나 구라(Jasna Gora)수도원의 검은 성모 기적의 전설이 생겼다. 1683년 폴란드왕 얀 소비에스키 3세(Jan III Sobieski)가 터키군에 포위된 비엔나를 구출했다. 이후부터 소비에스키 3세는 회교 터키의 위협으로부터 기독교 유럽을 수호한 위대한 왕으로 칭송되고 있다. 1697년 독일 작센 가문(Sas)의 통치시대(1697-1763)가 시작되었다. 1768년 폴란드 마지막 왕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 포니아토프스키(Stanislaw August Poniatowski)시절, 폴란드 귀족들이 반 러시아 성격의 바르(Bar) 연합을 결성했다.

1772년 주변 3대 강국인 카타지나 2세의 러시아, 프레데릭 2세의 프러시아, 마리아 테레지아의 오스트리아에 의한 폴란드 1차 분할이 시작되었다. 1773년 유럽최초의 문교부(Komisja Edukacji Narodowej)가 창설되어 국력 회복의 일환으로 교육 개혁을 시도했다.

포니아토프스키 왕은 바르샤바에 와지엔키궁(Palac wzzi kach) 건축 등 문화, 예술에 전념했다. 1788년 대의회 4년 시기(Sejm wielki czteroletni)에 새로운 법이 많이 제정되었다. 10만 군대 양성, 강력한 중앙권력 수립 등 일련의 국가재건 개혁이 시도되었다.

1791년 유럽 최초의 성문헌법 5월 3일 헌법(Konstytucja 3 Maja) 제정되었다.

1793년 폴란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 군대 진입 후 러시아와 프러시아 사이에 2차 분할되었다. 1794년 크라쿠프 중앙 광장에서 타데우쉬 쿠시치우쉬코(Tadeusz Ko ciuszko) 장군 주도하에 독립쟁취 맹세 후 봉기가 시작되었다.

1795년 폴란드는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3차 분할되었다. 바르샤바는 프러시아, 빌르노(Wilno)는 러시아, 크라쿠프는 오스트리아에 각각 합병되고 폴란드는 지도에서 123년간 사라졌다.

1797년 이탈리아에서 나폴레옹 군대의 일부로 폴란드 연대(Legiony polskie)가 창설되었다. 이 당시 유제프 비비츠키(Jozef Wybicki)가 폴란드 국가된 "아직 폴란드는 죽지 않았다(Jeszcze Polska nie zginela)"를 지었다.

1807년 나폴레옹 군대가 프러시아를 격퇴한 후 바르샤바 공국(Ksiestwo warsza-wskie)이 세워졌다.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러시아에 속하는 폴란드 왕국(Kiestwo polskie)의 건립이 결정되었다. 1830년 11월29일 러시아에 반대하는 11월 봉기(Powstanie listopadowe)가 바르샤바에서 일어났으나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폴란드 지식인들은 망명의 길을 걸었다. 이 당시 폴란드 낭만주의 3대 작가인 아담 미츠키에비츠(Adam Mickiewicz), 율리우쉬 수오바츠키(Juliusz Slowacki), 지그문트 크라시인스키(Zygmunt Krasinski), 쇼팽(Fryferyk Chopin) 등이 프랑스에서 활약했다.

1863년 1월22일의 봉기(Powstanie styczniowe)후 폴란드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펴나 결국 진압 당했다. 이 당시에 '퀴바디스'의 헨릭 시엔키에비츠(Henryk Sien-kiewicz), 퀴리부인(Maria Sklodowska-Curie)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유제프 피우수트스키(Jozef Pilsudski)의 주도하에 폴란드 연대(Legiony polskie)가 조직되어 폴란드 독립 활동이 시작되었다. 1917년 미국 대통령 윌슨은 폴란드 독립을 천명했다.

<제 2 공화국 시대(1918-1939)>

1918년 폴란드를 분할하고 있던 주변 강국에 변화가 생겼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독일의 패전, 오스트리아 제국 붕괴로 독립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11월11일 피우스트스키의 바르샤바 도착과 함께 폴란드는 123년 만에 독립했다 (11.11은 폴란드 광복절). 1920년 폴란드 구 영토 회복을 위한 국경선 투쟁이 있었다. 특히 레닌의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전쟁 당시 8월 '비스와' 강변에서 적군의 바르샤바 공격을 저지하는데 성공하고, 다음해 맺은 리가(Ryga)조약으로 동부 국경선을 확정했다.

1926년 피우스트스키 장군의 5월 쿠데타(Przewrót majowy)로 전후 정치분열을 종식시키는 사나치아(Sanacja) 강력 정권이 수립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과 공산정권 수립(1939-1989)>

1939년 9월1일 히틀러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했다. 이전에 맺은 독.소 비밀조약에 따라 9월17일 소련군은 폴란드 동부를 점령하고 나머지는 독일이 차지했다. 2차 대전 중 폴란드는 60만명의 군인과 600만명의 시민이 희생되는 역사적 비극을 겪었다. 1940년 소련 영토 내에서의 폴란드 장교를 대량 학살한 키틴(Kytin)숲 사건도 발생했다.

1944년 7월22일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자들이 루블린에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PKWN)를 창설했다. 이후 폴란드의 공산주의 정치체제 구축은 소련의 명령을 받은 이들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8월1일 바르샤바 대봉기(Powstanie warszawskie)가 있었다.

비스와(Wisla) 강변에 다다른 소련군의 지원을 기대하며 망명 정부하의 국내 군(AK) 주도로 봉기를 일으키나 스탈린의 계산된 지원 거부로 63일간에 걸친 외로운 투쟁 끝에 25만명의 사망자와 함께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바르샤바'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우익정치세력은 기반을 상실했다.

1945년 2월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간의 얄타회담에서 폴란드는 소비에트 블록하의 공산주의 체제로 운명이 결정되었다. 1947년 선거 결과 폴란드 노동당(PPR) 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승리했다. 볼레스와프 비에루트(Boleslaw Bierut)를 대통령으로 하는 친소 공산정권 수립된 것이다.

1948년 폴란드 노동당이 기타 폴란드 사회주의당(PPS)을 흡수하여 폴란드 통일노동자당(PZPR)을 결성했다.

1952년 스탈린식 신헌법 제정되어 폴란드 인민공화국(PRL)으로 국명이 개칭 되었다.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체결, 소련에 의한 바르샤바 문화궁전(Palac kultury i nauki) 양도, 1956년 비에루트 사망후 포즈나인(Poznan)폭동 등의 사건이 있었고 브야디스와프 고무우카(Wladyslaw Gomu ka)가 집권했다.

1968년 바르샤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의 3월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 발틱해 항구도시에서 파업이 발생했고. 에드바르드 기에크(Edward Gierek)당의 제1서기장이 집권했다. 1978년 10월16일 크라쿠프 대주교 카롤 보이티우와(Karol Wojtyla)가 265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1980년 "뜨거운 여름", 그다인스크를 중심으로 폴란드 전국에서 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했다. 레흐 바웬사(Lech Walesa)를 선두로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치(NSZZ "Solidarność") 결성되었다. 1981년 12월13일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Wojciech Jaruzelski) 장군 주도하 게엄령이 선포되었고, 민주인사 체포와 자유노조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다.

<공산정권 붕괴 이후(1989-현재)>

1989년 4월 공산정부와 자유노조간의 원탁회의(Okragly stol) 결과로 실시된 6월4일 총선거에서 자유노조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7월14일 야루젤스키가 여야 합의에 따라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9월12일 타데우쉬 마조비에츠키(Tadeusz Mazowiecki)를 수상으로 하는 동구 최초의 비공산정권이 출범했다. 12월 29일 헌법이 개정되었다. 폴란드 민중공화국에서 폴란드 공화국(RP)으로 국호가 개칭되었다. 1990년 1월1일 "발체로비츠 플랜(Plan Balcerowicz)"이라 불리우는 급격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12월9일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12월22일 취임했다. 1991년 10월27일 최초의 완전 자유총선 실시 이후 군소 정당이 난립했다. 1993년 9월19일 조기 총선 실시 결과, 분열을 거듭하던 우파 정당이 참패했다. 구 공산당 후신인 좌파민주연합(SLD)과 폴란드 농민당(PSL)이 승리하여 10월18일 연립내각이 출범했다.

1995년 1월1일 폴란드 화폐 개혁이 있었고, 9월19일 대통령 2차 투표에서 좌파 출신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Aleksander Kwasniewski)가 바웬사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1997년 9월 총선에서 자유노조 위원장 마리안 크샤클레프스키(Marian Krzaklewski)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 정당 연합체인 자유노조 선거운동(AWS)이 집권당을 누르고 승리하여 11월 15일 자유노조 선거운동과 자유연합당(UW)의 연립 내각이 출범했다. 자유노조 선거운동의 예쥬 부제크(Jerzy Buzek) 총리가 취임했다.

2004년 5월1일,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유럽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 폴란드의 역사에 관한 국내 서적으로는 "폴란드사 - 세계각국사 23" (정병권 저, 1997.10.25, 대한교과서 발행, 총 368면)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23. 국가조직

<정부형태>

국가형태는 의회 공화제(PARLIAMENTARY REPUBLIC)이다.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체제이다. 1997년 4월 2일 제정되어, 10월 17일부터 발효된 신 헌법에 따라, 폴란드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

대통령이 폴란드 공화국 최고 대표자이자 국가 권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주권과 국가안보, 영토 보전, 헌법/법률상의 책무 수행의 의무가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 각료회의(Rada Ministrow)가 있다.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의 선거 공시 및 의회 해산권, 각료회의 의장(수상) 및 내각의 임명권, 국군 통수권, 하원이 제출한 법률안 거부권(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3/5 이상 결의로 재가결 가능), 국가 비상시 각료회의 소집 및 주재, 사면권 및 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중앙은행 총재 제청권, 국가 위기시 수상의 제청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인 군대 동원과 무력 집행권 등을 헌법상으로 보장받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안보회의(Rada Bezpieczestwa Narodowego)가 있다.

각료회의(Rada Ministrow)는 의장인 수상(Primier), 부의장인 부수상 2인, 각부 장관 15인, 기타 3개 위원회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료회의 의장은 선거후 14일내에 하원에 정부 구성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새로운 수상과 수상이 제청한 내각을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정부를 구성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공표한다.

각료회의는 국가 권력의 최고 집행기관이자 행정기관이다. 국가 내정과 외교업무수행, 해당 지역에서의 정부 대표기관이다. 헌법상의 권한은 법률 집행과 법령제정, 각 정부기관의 활동조정 및 감독, 국가재산관리, 예산안편성 및 집행, 국내외 안전보장 및 공공질서 확보, 외교 및 국제조약 체결, 국가방위, 지방 행정기관 지도 등이다. 지방행정의 수장인 주지사(Wojewoda, 광역자치단체장)는 수상이 임명한다.

<사법부>

사법부는 법원(Sady), 재판소(Trybunaly)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가지며, 재판은 최소 2심제로 진행된다. 법관은 국가사법위원회(Krajowa Rada Sadownictwa)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법원에는 대법원(Sad najwyzsza), 일반법원(Sady powszechne), 행정법원(Sady administracyjne), 군사법원(Sady wojskowe)이 있다.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 행정/노동/사회보장 재판부, 군사 재판부로 구성된다.

일반법원은 기타 다른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사건을 처리한다. 지역법원(Sady rejonowe)과 주법원(Sady wojewódzkie)으로 구성된다. 행정법원 공공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특별재판소(Trybunały)는, 법률과 국제조약 및 국가 중앙기관이 제정한 법규, 정당활동과 목적의 헌법합치여부 심사, 기타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Trybunał konstytucyjny)와, 대통령, 수상, 장관, 중앙은행 총재, 감사원장, 국영언론매체 위원, 군 총사령관, 상하원의원의 활동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감찰재판소(Trybunał stanu)가 있다. 감찰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이 겸직한다.

<의회>

입법부는 상원(Senat)과 하원(Sejm)의 양원제이다. 하원(Sejm)은 460석, 상원은 100석으로 구성된다.

(하원)

헌법상의 지위는 법률을 채택하고 국가행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국가에 관한 최고의 결정, 모든 국가권력 및 행정기관의 활동 감독이다.

감사원(Najwyższa Izba Kontroli)은 하원의 직속기관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다. 하원에서 제정된 법률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서명후 발효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시 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참석의원 3/5이상의 동의로 재 가결이 가능하다.

재적의원 2/3이상 동의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하원 해산은 자동적으로 상원을 해산한다. 전쟁상태 선포권과 평화조약 체결 결정권이 있다. 하원 소집 불가능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상원)

상원은 하원에 비해 그 권한이 미약하다. 하원의 법률(안) 의결후 30일 이내 수정 및 거부할 권한이 있다. 상원에 의해 수정 또는 거부된 법안은, 하원 재적의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이 재 의결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상원은 하원과 함께 국민회의(Zgromadzenie Narodowe)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회의 의원 140명 이상의 제청과 국민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대통령 권한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

24. 정치제도

<폴란드의 정치제도>

1. 입법부

가. 하원(Sejm)

- 구성: 총 460석
 - 41개 선거구에서 직선 선출, 비례대표는 없음
- 임기: 4년
- 헌법상 권한
 - 예산권: 예산 심의권 및 확정권
 - 대정부 질의권
 - 전쟁상태 결정권: 폴란드에 대한 외국침략 및 국제조약상의 의무에 의한 전쟁상태 결정권한
 - 총리 및 내각 인준권
- 해산
 - 하원의원 과반수 출석하에 $\frac{2}{3}$ 다수결로 해산 결의
 - 대통령이 상.하원 의장과 협의후 하원을 해산

<해산 요건>

- . 3개월 이상 내각 구성의 승인 지연 또는 예산 동의를 지체할 경우
- .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킬 때
- 하원 해산시 상원은 자동적으로 동시 해산됨.

나. 상원(SENATE)

- 구성: 총 100석
 - 1989.4.7 헌법개정에 따라 상원 신설
 - 40개 선거구에서 직선을 통해 선출
- 임기: 4년
- 권한
 - 하원이 의결한 국가 사회, 경제계획안, 예산법, 재정계획에 심의
 - . 상원에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원에 입장 제시
 - 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2. 대통령

- 헌법상 지위:
 - 국내.외 관계에서 국가의 최고 대표자로서 헌법수호 및 주권, 국가안보, 영토보전의 의무
- 선출
 - 직접.평등.보통.비밀 선거로 국민이 직선, 피선거권은 35세 이상의 유권자
- 임기 : 5년(1회 연임 가능)
- 권한
 - 의회 해산권, 법률안 거부권(하원은 2/3 다수결로 재 가결 가능)
 - 대사 임명 및 소환권, 외국사절의 접수 및 추방
 - 국군 통수권(군총 사령관 겸직), 국방위원회 의장으로서 동 위원회 회의 주재
 - 각료 회의 의장(총리) 및 국립은행 총재의 임면 제청권
 - 훈장. 휘장. 명예 칭호 수여권
 - 사면권, 조약 비준 및 폐기권, 전쟁상태 선포권, 비상 사태 선포권 등

3. 행정부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 구성
 - 총리, 각부 장관, 각급 위원회 위원장
- 헌법상 지위: 국가권력의 최고 집행 및 행정기관
 -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하원에 임명 동의를 제청하고, 의회 인준후 대통령이 임명
 - 각부 장관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의회 인준후 대통령이 임명
- 권한
 - 부처간 활동 조정, 예산안 하원 제출, 연간 사회.경제 계획 결정, 법률 집행,
 - 국가 사회.경제계획 및 예산집행 감독, 공공질서, 국가 이익, 시민권리 수호,
 - 외교업무 수행, 국방업무 수행, 지방행정기관 지도 등

4. 사법부

가. 구성

- 대법원(THE SUPREME COURT):
 - 형사재판부(The Penal Chamber)
 - 민사재판부(The Civil Chamber)
 - 행정재판부(The Administration Chamber)
 - 노동사회보장재판부(Labour and Social Insurance Chamber)
 - 군사재판부(The Military Chamber) 등

○ 최고행정법원(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 일반법원(Common Court)

- 주 법원(Voivodeship Court)
- 지방법원(District Court)

○ 특별법원(Special Court)

나. 임명

○ 법관: 국가사법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he Judiciary)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장(The First 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

- 대법관중에서 대통령의 제청으로 하원에서 임명
-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

5. 정당 및 정치단체

가. 민주좌파연합 (SLD: Democratic Left Alliance)

○ 구 공산당인 사회민주당 (S d R P)과 국가노동연합당, 녹색당 등 좌파 성향의 정당 및 단체 들의 연맹체로 91년 발족한 후, 99년 단일 정당으로 탈바꿈 (당수: Krzysztof Janik)

나. 시민플랫폼 (PO: Civic Platform)

○ 자유노조운동 계통의 UW와 AWS의 일부 소장 개혁파들이 합세하여 탄생한 정치단체로서 2001년 총선 이후 단일 정당으로 발족 (당수: Jan Rokita)

다. 자위(自衛)당 (Samoobrona: Self-Defence)

○ 농민층에 지지기반을 둔 극우 민족주의적 성격의 당 (당수: Andrzej Lepper)

라. 농민당 (PSL: Polish Peasants' Party)

○ 과거 공산당의 괴뢰정당인 농민당에 뿌리를 둔 당으로 농민의 권익보호 표방 (당수: Janusz Wojciechowski)

마. 노동당 (UP: Labor Union)

○ Labor Solidarity를 흡수하여 92. 6월 창당함 (당수: Andrzej Aumiller)

바. 법과정의당 (PiS : Law & Justice Party)

○ 자유노조 운동에 뿌리를 둔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과거 중도연합 (PC)이 합세하여 2001년 총선 직전에 출범 (당수 Jaroslaw Kaczynski)

사. 폴란드가족연맹(LPR: Polish Family League)

○ 민족주의 성격의 정당 (당수: Roman Giertych)

아. 폴란드사회민주당(SDPL: Polish Social Democracy)

○ 2004년에 33명의 의원 주도로 여당인 SLD를 탈당, 신설된 정당 (당수: Marek Borowski)

25. 정치사회동향/최근 폴란드 정치사회동향

<폴란드의 정치사회동향>

1) 폴란드의 정치체제

대통령과 총리가 있으며, 양자 모두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이원집정부제이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상원 100명, 하원 46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 대통령: Aleksander Kwasniewski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 직선제로 선출, 5년 임기, 2회 연임 가능
- 주요 권한: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총리 및 외무장관과 협의), 군의 수장역할(국방장관을 통해 권한 행사), 사면권, 총리 임명권 등

○ 총리: Marek Belka (마렉 벨카)

- 대통령이 지명 후 하원 승인
- 주요 권한: 행정부 지휘 및 대내외 정책 수행, 법률이행, 예산안 작성과 집행, 외교·국방 정책 수행, 국제조약 체결, 실제적 각료 임명권 (형식적 임명은 대통령 수행)

2) 폴란드 정치구조의 변화

○ 원탁회의에 의한 공산독재 종식 불구 구 공산세력 잔존

- 폴란드의 경우 여타 중동구 국가와는 달리 89년 원탁회의에 의한 타협으로 혁명적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정권이양 방식으로 공산독재가 무너져 공산당에 대한 과거청산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
- 따라서, 구 공산세력은 89년 체제변혁 이후에도 폴란드 정치에서 주도적인 좌파 세력의 하나로 잔존

○ 구 공산 좌파세력의 쇠퇴

- 2001. 9월 총선에서 자유노조 세력인 AWS(Solidarity Election Action) 및 UW(Freedom Union)가 원내 진출에 실패한 이후 구 공산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좌파세력이 좌파연합(SLD)으로 집권

- 그러나, 최근 SLD의 지지율이 7% 떨어짐으로써 80년 자유노조 결성 이래 폴란드 정계를 양분하던 공산-비공산 세력구조가 종언을 고하는 전기가 됨

○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 2005년 총선 및 대선 이후에는 과거 80년대 공산주의 시대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형태의 좌.우파 정치세력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 Technocrats를 자처하는 중도파 PO(Civic Platform)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우파 PiS(Law & Justice) 등의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
- 집권 SLD 내부에서도 소장세력들이 탈당하여 SdPI(Social Democratic Party)을 창당(04.3.27) 하는 등 구 공산세력과의 결별 시도 중
- 또, 하우스너 경제 부총리와 과거 자유노조에 뿌리를 둔 자유연맹(UW)이 연계하여 새로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PD)을 창당(05.3)

3) 2005년도 총선/대선 준비 동향 및 전망

○ 집권 민주좌파연합(SLD)의 지지율 급락

- 2001.9월 총선에서 41%의 득표율로 집권한 SLD는 고실업률, 각종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2005. 초반 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총선 준비 동향

- 밀러 총리 사임 후 야권의 강력한 조기총선 주장을 집권 SLD와 대통령이 수용하여 조기총선 시까지 우선 과도기적 벨카(BeIka) 정부가 출범 (04.6)
- 벨카 정부는 05.6월 조기총선을 약속하는 한편, 큰 무리 없는 국정 운영으로 04.10월 재신임을 획득하여 정국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벨카 정부의 안정된 국정 운영에 따라 조기총선을 추구하였던 SLD는 05.1월 전당대회를 통해 조기 총선없이 올 9월까지 의회 임기를 마치기로 결정함으로써 가을 총선이 유력시되었으나, 중도 및 우파들이 조기총선을 강력 주장하고 나서 6월 조기총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 대선 준비 동향

- 1995년부터 10년 재임기간 (2000년 재선) 내내 6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 왔던 크바시니 에프스키 대통령 이후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부인 올란타 여사가 23%의 지지율로 1위, 언론인 토마슈 리스 (Tomasz Lis)가 15%로 2위이나, 이들은 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정치인 중에서는 의사 출신 렐리가(ReIiga) 상원의원이 13% 지지율로 선두이며, 이외 투스크(Tusk) 하원부의장(PO 소속), 카친스키(Kaczynski) 바르샤바 시장(PiS 소속) 등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됨

○ 전망

2005년 총선에서는 중도 또는 우파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주창하는 중도성향의 시민연단(PO)과 엄격한 법실행으로 부정부패와 범죄퇴치를 주창하는 우파 법정의당(PiS)이 각각 23%, 1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총선 이후 이들 두 정당에 의한 연립정부 수립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5.6)

26. 국가원수

- 직 위 : 대통령
- 성 명 :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Mr. Aleksander Kwasniewski)
- 취임일 : 1995. 12. 23
- 재선일 : 2000. 12. 23
- 임 기 : 5년
- 약 력
 - 생년월일 : 1954. 11. 15
 - 학 력 : GDANSK 대학교 경제학과(석사)
 - 가족사항 : 1녀
 - 주요경력
 - 1979-81 : ZSP GOVERNING BOARD AND CHIEF COUNCIL 위원
 - 1981-84 : "ETC"지 편집장
 - 1984-85 : "BANNER OF YOUTH"지 편집장
 - 1985-87 : 청소년부 장관
 - 1987-90 : 청소년 및 체육위원회 위원장
 - 1988-89 : 정치.사회 각료회의 위원장
 - 1988-91 : 폴란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1991-95 : 하원 의원
 - 1995. 12. 23 : 대통령 취임
 - 2000. 10. 8 : 재선에 성공
- 방한경력
 - 1995. 5 : 한폴친선협회장 자격으로 방문
 - 2002. 5-6 : 월드컵 2002 참관차 방한 (폴란드: 한국 2002. 6. 4, 부산)

27. 주요인사

< 폴란드의 내각 명단 >

Prime Minister 총리 MAREK BELKA (소속당: SLD)

부처명 (영문)	장관 성명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DAM DANIEL ROTFELD
국고부 (Ministry of the Treasury)	JACEK SOCHA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WALDEMAR DĄBROWSKI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and Administration)	RYSZARD KALISZ
과학/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tific Research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CHAŁ KLEIBER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RZEJ KALWAS
교육/체육부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nd Sport)	MIROSLAW SAWICKI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MIROSLAW GRONICKI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AREK BALICKI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ERZY SZMAJDZIŃSKI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TOMASZ PODGAJNIAK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JOZEF JERZY PILARCZYK
경제노동사회정책부 (Ministry of Economy, Labour and Social Policy)	JACEK PIECHOTA
기반산업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KRZYSZTOF OPAWSKI

자료원: 관련 사이트 www.kprm.gov.pl (2005. 6월 현재)

28. 행정구역

<지방자치제도>

2005. 6월 현재 폴란드의 지방자치 단체는 16개 Voivodship(한국의 광역자치단체), 380개 Powiat, 2,489개 Gmina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는 49개 Voivodship과 2,394개 Gmina로 구성되었다. Gmina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종류에 따라 Rural Gmina, Urban Gmina, City가 있으며, 독립된 재정을 갖고 해당지역의 기초사업을 추진한다. Gmina의 장은 임기 4년이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Rada Gminna(Council of Gmina)에서 선출된다. Gmina장의 명칭은 Voigt(Rural Gmina), Mayor(Urban Gmina), President(City) 등 Gmina 종류에 따라 다르다.

Powiat는 중급자치단체로서, 몇 개의 Gmina가 모인 2단계의 지자체로서 373개가 있다. Powiat의 장은 임기가 4년으로서 Starosta라고 불리우며, 21-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Voivodship은 광역자치단체로서 16개가 있다. Voivodship의 장(Wojewoda)은 임기 4년으로서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주의회인 Sejmik(Little Parliament, 직선제)에서 선출된 집행위원회(위원장인 주의회 의장이 겸임)는 중앙정부의대표인 Wojewoda와 협의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Voivodship 현황

Voivodship	면적(km²)	인구(천)	수도(인구/천)	주요 산업
Dolnoslaskie	19,946	2,893	Wroclaw(636)	광업(구리), 유리/세라믹, 기계, 화학
Kujawsko	7,969	2,068	Bydgoszcz(387)	광산, 식·음료, 직물, 목재
Lubelskie	25,155	2,185	Lublin(356)	농업, 석탄, 자동차, 비료, 헬리콥터
Lubuskie Gorzow	13,984	1,009	Wielkopolski(130)	양조, 직물, 목재, 식·음료, 축산
Lodzkie	18,002	2,587	Lodz(774)	직물, 봉제, 식품, 화학, 기계
Opolskie	9,412	1,051	Opole(130)	에너지, 화학, 식품, 건축자재
Podkarpackie	17,926	2,097	Rzeszow(162)	농축산, 양조, 기계
Slaskie	12,294	4,700	Katowice(346)	광업
Wielkopolskie	29,825	3,365	Poznan(570)	박람회개최, 기계, 선박엔진제작
Zachodniopomorie	22,900	1,694	Szczecin(485)	조선, 조선서비스, 화학, 운송, 어업
Podlaskie	20,180	1,202	Bialystok(286)	조명, 식품, 농업
Warminsko	24,203	1,428	Olsztyn(170)	식품, 농축산, 양조, 가구
Swietokrzyskie	11,672	1,288	Kielce(220)	화학, 건축, 시멘트, 가구, 자동차, 무기
Pomorskie	18,298	2,194	Gdansk(461)	조선, 선박서비스, 정유, 운송, 어업
Mazowieckie	357,000	5,145	Warszawa(1,692)	금융, 행정서비스
Malopolskie	15,144	3,260	Krakow(757)	금속가공, 광산, 화학, 가구, 신발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2004 (Statistical Information Centre)

29. 대외관계

<외교노선>

1989년 이후 폴란드는 공산주의 붕괴로 대소(蘇)종속외교에서 독립하여 자주외교로 전환하면서 외교 노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유럽과의 협력 필요하게 된 것이다. 소련붕괴로 탄생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리투아니아로 인해서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멀어졌다. 독일 통합으로 인해 서유럽으로 근접했고, 폴란드 인근국이 7개로 늘어나 새로운 외교관계 설립이 요구되었다.

폴란드 외교의 3대 목표는 주권보전, 안보확보, 경제 문화발전이다. 1989년이후 폴란드 외교의 최대 목표는 서구와의 관계 발전이다. 특히 서구의 리더인미국, 최대 경제파트너인 독일과의 협력 증진이 새로운 정치 경제체제의 구축에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EU가입이 외교 최대 현안이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COMECON 해체 이후 기존 대서방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모든서방국가와 활발한 무역 및 산업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방선진국 대열로 접어드는 유일한 길이 EU 가입밖에 없다는 인식이었다. '94.2.1부로 EU와의 제휴 협정 발효로 EU 가입에 진일보, '98.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 협상을해왔다.

NATO 가입은 '97년 7월 마드리드 NATO 특별정상회담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추가 회원국으로 초청하였고, 구체적인 가입 선행조건 협의 시작하여 '99년 4월 나토 창설 50주년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3개국의 가입이 최종 확정되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성 인식에 따라 친미,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부유럽에서의 북-남 축 인접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틱 국가 위원회, '비셰그라드' 협력 체제,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등 구 소련연방 국가와 선린우호관계도 추구하고 있다. 폴란드 상품시장, 자원확보, 안보 등의 차원에서 동쪽 인근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과 긴밀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EU) '92.3월 대EC 무역분야 준회원국 협정발효로 EU시장 진출에 따른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94.2월부터는 EU 준회원국 협정이 포괄적으로 발효됨으로써 EU 경제권과의 연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경제 시스템의 EU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 준회원국 협정(EU ASSOCIATION AGREEMENT)

- 체결일자 : '91.12.16
- 발효일자 : '94.2.1 (EU 12개 회원국 비준종료 후 발효개시)
- 협정기간 : 향후 10년간
- 협정개요 : 시스템과 법규를 EU 수준에 맞추기 위한 공동과제 수행

'92년의 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무역자유화 확대에 이어, 기타 자본, 서비스, 인력 분야의 상호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왔다. 단, 폴란드와 EU간의 경제적, 기술적 수준 차이 및 EU 내부적 요인 등을 감안, 부문별로 예외적인 조항을 설정, 단계적으로 개방이 진전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준회원국 협정 중 교역분야

- 발효일자 : 92.3.1
- 발효형태 : 임시협정(Interim Agreement) 성격이어서, 의회 비준이 필요 없었던 관계로 조기 발효
- 주요 내용
 - . 관세 완전 철폐: 원자재, 반제품, 투자재, 일부 기계류
 - . 관세인하: 폴란드에서 미생산 또는 생산량이 미흡한 농산품 등 1차산품
 - . 면세 수입쿼터 적용(자동차)
 - '92년부터 매년 30,000대 정도(매년 5% 정도씩 물량 확대), 2002년 EU산 자동차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때까지
- '95.1.1일부로, 상기 '93.3.1일의 관세 철폐 이외 품목에 대해 95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0%씩 관세 인하, 2000년에는 완전 철폐(일부 예외)

★ EU가입

2002.12.13의 EU 정상회담 결정에 따라, 폴란드 등 10개국이 신규회원국으로 2004.5.1. 가입

(EFTA)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선진시장인 EFTA로의 수출기회 확대는 물론 EU와 EFTA를 중심으로 한 구주경제지역(EEA)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E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체결일자 : '92.12.10
- 발효일자 : '93.11.15
- 실시연도 : 2001년
- 협정 내용
 - . '93.11.15일부터 대 폴란드 수입상품의 약 80% 정도 관세 면제
 - . 20% 잔여품목에 대해서는 '95.1월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축소
 - . 대 폴란드 수입상품에 대해 '93.11.15.부터 수입쿼터 적용 중지(일부 예외)
 - . '95.1월부터 EFTA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면제(자동차 및 트럭 등 제외)

(CEFTA)

중구자유무역협정은 코메콘(Comecon)이라는 사회주의 지역경제 블록체제 와해이후 대서방 교역의존도 급증에 따른 상호무역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말 체결되어 '93.3.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2000년까지 매년 단계적인 관세 감면일정을 수립, 시행하고 2001년부터 자유무역권 창설을 규정해 놓았다.

폴란드 정부는 인근 동구권 수출 확대를 겨냥한 국내 민간 중소기업의 압력으로 CEFTA 협정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CEFTA 가맹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대외경제관계

장관들은 97년 2월4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회동, 2000년까지 8개년의 “단계적인 무역자유화 일정”을 3년 앞 당겨, 1998년1월부터 조기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러한 CEFTA 회원국간 자유무역권 조기창설합의에 따라 '98년도에 인구 6천5백만 명의 거대한 중구시장 출현이 기정 사실화 된 바 있다.

(약사)

91. 2. 15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정상이 VISEGRAD에서 자유무역 지대 창설에 합의
91.10.15	크라코프(Krakov)정상회담에서 역내교역 자유화 가이드라인 채택
91.11.30	경제장관 회의에서 자유무역지대 법안 기초
91.12	전문가 협상 개시
92.12.21	크라코프에서 CEFTA 협정 서명
93. 3. 1	CEFTA 발효(각국의 비준 조건부)
94. 4.29	부다페스트에서 부속 의정서 서명, 관세인하 계획도입
94.11.25	포즈난 정상회담 개최(슬로베니아 참석)
95. 8.17	바르샤바 경제장관회담 개최 (공산품 자유교역 시기 98년을 97년으로 앞당기고 회원국 확대 조항 삽입)

(CEFTA 협정 개요)

체결일자	'92.12.21
협정참여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발효일자	'93.3.1
실시연도	1997년(당초 2001년에서 4년 단축)
공산품을 중심으로 3개 그룹으로 품목을 분류. 단계적인 관세감면 및 시장개방 일정 수립	

(협정내용)

LIST A(주로 원자재 및 반제품)	'95.1월부터 관세 철폐
LIST B(공산품 중 반(半)민감품목; MEDIUM-LEVEL SENSITIVE PRODUCT)	1996.1.1일부터 해당품목 관세 철폐
LIST C(공산품 중 고수준 민감품목; HIGHLEVEL SENSITIVE PRODUCTS)	원칙적으로 전 품목을 대상으로 1997.1월부터 관세 철폐, 자유무역 실시. 단,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는 1998년부터 교역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설정, 2001년까지 관세부과 지속 (자동차, 철강제품, 일부 화학제품 등은 예외)

30. 국가경쟁력/2003년 국가경쟁력

<2003년 국가 경쟁력 (2003년도 종합 순위 : 27)>

<요소별 연도별 순위>

	2000	2001	2002	2003
Economic Performance	18	24	23	27
Government Efficiency	23	26	24	28
Business Efficiency	20	21	24	26
Infrastructure	13	15	21	24

<요소별 세부 항목>

요 소	세부 항목	순 위
Economic Performance	Domestic Economy	28
	International Trade	14
	International Investment	17
	Employment	30
	Price	15
Government Efficiency	Public Finance	22
	Fiscal Policy	27
	Institutional Framework	27
	Business Legislation	27
	Societal Framework	25
Business Efficiency	Productivity	16
	Labor Market	24
	Finance	19
	Management Practices	30
	Attitudes and Values	28
Infrastructure	Basic Infrastructure	15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28
	Scientific Infrastructure	22
	Health and Environment	25
	Education	14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31. 도량형

<도량형>

거리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무게는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

<전기규격>

220 Volt, 50 Hz이다. 전원 소켓(socket)에 어스(earth)용 폴(pole)이 돌출되어 있다.

한국산 전기/ 전자 제품을 폴란드에서 사용코자 하는 경우, ‘어스’ 용 ‘폴’ 이 돌출된 소켓에도 사용 가능한 전원 플러그(Plug)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폴란드에서는 전류가 50 Hz이므로, 50 Hz/ 60 Hz 겸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32. 관공서 관행

<관공서 관행>

공산주의 체제 및 슬라브적인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한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관공서의 민원 서비스 수준과 전산화 정도가 낮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1989년의 체제 전환 이후 15년이 경과하였고, 2004년5월1일의 EU가입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정착이 가속화되어,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탈피되었다.

한편 업무처리에 대체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책임 회피 관행이 아직 불식되지 않아 완벽한 서류 제출과 보완을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으로 업무를 끝내기가 어렵다.

관공서에 방문할 때에는 소액의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는 경우,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융통성 있는 업무 처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외국인으로서 관공서를 방문할 때에는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33.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규모가 작지만 주요 도시인 바르샤바(Warszawa, OKECIE 공항), 그단스크(Gdnask), 브로프와프(Wroclaw), 포즈난(Poznan), 카토비체(Katowice), 슈체찐(Szczecin), 뢰쉬브(Rzeszow) 등에 있다.

바르샤바 국제공항은 현재 확장 공사 중이며 신청사는 국제선, 구청사는 국내선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제항구>

국제항구는 발틱해 연안인 폴란드 북부에 있다. 주요항구는 그단스크(Gdansk), 슈체찐(Szczecin), 그디니아(Gdynia), 스비노우이스체(Swinoujscie), 코워브웨그(Kolobrzeg) 등이다.

34. 매스미디어

<인쇄매체>

Gazeta Wyborcza(발간부수: 465천부): 폴란드 최대의 종합 일간지이다. 남녀노소, 학력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독자이다.

Rzeczpospolita(발간부수: 270천부): 여론을 주도하는 유력지이다. 지식층 또는 고학력층에서 많이 구독하며 정치 및 경제 분석 기사의 비중이 높다.

Prawo i Gospodarka(발간부수 40천부): 경제전문 일간지이다.

Wprost: 정치 관련 주간지로서 정치인 및 지식인들이 구독층이다.

Polityka(발간부수: 320천부): 정치 기사에 비중을 지식인 대상의 주간지이다.

Zycie Gospodarcze: 경제전문가 및 비즈니스맨들 위한 경제 전문 잡지이다.

<방송>

(라디오)

제 1라디오 프로그램: 국영방송이다. 고전 및 현대 음악 등이 방송되며 뉴스 이외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RMF FM: 상업 방송이며 팝송을 중심으로 방송한다.

Radio Zet: 상업 방송이며 음악과 매30분마다 뉴스를 비롯한 정보가 방송된다.

(TV)

TVP 1채널: 가장 오래된 국영 TV 방송이다. 영화, 교육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TVP 2채널: 국영 TV 방송으로서 가족 오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시리즈, 문화 프로그램 등이 대부분이다.

POLSAT: 광고가 있는 상업방송으로서 각종 쇼 프로그램, 영화 등이 방송된다.

TVN: 광고가 있는 상업방송으로서 각종 외화시리즈, 쇼 프로그램 등이 방송된다.

Polska Agencja Prasowa: 일명 PAP라고 불리우며 폴란드에서 최대이며 가장 많이 알려진 국영통신사이다.

35. 현지화제 유머속담/속담

현지의 잘 알려진 속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Bez pracy nie ma kolaczy (**No work, no bread**):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 Oszczednoscia i praca ludzie sie bogacza (**One grows rich through saving and working**):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
- Zadna praca nie hanbi (**There are no dishonorable jobs**): 직업에 귀천은 없다
- Prawdziwych przyjaciol poznaje sie w biedzie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 Zgoda buduje, niezgoda rujnuje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Kto sieje ten zbiera (**The one who sows will reap**): 씨 뿌리는 사람이 거둔다
- Jeden tylko orzel pod słońce wznieśc sie może (**Only an eagle can soar close to the sun**): 독수리 만이 태양 가까이 날아 오른다
- Dla chłacego nie ma nic trudnego (**An eager man finds nothing difficult**):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없다
- Nie odkładaj na jutro, co możesz zrobić dzisiaj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 Wiara góry przenosi (**Faith will move mountains**): 깊은 신념은 산도 옮긴다
- Gdzie kucharek szesć, tam nie ma co jeść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Apetyt rośnie w miarę jedzenia (**The appetite increases with the meal**): 건물생심
- Biednemu zawsze wiatr w oczy (**It never rains, but it pours**): 비가 왔다 하면, 크게 온다
- Pezd bitwa nie trab wygranej (**Don't blow your horn before the battle**): 전투하기 전에 나팔 불지 말라 (경거망동 하지 마라)
- Człowiek uczy się na błędach (**A man learns by mistakes**):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
- Wszystko w reku Boga (**All's in God's hands**):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달려있다
- Cel uswieca środki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 Nie chwal dnia przed zachodem słońca (**Don't praise the day before sunset**): 해지기 전까지 그 날을 좋다고 하지마라
- Człowiek jest kowalem własnego losu (**Man is the blacksmith of his own fortune**): 사람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 Bog pomaga tym, co sobie pomagają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 Bog nierychliwy, ale sprawiedliwy (God does not act swiftly, but he acts justly): 신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정당하다
 - Kto rano wstaje, temu Pan Bog daje (Those who rise early, receive from God/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 Gdzie diabel nie moze, tam babe posle (Where the devil cannot succeed, there he will send a woman): 악마는 성공하지 못하는 곳에 여자를 보낼 것이다
 - My rzadzimy swiatem, a nami kobiety (We govern the world, but women govern us):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나, 여자는 우리를 지배한다
 - Gosc w dom, Bog w dom (A guest in your house- God in your house): 손님을 정성껏 대하라
-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2005. 6)

36. 물가정보

< 도시명: 폴란드-바르샤바 > 2005.6월 현재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게	10.28	1인분
	햄버거	1.61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62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 임차료	2,377.89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 임차료	1,285.35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3,024.00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25,706.94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66	1구간
	택시요금	1.54	기본요금
	택시요금	0.51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09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0.51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59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25.71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1,542.42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11,128.0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48.84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5.39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16.71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200.51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102.00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385.60	초임, 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772.49	대졸, 초임

* 주: 1USD= PLN 4 적용

37. 경제발전사

<체제전환 후 경제발전 일반사항>

2차 대전 이후 폴란드가 직면한 경제문제는 북서부를 부흥시키고 토지개혁을 완료하며,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새로 획득한 서부지역의 생산력은 전쟁 전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락한 상태였다.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산당 정부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6개년계획 (1950-1956)을 수립하였으며 목표는 사회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경제건설과 공업화였다.

1952년 폴란드의 신 헌법이 채택되고 최고 권력기구인 의회(Sejm)가 구성되었고, 1953년 스탈린이 사망 후 폴란드에서는 고물가가 당 제1서기로 재집권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농업 집단화 폐지 등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0년 후반부터 다시금 통제경제체제로 복귀되고 실질임금 또한 저하되어 70년 12월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발생할 때까지 사회적 불만은 누증되어 갔다.

폴란드는 2차 대전 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함에 따라 국토, 자원면에서 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이 침체되어 왔던 것이다.

70년 12월 실질임금 하락에 항의하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 발생 이후, 70년대 전반부터 폴란드 정부는 막대한 외자도입 및 중공업 투자로 선진국으로의 급속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내경제 재건에 주력하였다.

외국의 기술 및 기자재 도입으로 출발한 폴란드의 중공업 부문 육성정책은 지속적인 서방물자의 수입을 불가피하게 하여 외채 부담의 가중 및 소비재 산업의 쇠퇴를 야기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 세계 에너지 파동 여파 등으로 외자도입을 통한 중공업 개발 정책은 1970년대 후반 들어 극심한 소비재 부족 상황과 함께 약 400억불에 달하는 외채만 남긴 채 실패했다. 특히, 79년부터 4년간 국민소득이 25% 정도 격감하는 등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농업은 85%가 자영농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투자부족 및 가격체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생산성은 극히 저조했다.

1980년 계엄령 선포 등의 강압정책은 서방의 경제제재를 불러 일으켜 폴란드 경제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0여년에 걸친 불황, 공급 부족, 이에 따른 超인플레이션 등으로 80년대말은 경제의 전반적인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었다.

89년 9월 마조비에츠키 총리 주도의 비공산 정부 수립후 경제개혁의 책임을 맡았던 재무장관인 Balcerowicz는 "Shock Therapy"라고 불리는 급진적인 경제안정화 조치 및 구조개혁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안정화 정책 기조 위에 경제의 체계적, 구조적 개혁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정책 추진
- 총수요 억제정책 실시
- 초긴축재정 및 금융정책
-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로 국제수지 개선
- 가격통제 해제
-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도입
- 보조금 지급 축소로 재정적자 축소

Balcerowicz의 "Shock Therapy" 시행 결과 인플레이 진정, 재정 및 무역흑자 유지, 통화의 태환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90년중 국민총생산의 12% 감소, 산업생산 23% 하락, 실업자수 112만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가 침체되고 개인소득이 감소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이 심화되었다.

1989년 신 정부 출범 이후,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함에 따라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 경제구조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폴란드 경제는 92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90년부터 국유 부문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유 상점 등의 소규모 민영화는 90-91년에 걸쳐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국영기업, 특히 생산부문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여 예상보다 진척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설비 노후 및 불량 채무, 부실 재무구조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은 기존 이익의 침해를 우려하는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민영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91년에는 산업생산저하, 실업증가, 물가 양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 여파로 재고과잉, 판매부진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으나 93년부터 98년의 러시아 경제위기 이전까지 대인근국(독일, 구소련) 국경무역의 활성화,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산업생산 증가 및 국내경기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산업구조 개선, 대외경쟁력 강화 등의 요인이 아닌 국내 소비증가, 국경무역 수요증대 등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호조 현상이란 부정적인 견해도 제시되었다.

주요 서방 채권국들은 70년대부터 누적된 폴란드 외채를 크게 탕감하고 폴란드 경제체제 전환에 필요한 환율 안정기금 지원, 대 폴란드 투자신용자금 조성, 경영 및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여 왔는데 91년 3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파리 클럽(정부 지불보증 차관)으로부터 335억불의 채무 중 10%를 탕감 받는 외에 미국 등과 개별적으로 다시 10%를 탕감 받기도 했다.

부가세는 93년 7월 도입되었으나 제한적으로 적용(연간 매출액 80,000Pln 이상 업체 적용 의무화)하였고 부가세 도입 전에 대규모 조기 수입 성행으로 인근 동구국가와 같은 급격한 물가인상은 발생치 않았다.

<최근 경제 현황>

폴란드는 94-97년까지 4년간 연평균 6%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실현하였으나, 98년 이후 전반적인 세계 및 유럽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2001년 1%, 2002년 1.3%) 되고, 높은 실업률(18% 대), 재정적자(GDP의 5% 선) 등 경제침체 상황이 지속되었다.

2003년부터 폴란드 경제는 상승세로 전환되어 성장률은 3.7%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도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10여년의 준비 끝에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는데 EU 가입에 따른 법규 및 관행의 선진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EU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앞으로 폴란드 경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EU 회원국 폴란드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경제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재정개혁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일차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20% 가까운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사회적인 고민거리이며, 특히 젊은 층에게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호경기 속에서도 폴란드 동부지역의 개발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지역편차가 심하다.

2005년 폴란드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4.5% - 5% 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38. 경제정책

경제정책의 기초

최근 OECD에 가입한 5개국 중 폴란드만이 경제위기를 맞지 않았던 것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한 안정 속의 개혁 정책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경제 안정화 저해 요소의 제거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세금 인상 없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의 축소가 기본 방침이나 99년에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석탄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98년에는 없었던 정부지출 예산을 배정하여 누증하고 있는 손실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적자의 축소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채무불능사태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자율 하향조정의 여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개편과 외부 경제 환경의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최선이라는 판단하여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자신감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주위티화의 월간 절하폭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 지도로 관리되는 천연가스, 의약품, 철도, 버스, 산업용 석탄, 전기 등의 요금 인상을 허용하고, 전기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자유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조세체제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허가 사항을 완화 또는 제거할 예정이다.

<2004년 5월 출범 폴란드 신 내각이 직면한 5대 주요정책 현안>

2004년 5월2일 경질된 Leszek Miller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마렉 벨카 (Marek Belka)는 신임 총리가 풀어야 할 난제로서 의료서비스 개혁, EU헌법 협상 완결, 경제부장관 Jerzy Hausner의 긴축재정(austerity) 정책 이행, 국유기업의 관리 및 민영화, EU가입 첫해의 폴란드 역할 등 5대 주요 현안을 거론했다.

Belka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몇몇 문제는 시급히 착수되어야 한다면, 의회에 신임 정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밀월 기간'을 요청했다. 특히 의회가 도전에 대해 과감히 맞설 것이며, 협의를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면 신임 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Belka는 조기 총선은 자신이 설정한 과업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05년 여름을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사건을 전제로 언급했다.

자료원: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39. 경제정책/EU 가입에 따른 통상정책의 변화

EU 가입에 따른 통상정책의 변화

EU의 공동통상정책 적용

2004년 5월 1일 폴란드 등 10개국의 EU 가입과 동시에 EU와 신규 회원국간(폴란드) 관세동맹이 발효되었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서 회원국간 무관세는 물론 대외무역에서 공동통상정책과 공동수입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EU 가입으로 폴란드에는 EU의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이 적용되며, EU의 특혜무역협정(GSP, FTA 등)과 무역규제조치가 폴란드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와 제3국과의 무역협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EU가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시행중인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수입 규제조치가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공동역외관세 적용

폴란드 자체의 관세율도 없어지며, 이제 EU의 공동역외관세(CET)가 적용된다. 5월 1일 이전 폴란드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9.9% 였으나, EU 가입으로 평균 관세율은 EU의 3.6%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EU와 폴란드의 관세율 수준 비교 (2004. 5. 1일 이전)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전품목평균
폴란드	33.8	18.5	9.9	15.1
EU공동관세율	16.2	12.4	3.6	6.3

자료원 : EU 집행위, Market Access Database

EU 가입에 따른 폴란드의 주요 품목별 관세 인상/인하 내역

인하품목	인상품목	변동 없음
TV부품 9%→0 자동차부품 15% → 3.5% 휴대전화기 9%→0 합성직물 9%→8% 소형승용차 35%→10% 화물차 35%→10% 선박엔진 10%→0	없음	기억장치 0→0 입출력장치 0→0

3. 기타 사항

폴란드의 공산품 안전기준이 EU의 강제규격 인증제도인 CE 마크로 통일되며, 기타 환경기준 등 각종 기준이 EU의 체계로 통일된다.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40. 금융통화제도

<중앙은행>

새로운 금융환경과 EU 가입에 대비하여 폴란드는 지난 97년 은행법을 개정했다. 폴란드의 은행은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Poland/NBP)과 상업은행(Commercial Bank)으로 나뉘어진다.

'90년 초 경제안정화정책이라는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도입한 이래 중앙은행(NBP)의 역할이 중요해 졌으며, NBP는 엄격한 통화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최대의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이다. 인플레이션 안정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업무는 은행의 관리 및 감독, 대외자산 및 부채 관리, 환율결정, 외환계정개설 등이다.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uncil)의 장을 겸하는데 통화정책위원회는 지준율 결정 등의 통화정책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주 업무로 한다.

은행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Banking Supervision)는 중앙은행의 총재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은행업 허가, 감사 등을 통해 은행들을 관리, 감독한다.

<은행제도>

폴란드의 상업 금융기관은 소규모 자본금, 전국적인 점포망 부재, 소규모의 다수금융기관 수, 낙후된 전산시스템 때문에 금융분야의 합병 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참여주체는 국책은행, 보험회사, 외국 금융기관이다. 금융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은행간만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간에도 일반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폴란드 전국을 커버하는 Universal Bank가 없는 형편이며 점포 수 1위인 PKO BP도 비록 전국에 걸쳐 점포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Cash-Desk만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 폴란드 10대 은행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Pekao, Bank Handlowy, BPH-PBK, PKO BP, Kredyt Bank, BRE Bank, ING BSK, BZ WBK, BANK Millennium, BGZ 등이다.

97년의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들의 전자결제도 허용하였는데 현재 금융결제원(National Clearing House/KIR)의 ELIXIR 시스템을 통해 전자 결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은 외환취급면허증을 갖고 있으며 Reuter, Swift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 외환업무를 취급한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수표 사용은 매우 작다. 특히 국제거래시의 수표 사용은 현재로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외화 여수신이 가능하며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가 주로 통용된다. 여신의 경우 단기가 대부분이며 여신 금액과 이자율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대부를 신청하는 고객은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제도>

90년 이전 폴란드에는 국내 보험업무의 Panstwowy Zaklad Ubezpieczen(PZU)와, 국제 재보험업무의 Warta 등 2개의 국영 보험회사만 있었으나 90년 중반 보험법에 의해 과점시장 체제는 종료되었다.

폴란드 보험법은 자동차 보험, 화재 및 재난 보험, 농민 보험 이외에 대해서만 보험 조건에 대한 제약을 둔다. 기타 보험의 경우, 폴란드 법과 폴란드 정부가 인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이 없는 한 별도의 제약은 없다.

95년의 보험법 개정이후, 보험감독원(The State Supervisory Body for Insurance Activities), Insurance Guarantee Fund, Office of Spokesman for the Insured and the Polish Insurance Chamber) 등의 4개 기관(또는 기금)의 설치를 통해 보험가입자 보호 장치가 도입되었다.

재무부가 보험업 허가를 관장하며 한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다. 폴란드 보험법은 EU 회원국들의 보험법과 큰 차이는 없고 외국인 회사의 폴란드 보험업 진출에 대한 장벽도 없다. 보험시장은 96년 설립된 State Supervisory Office of Insurance Supervision (PUNU)에 의해 관리 감독된다. PUNU는 보험 중개업체의 면허 발급 권한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자본시장제도>

증권시장의 관리 감독은 Securities and Stock Exchange Commission이 한다. 증권 거래, 금융중개업 승인, 투자가 보호를 위한 감시가 주 업무이다.

바르샤바 증권 시장인 Warsaw Stock Exchange(WSE)는 금융중개업체와 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Joint Stock 회사이다. 이곳에서 총 200개의 회사에 대한 증권 및 채권이 거래된다. 200개사는 일반 개인회사, 민영화 과정의 국영기업, 외국인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거래는 중개업체가 관리하는 장부상의 거래이다. 증권은 주문 거래에 의하며 1주당 하나의 가격이 적용된다. 주식 가격의 변동 제한 폭은 연2회의 개장 기간 중 주식 가격의 10%이다. 매수 주문 물량이 매도 주문 물량 보다 5배 많을 경우 거래가 정지된다. 일주일에 5일 개장한다.

Securities and Stock Exchange Commission이 승인한 거래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업의 Prospectus(공모시의 매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Prospectus의 양식과 항목은 서유럽의 것과 유사하다.

투자자가 신규 주식 취득으로 이사회 의결권의 5% 또는 10% 지분을 갖거나, 이들의 주식 처분 시 의결권이 5% 또는 10% 이하로 변동될 때에는 변동 사실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Securities and Stock Exchange Commission,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Office, 관련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의결권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보유 주식의 2% 이상 변동될 때마다 이들 3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폴란드의 증권시장은 서유럽과 유사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아 외부 변수에 따른 주가 변동이 큰 편이다.

자료원 : BOSS BUSINESS NEW (2005.6) 등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41.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폴란드의 산업생산 동향>

2004년 5월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후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2005. 5. 3)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5년 3월 폴란드의 산업생산(industrial output)은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2년 8월 이후 처음이며, 3월 수치는 2002년 5월 이래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이다.

그러나, 경제분석가들은 산업생산의 감소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폴란드가 EU에 가입하기 2개월전부터 소비자들이 가입 후 가격 급등을 우려하여 건축자재, 자동차 및 소비재 등을 대량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금년 3월의 산업생산 부진은 지난해 증가율이 크게 높았던데 따른 반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월 제조업 생산은 4.4% 감소했는데 2004년 3월의 경우 27.6%의 경이적인 증가를 보인 바 있다. 제조업 생산 감소는 또한 금년의 경우 3월에 부활절 휴일이 있었던데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계, 가전 및 통신 부문은 생산이 증가하였다. 3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4% 증가했고, 기계류 생산은 6.9%, 그리고 라디오, TV 및 통신기기 생산은 4.4% 신장되었다. 반면, 非금속 제품(시멘트 포함), 금속 부문은 각각 27%, 19%가 하락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3월중 광업/채굴 생산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분기 전체로 보면, 산업생산은 0.7% 증가에 그치고 있다. 다만, 그간 부진이 지속 되었던 건설 부문의 매출은 5.7% 증가하여 이채롭다. 산업생산의 둔화와 함께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 3월중 생산자 물가는 전년대비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2005년 1분기 GDP 성장률이 2004년 4분기(3.9%)보다 낮을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현지화(주위티)의 전반적인 강세기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성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 서서히 살아남에 따라 폴란드의 산업생산은 5월경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폴란드의 산업생산 추이>

2003년	200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5년 1분기
8.7%	12.3%	19%	16.4%	9.2%	6.1%	0.7%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자료 종합 (2005.6)

42. 주요산업동향/섬유산업 동향

<섬유산업 동향>

<섬유산업 개관>

수년간에 걸친 섬유산업 구조조정과 2003년 이후 경기 회복에 힘입어 폴란드의 섬유 산업은 회복되는 추세이다. 2004년 1-9월중 섬유산업의 실적을 보아도 이러한 회복세가 엿보인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섬유산업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데 이는 섬유제품에 대한 EU의 쿼터 폐지로 중국을 비롯해 인도, 태국 등지에서 저가 제품이 쇄도할 것이란 점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2004년 9월까지 폴란드 섬유업계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36.5억 PLN (US\$ 1 = 약 3.3 PLN)에 그쳤지만, 순이익은 거의 40% 증가한 2억 6,900만 PLN에 달했다.

<최근 폴란드 섬유산업의 실적 (단위: 백만 PLN)>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1-9)
매출	5,302	4,992	4,773	4,902	3,647
순이익	195	190	199	239	269

그러나, 이러한 실적 개선은 섬유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고용이 6% 감소했으며, 아시아국가를 비롯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지의 低-코스트 생산업체와의 경쟁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업체의 약 7%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폴란드 섬유산업의 회복에는 지난 수년간에 걸친 구조조정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인데 2000-2003년 기간중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수가 18%나 감소한데서 볼 수 있듯이 취약한 업체들은 구조조정에서 살아 남지 못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한 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 및 의류 생산동향>

폴란드의 섬유생산은 지난 90년대 후반(1999년 -2%)부터 2000년(-8.1%), 2001년 (-2.8%) 계속감소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02년 보합, 2003년 7%)

폴란드 시장에서 활동해 온 선도 기업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성공은 생산 전문화, 현대적 디자인의 도입 등을 통해 성취될 수 있었다. 특히, 발전 전망이 밝은 분야로는 산업용 목적의 섬유제품 생산부문과 엄격한 기술적 요건(마모에 대한 저항성, 방수 및 thermo-active 재료 등)을 충족시키는 전문제품 생산부문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의 섬유 의류 제조업체들은 2005년 1월 1일 EU의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시장잠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생산부문으로 생산의 특화 및 경쟁력이 없는 범용부문 생산시설의 저 코스트 국가로 이전 등이 생존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의류 제조업체 일각에서는 중국산과의 경쟁 격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동쪽(우크라이나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산 섬유류 자유화는 결과적으로 폴란드에서 의류산업용 섬유보다 technical textiles(산업용 섬유)의 제조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2004년도 폴란드의 섬유 및 의류 세부품목별 생산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Product	2004 년					
	단위	12월	1-12월	증감율		증감율
		Actual production	Actual production	2003.12 =100 *	2004.11 =100 **	2003.12 =100 **
Chemical fibers	1000 t	7.9	103	106.8	82.5	104.6
Synthetic fibers	1000 t	7.9	102	106.8	83.0	104.4
Cotton yarn of uncombed fibers, weaving yarn	t	2009	33098	112.2	78.1	112.2
Cotton yarn of combed fibers, knitting yarn	t	350	6886	64.1	69.7	85.9
Linen yarn	t	475	5479	131.2	88.8	93.3
Woven fabrics of cotton weight not exceeding 200 g/m2 (excluding gauze)	1000 m2	10151	146000	75.6	85.5	78.6
Woven fabrics of cotton weight exceed 200 g/m2 (excluding gauze)	1000 m2	155	7137	67.1	50.3	122.1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and yarn of processed continuous fiber	1000 m2	18789	240743	127.5	94.3	112.2
Bedclothes	1000 uni	1220	14947	110.1	88.8	94.1
Carpets	1000 m2	188	2285	88.7	98.9	99.7
Floor mats	1000 m2	110	1211	113.4	107.8	117.5
Linings	1000 m2	77.0	1924	87.5	42.1	89.0
Hosiery	1000 pair	12783	160493	98.8	104.8	102.2
Panty hose and tights	1000 uni	6820	78003	126.4	97.2	114.9
Men's or boys' overcoats, various types of wind-cheaters and other similar articles	1000 uni	109	1592	94	85.8	87.8
Men's or boys' suits and ensembles	1000 uni	189	2364	101.6	86.7	113.7
Men's or boys' short coats and blazers	1000 uni	127	1356	100	138	87.7
Men's or boys'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1000 uni	1404	19138	106	92.7	104.8
Women's or girls' overcoats, various types of wind-cheaters and other similar articles	1000 uni	118	1613	111.3	90.1	92.6
Women's or girls' suits and ensembles	1000 uni	363	3353	105.8	318.4	140.1
Women's or girls' jackets	1000 uni	461	4711	127	129.5	114.6
Women's or girls' dresses, skirts and culottes	1000 uni	467	5958	95.1	124.2	96.9
Women's or girls' trousers,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1000 uni	1175	15485	109.4	98.6	105

Men's or boys' textile shirts	1000 uni	688	8432	101.9	101	87.1
Women's or girls' textile blouses and shirt blouses	1000 uni	812	9366	124.7	112.9	101.3
Furniture for sitting convertible for furniture for slipping	1000pcs	110	221	105.8	99.1	113.3
Kitchen furniture	1000pcs	234	453	103.1	114.1	102.3
Wooden furniture for bed room	1000pcs	218	417	132.9	109.5	126.0
Wooden furniture for salon and dining room	1000pcs	760	1534	94.3	96.9	94.0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는 전월대비 증감율,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폴란드 섬유시장의 특성은 섬유원료(섬유사, 직물) 등을 인근 EU국가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섬유제품 및 의류를 생산하여 인근 동서유럽 국가로 재수출하는 것이다.

폴란드 내에서도 섬유원료(섬유사, 직물)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산 제품 대비 경쟁력을 상실하여, 연간 18억달러 상당을 수입하고 있다. 반면, 폴란드는 수입 섬유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인근 독일, 이태리 등에 연간 17억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다.

정보원: 폴란드 통계청, 바르샤바무역관 조사 (2005.6)

43.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동향

<자동차 산업 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폴란드의 대표 산업중 하나이다. 인구가 4천만명에 달하는 폴란드에는 현재 약 1,580만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71% 정도를 차지한다. 폴란드 자동차 시장은 90년대말 피크에 달하여 1999년도 신차 판매가 65만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 경기침체와 함께 자동차 판매도 격감하였다.

2003년에는 경제회복과 함께 신차 판매량도 다소 회복되어 35만대를 기록하였다. 단, 2004년의 경우 신차 판매는 약 10% 감소할 것이란 현지 자동차시장 분석기관 SAMAR의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폴란드의 EU 가입(2004년 5월) 이후 공급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해치백 형태 차량이 회사 차량으로 등록될 수 없어 부가세(VAT)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EU에 가입한 5월 이후 중고차 수입이 폭증하고 있는 점도 신차 판매의 부진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2003년도 폴란드의 브랜드별 승용차 판매순위를 보면, FIAT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시장점유율 20%), 그 뒤를 Skoda (11.7%), Toyota (10.5%), Renault (10.5%), Opel (9.2%), Peugeot (7.4%), Ford (6.4%), Volkswagen (4.8%), Citroen (4.7%) 및 Daewoo (3%) 등이 따르고 있다.

한편, 밴, 소형 트럭 등(상용차)의 연간 판매대수는 약 2만대 정도이며, 판매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메이커별 판매순위는 Volkswagen(12.6%), Mercedes(11.5%), Citroen (11.2%), FIAT(10.5%), Ford(10.2%), Renault(9.8%), Andoria(7.7%), Opel(7.4%), Peugeot (7.3%), KIA(4.6%) 등이다.

현재 폴란드 전체 시장의 약 20%는 현지 생산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80%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 생산물량의 상당수는 수출되고 있다) 그간 침체를 보였던 자동차 생산 부문은 최근 들어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승용차 생산업체로는 FIAT, GM(OPEL 브랜드), Daewoo-FSO 등이 있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Daewoo-FSO는 회사명을 변경하여 (Daewoo를 제외) FSO로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 및 80%의 부채 탕감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및 인수업체들을 찾고 있다. 한편, 밴 및 소형트럭 등 상용차 생산업체로는 Volkswagen (트럭 분야의 선도 업체, 주로 수출 중), FIAT, Andoria-Mot 등이 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 비교적 낮은 임금, 노동여건 양호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코자 추진 중이다.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44. 주요산업동향/자동차부품산업 동향

< 자동차 부품시장 개관 >

폴란드의 도로 상태가 서유럽과 비교하여 아직 크게 떨어지고, 평균적인 車 연령이 높아(10년 이상)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폭 넓으며, 부품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균적인 폴란드인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동차를 자주 교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부품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폴란드에는 각종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1,80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당수는 영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로 평가되며, 130여개 업체는 외국계 또는 외국과의 합작회사로 파악된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신규 생산설비 투자나 폴란드 파트너와의 합작을 통해 자동차 연관산업에 상당액을 투자하고 있다. 주요 투자업체로는 Isuzu, Volkswagen, Delphi Automotive Systems, Michelin, Goodyear, Visteon Automotive System, BTR Automotive, MAHLE, Eaton BV, Faurecia, GKN, Toyota 및 Exide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부품과 액세서리가 폴란드에서 제조되고 있다. 대표적 부품은 brake, gear box, shock absorber, clutch, exhaust pipe, air filter 등이다. 타이어와 튜브 생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외국계 업체들이 이미 폴란드에 진출해 있고, 폴란드의 자체 생산도 활발하여 부품시장에서 경쟁은 치열한 것으로 평가 된다.

< 부품의 수요 및 수출입동향 >

폴란드의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시장의 총규모는 93억 PLN (US\$ 24억) 정도로 파악 된다. (2002년 기준) 부품 시장은 지난2001년 주춤했으나, 2002년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폴란드 자동차 부품시장의 수급동향은 다음 표와 같다.

[폴란드의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시장 수급동향]

(단위: 억PLN)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생 산	77	92	106
수 입	51	41	44
수 출	33	42	57
내수시장	95	91	93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주) 1. 부품에 엔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US\$ 1 = 3.8 PLN

한편, 폴란드의 2003년 자동차부품 수입규모는 16억 1,513만달러에 달했다. 수입은 2001년 이후 상승인데 2002년 전년대비 6.6% 증가한데 이어 2003년에는 50.8%나 늘어났다. 최대 수입국은 독일이며, 그 뒤를 이탈리아, 프랑스, 체크, 스페인 등이 따르고 있다. 수입은 2004년에도 크게 늘어났는데 상반기까지 수입실적은 12억 4,460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수입은 자동차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물량과 교체 및 A/S 물량을 합친 개념이다.

2003년 폴란드의 대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은 2,499만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제9위 수입 대상국 이나, 시장점유율은 1.5% 정도에 그치고 있다.

폴란드의 부품 수출은 2003년 기준 21억 5,690만달러에 달하는데 최근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2년 전년대비 36%, 2003년 54% 증가) 폴란드내 외국계 제조업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의 자동차부품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국 가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총수입	1,071,015	1,615,135	1,244,596
독일	435,754	672,514	547,201
이탈리아	149,202	305,730	220,446
프랑스	70,757	107,166	72,058
체크	53,008	82,295	63,606
스페인	49,636	85,136	59,296
(중략)			
한국	23,820	24,992	12,525

자료: 폴란드 통계청

주: 한국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 한국의 대폴란드 자동차부품 수출은 5,803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4% 증가했음

한편, 폴란드의 자동차부품 세부품목별 수입 동향은 다음 표와 같다.

[폴란드의 자동차부품 세부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H S	품 명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870810	완충기 및 동 부품	19,614	24,260	20,179
870821	안전벨트	20,371	22,886	11,708
870829	에어백 등	216,949	352,164	315,835
870831	장착 브레이크 라이닝	27,524	32,491	17,896
870839	기타 각종 제동장치	87,848	142,096	112,607
870840	기어박스	87,603	199,782	162,015
870850	구동 차축 등	21,448	25,552	18,357
870860	비구동 차축과 동 부품	20,205	36,429	53,605
870870	로드휠과 동 부품	61,484	101,133	44,556
870880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	46,778	65,130	49,801
870891	방열기	18,873	34,008	30,225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	26,437	33,579	23,560
870893	클러치와 동 부품	35,235	46,758	31,325
870894	핸들, 운전대 등	83,129	104,127	66,581
870899	기타 (샤시 등)	297,508	394,732	286,340

<한국제품에 대한 현지의 평가>

한국산 부품은 폴란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한국산은 가격 수준이 적정하며 품질도 괜찮다는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현지의 일부 바이어들은 품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정품은 품질이 좋다는 평가이나, 非정품(non-genuine parts)은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한국산 부품의 현지 진출여건은 괜찮은 것으로 평가된다. 폴란드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동차를 자주 바꾸지 않아 대체 수요가 크며, 이에 따라 부품 수요는 꾸준하며 지속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70만대 정도의 한국산 자동차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차가 현지에서 처음 생산된 시기는 지난 96년인 바, 많은 한국산 차들이 주기적으로 보수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외국 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여 시장경쟁이 치열한 실정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폴란드 무역통계, 한국 무역통계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05.6)

45. 주요산업동향/목재 및 가구산업 동향

<목재 및 가구산업 동향>

폴란드는 목재가 풍부하여 가구 산업이 발달하였다. 연간 가구 생산량은 26억 달러에 달하며, 생산량의 92%인 24억 달러를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전체 수출액 점유율이 6.7%에 달하는 등 폴란드의 대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폴란드에서 생산□수출되는 가구로는 사무용 가구, 실내 장식 가구, 주방 가구, 침실 가구, 아동용 가구 등으로 다양하다.

폴란드에는 가구 생산 업체가 6,477개사가 운영 중이나, 이중 종업원이 50명 이상의 중규모 이상 업체는 전체의 6%에 달하는 388개사로 나타났다.

수출도 매년 증가 추세로 1999년 20억 달러, 2000년 21억 달러, 2001년 24억 달러로 연간 5%, 14%씩 급증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2000년 3억6천만 달러, 2001년 4억 달러로 폴란드의 대외 교역에서 흑자가 20억 달러 이상 기록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다.

이와 같이 폴란드의 가구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목재 생산이 풍부하고,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에 따라 주로 독일, 스웨덴으로부터 새로운 생산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도입,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회사 경영 체제 운영, 그리고 판매 기법 활용 등에 기인된 것으로 알려 졌다.

주요 가구 생산업체로는 Mazurskie Meble International (마쥬르스키 가구), IKEA (이케아), Jarocinskie Fabryki Meble (야로친스키 가구), BFabryka Mebli Balma (비 파브리카 가구), Lack Red White (랙 레드 화이트), Forte (포르테), GFM Kollektion WIM (쥐에프엠), Furnel (푸르넬), ZMG Fameg (젤엠지), Adriana (아드리아나), Swarzedzkie FM (스바제드키에), Wielkopolskie FM (비에코폴스키), Opolskie FM (오폴스키) 등이 있다.

폴란드산 가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36%), 독일 (24%), 영국 (10%), 벨기에 (4%), 스웨덴 (4%), EU 기타 국가 (12%) 등이다.

폴란드의 가구 생산 부문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 스웨덴의 세계 유명 가구 제품 대형 유통점인 IKEA은 폴란드의 가구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2~3년 이내에 폴란드 내 생산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판매장의 추가 확장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IKEA는 폴란드에 4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15개 설립해 운영해 오면서, 폴란드의 가구 생산업체 80개사와도 납품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IKEA는 2006년에 폴란드의 주요 도시인 우즈(Lodz), 비드고슈츠(Bydgoszcz), 슈체친 (Szczecin) 등에도 대형 판매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KEA는 2003년도 매출액을 1억2,500만 달러(5억 Pln)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10년 이내에 매출액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폴란드 생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액도 2002년도의 5억 6,000만 달러(23억 Pln)에서 2003년에는 6억 2,500만 달러(25억 Pln)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원 : 무역관 자체 조사 (2005. 6)

46. 주요산업동향/의류산업 동향

<폴란드 의류산업의 특성>

최근 몇 년간 폴란드 의류 시장은 무역규모 및 외국 진출업체수의 증대로 인하여 크게 변화해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폴란드 의류 산업뿐만 아니라 고유한 스타일과 특성을 갖춘 패션 디자인 업체가 출현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종류의 업체는 그 수가 20-30개 정도 되는데 특이한 점은 아무도 대량으로 의류를 생산하지 않고 그대신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패션 경향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 업체들 중에는 LPP와 같이 지난 2-3년간 폴란드 국내 의류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온 유력 업체들도 있다. 이들의 강점은 훌륭한 디자이너들, 널리 알려진 트레이드마크, 또 그들만의 고유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렇게 매우 성공적인 패션 디자인 회사는 폴란드 내에서 그리 많지 않다.

폴란드에서는 약 44,000개나 되는 업체들이 의류 및 모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 86%는 매우 소규모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6,000개 기업 중 단지 800개 업체만이 49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800개의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들 중 폴란드 시장에서 크게 우위를 차지하는 회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700개 이상이나 되는 많은 외국 의류 업체들이 또한 폴란드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어들로부터 공급 받은 섬유원단을 재료로 최신 유행에 맞추어 수출용으로 의류를 제조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이 업체들 중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개조하여 유명브랜드의 의류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들을 폴란드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위탁가공형태의 제조가 지금까지는 폴란드 의류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상장 기업들도 이러한 위탁가공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활동이 수익성은 그리 크지 않으나, 폴란드 의류 산업 70-80%의 생산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의류 분야 관계자들은 이런 위탁가공방식을 통하여 폴란드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 받고 있음을 언급한다. 폴란드는 이러한 방식의 의류제조를 통하여 이미 서유럽 국가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EU가입 후 통일되는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자체 브랜드로는 외국에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위탁가공 및 수출은 비록 제조업체의 자체 브랜드로 판매되지는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가공방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폴란드 내 영세 제조업체들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값싼 의류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폴란드 업체들이 직접 이런 제품과 직접적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일부 유명 의류업체들이 의류제조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먼 동양을 포함한 외국 공장에서 제조해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의류를 생산할 때 이윤은 5%에 불과하나 대부분을 아웃소싱하고 디자인과 유통에만 전념할 경우 이윤은 30% 달한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업체들은 또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의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유럽 국가들과 북미에서처럼, 폴란드 의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폴란드 의류 시장에서의 경쟁은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더욱 치열하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로 밀수입되어온 옷들이나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채 수입되어진 옷들이 폴란드 의류 시장의 총 판매량 중에 높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격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의류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지난 몇해동안 안정세를 유지한 폴란드 의류 시장의 연간 매출은 PLN 150억(USD 35-40억)로 중부와 동부 유럽내에서 가장 높다.

<현 황>

폴란드의 의류 소비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던 초기의 예상들은 여태까지 입증되지 못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폴란드 소비자들이 의류 소비에 지출한 액수가 감소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ffice (GUS))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폴란드인들이 매달 의류소비에 지출한 돈은 PLN 33.10인 것에 비해 2002년 평균 지출액은 PLN 32.80이었다. 이런 통계치를 볼 때 의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별로 놀랄만한 점은 아니다.

2003년의 첫 9개월 동안 의류 소매가격의 하락은 지난 해보다 더 커져서 2.9%에 달했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점점 낮은 이윤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해 동안 의류 회사들은 감원 등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년간 그들은 78,000명의 직원들(1999년에 의류 산업 총 고용인원 3분의 1)을 해고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의류 생산 또한 끊임없이 하락해왔다. 특히 폴란드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대다수의 고객들에게, 가격이 아직 주된 선택의 기준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된 의류들은 멀리 동양에서 수입되는 싼 의복들에게 경쟁이 되지 못한다. 반이상의 폴란드 소비자들은 가장 싼 옷들을 찾는데, 특히 바자회나 슈퍼마켓에서 등에서 의류를 많이 구입한다.

<의류 생산 (Production of clothes from woven fabrics)>

(단위: 1000 PCS)

	2000	2001	2002
코트, 비슷한 종류의 남성 및 남아용 외투	2,857	3,054	2,559
남성 및 아동용 바지, 반바지	20,595	20,737	18,970
코트, 비슷한 종류의 남성 및 여아용 외투	2,513	2,192	1,940
여성 및 여아용 스커트	10,564	8,324	6,827
여성용 바지, 반바지	17,264	17,672	16,500

이러한 경향은 의류를 생산해내는 회사들에 있어서 큰 문제이다. 8개의 의류 회사 중 6개 회사는 지속적인 수입 감소와 마이너스 재정 결과를 보여왔다. 오직 앞에서 언급한 Gdansk의 LPP 회사만이 대다수의 폴란드 의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경영 모델로 인하여 성과를 증진시켜왔다. LPP는 아웃소싱한 의류제조 서비스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류 생산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으나 트레이드 마크의 진흥과 최신 유행 스타일 옷의 도안, 마케팅, 그리고 고유의 유통조직망 개선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LPP의 성공은 주식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LODZ의 의류유통업체 Redan, Krakow에 소재한 패션 디자인경 유통업체 Artman등 다른 국내 업체들이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위탁가공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큰 의류 회사들은, 그들 고유의 브랜드를 강화하는데 투자할 수 있게 해줄 이익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

가장 큰 의류 생산자업체 중 하나인 Vistula에 의한 새로운 유통망 구성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는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Artisti Italiani 라는 이름의 Vistula의 매장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테리어와 젊은 층을 주로 겨냥한 스타일로 설정된 높은 가격의 옷들로 손님들을 쫓아버렸다. 이 매장들은 약 네 번이나 가격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끌 수 있었다.

지금은 사치스러운 의류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니라는 것이 W. Kruk그룹 계열에 속한 Deni Cler 사의 불만족스런 성과에서 입증되었다. 2003년 3분기 동안 DCG는 순손실 PLN 1m (million)을 기록했다.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위탁제조 방식이 폴란드 회사들에게는 점점 위험해진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수출 및 수입>

폴란드의 의류 수출은 지난 몇 년간 감퇴해왔다. 특히 심각한 하향 경향은 폴란드 의류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외투수출의 감소에서 잘 나타난다. 편물의류(knitwear)의 수출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몇몇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과 위탁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간 경쟁이 증가함으로써 외국 시장에서의 폴란드산 옷 판매가 감소되고 있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기업들은 더 싼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차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싸고 훌륭한 품질의 생산품들의 유입 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이 값싼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옷들을 손에 넣기 위해 점점 더 자주 중국, 인도와 다른 외국 회사들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폴란드 패션 디자인과 유통 회사들로 인해 폴란드의 직물과 편물 의류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폴란드 의류 부문은 몇 년 동안 외국과의 무역에서 외부위탁 제조로 인하여 높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의류(1)의 수출과 수입 (Export and import of textiles)>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상반기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수 출	746	9.4%
수 입	203.2	17.3%

<의류(2)의 수출과 수입 (Export and import of knitwear)>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3년 상반기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수 출	203.2	9.5%
수 입	188.9	10.5%

의류 업체들의 자료에 의하면, 위탁가공 뿐만 아니라 폴란드 회사들의 고유 브랜드로 인한 의류의 판매 증가로 인해 수출의 성장이 활기를 띄었다. 가장 고가의 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해외에 그들의 고유한 판매망을 발전시켰다. 그들 중 몇은 의류 유통 체인점 들이나 부티크들을 전문화 하기 위해서 서양과 동양에 대리점을 두고 양질의 의류들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량의 수출은 폴란드에서 수출된 거의 모든 의류들이 EU국가들 (46%가 독일로 먼저 간다)로 간다는 사실에 의한다면 아직은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의류 수입은 전체 수입 직물들 중 2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좌우당하고 있다. 다른 주요 공급지들은 이탈리아, 터키, 그리고 독일인데 이들 세 나라들로부터의 수입량이 중국에서의 수입량을 조금 넘는다.

<성장 전망>

폴란드 의류 산업의 강점은 복잡한 모델의 의류를 생산한 경험과 서구 브랜드의 위탁제조에 서 얻은 노하우에 있다. 이러한 경험과 고품질의 재단 서비스로 인하여 폴란드 의류업체들 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외국업체들을 위하여 위탁제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폴란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주변국들과 비교하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점 더 위축될 것이다.

서유럽 시장과 비교할 때 폴란드 의류시장은 아직 개발초기단계에 있다. 이는 폴란드 사회 의 구매력이 아직 낮으며 의류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인들의 소비구조에서 의류와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EU국가들의 평균 보다 두 배나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경제사정이 개선되면서 의류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폴란드 소비자 중 절반은 가장 싼 의류를 찾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저렴한 가격 뿐만 아니라 최신 유행의 양질의 의류를 원한다는 것이다.

후자 소비자 층이 Reserved, Tatum, Top Secret 와 같은 체인의 성공에서 나타나듯이 의류 소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 제조업체의 성공은 생활 스타일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종류의 유행복을 디자인하고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달려있다.

정보원: BOSS Business News Poland, 기타 자료 종합 (2005. 6)

47. 주요산업동향/전자부품산업 동향

<전자 부품산업 동향>

시장동향

2003년도 폴란드의 전자부품 시장 규모는 1,920백만불로 전년대비 8% 증가하였다.

<최근 폴란드의 전자부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일반 전자부품 (Active and passive Electronic Component)	865	950	1,026
TV 부품 (Kinescopes)	390	435	469
전기관련 전자부품 (Electromechanical Component)	165	175	189
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70	80	87
기타	110	280	149
총 계	1,600	1,775	1,920
전년 대비 시장 증가율	17%	11%	8%

정보원: HGM, BOSS

폴란드내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업체는 TV 생산업체, PC 제조업체, 가전제품 제조업체, 자동차 생산업체,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계측기기 생산업체, 그리고 조명기기 생산업체 등으로서 수요 부문이 매우 다양하다.

<폴란드 전자부품시장의 세부품목별의 비중 (2003년)>

(단위: 백만불)

구 분	점유율	비 고
일반 전자부품 (Active and passive Electronic Component)	55%	- Active Component : 30% - Passive Component : 25%
TV 부품 (Kinescopes)	25%	
전기관련 전자부품 (Electromechanical Component)	15%	
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5%	
기타	10%	
총 계	100%	

정보원: HGM, BOSS

폴란드내 생산중인 전자부품은 주로 TV 부품, PC 부품,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 등에 불과하며, 전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도 폴란드의 전자부품 수입량은 1,500백여만불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한편 폴란드의 전자부품 생산업체는 40개사에 달하며, 주요 생산업체로 Thomson Polkolor, Philips Ferpol, Ferroxcube, Miflex, Polfer, Laminia, Tonsil, Relpol, Eldos, Technoservice 등이 있다. 폴란드의 전자부품 시장은 최근 4년 동안 연간 8% - 17%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전자부품 수출동향

대폴란드 전자부품 수출은 2003년까지 만 해도 5백만불 정도에 그쳤으나, 2004년 대폭 증가하여 14백만불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전자부품 수출추이>

(단위: 천불)

구 분	2002	2003	2004
전자부품(MTI 83)	5,204 (-20.9%)	5,772 (10.9%)	14,196 (146.0%)

2004년 대폴란드 전자부품 수출 급증은 반도체, 인쇄회로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 TV 제조업체의 생산 호조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 폭증도 수출 증가의 한 요인이다.

<대폴란드 전자부품 세부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천불)

품목명	2003년	2004년	(증감율,%)
집적회로 반도체	398	1,759	341.5
개별소자 반도체	167	1,101	559.7
저항기	335	739	120.7
변성기	376	657	74.9
축전기	396	671	69.6
스위치	347	530	52.9
인쇄회로	117	2,505	급증
건전지	640	888	38.7
폐건전지	921	1,251	35.8
평판디스플레이	2	3,274	급증

정보원: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48. 주요산업동향/화학산업

화학산업 동향

< 폴란드 화학시장의 일반적 특징 >

2002년 폴란드의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포함)의 총매출액은 약 US\$ 193억로 집계되었다. 화학 제품 시장은 급격히 신장하고 있고, 성장율은 GDP 성장율 보다 높다. 2002년의 GDP 성장율은 1.4% 였으나, 화학 제품 공급은 거의 11% 나 신장되었다.

폴란드의 1인당 화학제품 사용은 US\$ 500 정도인데, 이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보다 40% 낮은 것이다. (이는 폴란드 화학제품 시장의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함) 폴란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50% 이상(금액은 51%)이 수입물품이다.

< 폴란드의 화학시장의 제품 공급액 >

(단위: US\$ 십억)

년도	생산	수입	수출	공급
2001	12.0	8.9	3.5	17.4
2002	13.6	9.9	4.2	19.3
증감율(%)	13.3	11.2	20.0	10.9*

주: 높은 증가율은 이 기간 동안의 달러/현지화(주위티)의 환율변동에 기인한다.

정보원: Central Statistical Office(GUS)

< 폴란드의 화학 부문의 일반적인 특징 >

2003년 9월말 기준, 폴란드의 총 산업생산 중 화학산업의 비중은 11%에 달했다. 이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최대치이다. 생산량으로 보면, 폴란드의 화학산업은 유럽에서 10위 안에 들고, 중동부 유럽에서는 1위이다. 또한, 2001년 폴란드가 세계 화학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5% (US\$기준), 전유럽 생산에서 비중은 2.12% 였다.

< 폴란드의 총 산업생산 중 화학산업의 비중 >

(단위: %)

	2000	2001	2002	2003. 1-9
전체 산업	100.0	100.0	100.0	100.0
화학제품, 화학생산품과 수공업면제품	5.6	5.6	5.9	6.3
고무, 플라스틱 제품	3.8	4.0	4.4	4.7

정보원: GUS

< 화학산업의 구조 >

화학산업 부문은 다음과 같은 2개의 생산 하부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 1) 화학제품 부문(Chemical Products): 2002년 총 화학산업 생산의 거의 57%를 차지
(화학제품은 폴란드 산업분류(PKD)에는 PKD 24로 되어 있음)
- 2)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PKD 25): 2002년 화학산업 총 생산의 43% 차지

화학제품 부문 (PKD 24)은 다음과 같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 화학(PKD 24.1): 유기 및 무기화학 중간재(organic and inorganic intermediate products), 플라스틱 (제조), 비료(mineral fertilizers), 염료, 고무제품, 산업용 가스 등을 포함
- 농업용 화학제품 (농약 - PKD 24.2)
- 페인트와 라커 (PKD 24.3)
- 의약품 (PKD 24.4)
- 비누, 세제, 광택제, 화장품 (PKD 24.5)
- 기타 화학제품
(화약, 접착제, essential oils, photograph chemical material - PKD 24.6)
- 화학섬유(PKD 24.7)

< 2002년도 화학제품 부문의 구성 >

(단위: %)

기초화학품	의약품	비누, 세제 광택제, 화장품	페인트, 라커	기타화학품	화학섬유	농업용 화학제품
48.3	19.9	15.2	7.7	4.7	2.8	1.4

정보원: GUS, BOSS

< 화학 산업 생산 >

폴란드 국가경제에서 화학품 사용은 자동차, 가전 등 현대적 제품의 생산과 건설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가구(의 사용 확대) 또한 화학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촉발시켰다.

화학 생산의 성장률은 전체 산업 및 건설사업의 총생산 성장률 보다 훨씬 높다. 1995-2002년 기간중 화학제품 제조는 29%, 고무와 플라스틱류 제품의 제조는 145% 증가했다. 2003년 3/4분기까지 역시 화학산업은 10.3% 성장하여 일반산업 성장률 7.5%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은 18.1%, 화학제품은 19.3% 성장했다.

< Sold Production (매출) >

생산의 구조와 관련하여 화학산업은 폴란드 전체의 수요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 화학품(올레핀, BTK aromatic substances, 암모니아, 메탄올)과 플라스틱 제품은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 학산업의 발전은 기초화학 부문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기초화학 부문은 생산감소, 손실 발생, 고 부채 및 투자를 위한 자금의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최근 수년간 매출 추세 (경상 가격 기준) >

(단위: US\$ 십억)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산업 전체	115.6	125.0	128.8	64.3
화학산업	10.9	12.0	13.3	7.2
-화학제품	6.4	7.1	7.6	4.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4.4	5.0	5.7	2.9

주: 종업원 수 45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음.

정보원: GUS

< 화학산업 제조업체들의 특징 >

2003년 6월말 현재, 화학산업 부문에는 종업원수 9명 이상의 기업이 약 7,250개에 달했다. 이중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718개였다. 부문별로 보면, 품 부문은 2,300개사(31.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부문은 거의 5,000개사(68.3%)에 달했다.

화학산업에는 약 5천개의 소규모 업체들이 있다.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한 이들 소형 업체들의 기여는 상당하다. (약 15%) 폴란드 화학산업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다수의 화학부문 업체들의 높은 기술적 수준, 잘 개발된 기술적 인프라, 생산자산의 괄목할 만한 가치,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 및 오랜 제조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 화학산업의 시장 상황 >

폴란드 화학산업에서 중간재 및 최종 화학제품(intermediate and ready chemical products)의 사용은 EU 국가들보다 낮다. 이것은 특히 플라스틱 재료(plastic materials)의 경우에 확실히 드러난다. 90년대 초반 폴란드의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량은 1인당 17kg으로 EU 평균의 1/4 수준이었다. 현재는 이러한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폴란드의 1인당 사용량은 55kg으로 EU 평균의 1/2 수준이다.

플라스틱 재료 사용상의 차이가 줄어든 이유는 폴리머(polymers)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중간재 수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료 가공산업은 국내 폴리머 공급 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이것이 대외무역 역조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는 기초 석유화학 중간재 제조를 위한 인프라의 개발 및 현대화와 가장 중요한 유기 중간재 산업을 통하여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폴란드 정부의 (화학산업 개발) 프로그램의 의도이기도 하다. 이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대외 무역 >

폴란드의 화학품 수입은 수년 동안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 왔다. (수입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그 결과가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의 무역 역조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2002년에 강화되었고, 전체 대외무역 적자에서 화학산업의 기여분은 40%에 달했다. 2002년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의 수입은 (14.3%증가) 화학제품의 수입(10.7%증가)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화공품과 화학제품의 수요로 보면, 적어도 2010년까지는 이러한 제품과 원재료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의 주된 이유는 내수시장의 요구에 비해 석유화학 원자재의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느리기 때문이다.

<화학산업 제품의 대외 교역 추이>

(단위: US \$ 십억)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출	2.7	2.5	3.1	3.5	4.2
수 입	7.8	8.0	8.4	8.9	9.9
무역수지	-5.1	-5.5	-5.3	-5.4	-5.7

정보원: GUS

< 화학 부문의 방향과 변화 >

현재까지 진행된 민영화에 따른 효과는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제조(PKD 25)와 화학제품(PKD 24) 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초화학제품 분야의 대형 제조업체에는 이러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투자자들은 Płock의 Petrochemical Refinery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 공장), Dębica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Stomil Olsztyn 과 Stomil Poznań, Stilon 의 화학섬유 제조업체, 그리고 워싱 파우더(washing powers)와 가정용 화학제품 또는 산업용 개스 제조 플랜트 등과 같은 화학 업체들을 인수한 바 있다.

1999년-2002년중, 120개의 화학 플랜트 (PKD 24)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기초 화학제품과 농업용 화학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6개의 대형 플랜트에 대한 잠재적인 소유자는 찾을 수 없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6개 대형 플랜트의 민영화가 실패한 이유는 특정공장들에서 불충분한 제품 구조, 과잉 고용, 정부의 기업 평가에 비해 너무 낮은 제시액, 고용조건 관련 노조의 지나친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 화학 공장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폴란드 화학산업의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소위 Industrial Scale Chemical Synthesis라고 불리는 하위 부문 6개 업체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이다. 이들 업체의 생산은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화학 중간제품(선도업체 PKN Orlen S.A. - 폴란드 최대 유화업체)을 기반으로 하며 또한 phosphorites, rock-salt (암염) 등과 같은 다른 원자재에 기반한다. 이러한 하위 부문의 조건은 폴란드 국내 화학산업의 방향, 효과 및 생산량 등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다.

선도적인 Industrial Scale Chemical Synthesis 업체들은 재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질소 플랜트 ZA Puławy S.A. (매출액과 생산면에서 이 분야 최대의 업체. 질소 비료와 멜라민(melamine) 및 카프로락탐 등을 전문으로 함)
- 화학 플랜트 ZCh Police S.A. (인산비료, 티타늄 화이트 등의 최대 제조업체)
- 화학 플랜트 Zch Zachem S.A. in Bydgoszcz (다각적인 생산)
- 질소 플랜트 ZA Kędzierzyn S.A. (현재 재정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중)
- 질소 플랜트 ZA S.A. in Tarnów-Mościce (다각적인 생산)
- 화학 플랜트 ZCh Sarzyna S.A. (이 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작음. 농업용 화학품 생산에 특화. 시장에 포지셔닝을 잘 한 수익높은 플랜트)

< 화학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FDI) >

1990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69개 외국 회사가 화학제품 부문(PKD 24)에 US\$ 23억을 투자했다. 또한 24개 투자자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PKD 25)에 거의 US\$ 5억 8천만을 투자했다. 화학제품 부문 전체 FDI의 68% 정도가 의약품 분야와 가정용 및 화장품분야에 투자되었다.

○화학 제품 부문 (PKD 24)의 FDI 구조 (2003년 6월말 기준)

1. 의약품 (비중 38.7%)
2. 가정용 화학품, 화장품 (28.9%)
3. 산업용 가스 (20.3%)
4. 페인트, 라커 (3.8%) / 5. 기타 제품 (8.3%)

○ 폴란드 화학산업의 최대 투자자들

- GlaxoSmithKline (포즈난 생산공장에 US\$ 380.5백만 투자)
- Brithsh Oxygen Corporation (BOC Group) (산업용 가스 판매네트워크 개발과 3개생산 공장에 US\$ 220백만 투자)
- Marga B. V (2개 가정용 화학품 제조공장 및 2개 식품사업공장에 US\$ 200백만 투자)
- Procter & Gamble Co. (판매 네트워크와 가정용 화학품 제조공장에 US\$ 190백만 투자)
- 슬로베니아 회사 Pliva d.d. (의약품 공장에 US\$ 154백만 투자)

○ 고무 및 플라스틱 분야의 최대 투자자들

- Michelin (US\$ 151백만)
- Bridgestone-Firestone (US\$ 120백만)
- Goodyear France S.A. (US\$ 114백만)
- 상기 업체들은 모두 폴란드 타이어 제조업체 3개사의 민영화에 참여했음.

< 한국 화학업체의 투자진출 현황 >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화학업체로는 SK 케미칼이 유일하다. SK 케미컬은 현지합작법인 SK Eurochem을 설립하고 2005년부터 PET병 원료(PET resin for bottles)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립자본금은 US\$ 3,800만이며, 한국측 지분은 70% 이다.

- SK Eurochem Sp.zo. o

Tel : 48-54-247-3921 Fax : 48-54-237-3929

대표 : 우제범 법인장

웹사이트 : www.skeurochemicals.com

자료원 : Chemical Industry in Poland 및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 (2005. 6)

49. 주요산업동향/화장품 업계 호황 유지

<폴란드, 화장품 업계 호황 유지>

- 연간 12억불 규모, 575개사 성업 중
- 자국산 제품 경쟁력 대폭 개선으로 국내 판매, 해외 수출 호조
- 호박 등 이용한 신제품 생산으로 판매 크게 신장

2003년도 폴란드의 화장품업계는 매출액이 급신장하는 등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등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화장품 생산업체 57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12억불 (47억 Pln)에 달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향은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어, 2003년 상반기 중 매출액은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인 6억불 (23억 Pln)이나, 판매 제품의 수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다.

특히 폴란드 국내산 화장품 브랜드는 서구 유명 브랜드에 비해 폴란드 국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아, 안면 보호(facial care) 화장품의 경우 폴란드 내 판매 호조 브랜드 7개 중 5개가 폴란드 국내산 제품으로, 폴란드산 Eris브랜드 제품은 서구 유명 브랜드인 L' Oreal, Nivea 브랜드 대비 폴란드 내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또한 분장용(make-up) 화장품은 90년대 중반부터 Coty 등 서구 유명 브랜드가 판매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폴란드 내 판매량 기준 상위 7개사 중 4개사가 Ingot와 Bell 등 폴란드 자국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폴란드 국내 화장품 생산업체의 약점은 제품연구개발 (R&D)에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서구 유명 기업과 경쟁에서 불리하나, 호박(琥珀; amber) 또는 아마(亞麻; flax) 등을 활용한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외국산 제품 대비 가격, 디자인 부문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신상품으로 폴란드 국내 생산제품으로 금년도 히트 상품인 보톡스 피하주사(botox shot)를 대체하는 크림은 폴란드 소포트 (Sopot) 소재 Oceanic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화장품은 폴란드의 수출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002년에는 전년 대비 46% 급증한 4억불 (16억 Pln)에 달하였다. 또한 2002년 폴란드 내 진출 외국 화장품 생산업체들도 2.5억불 (10억 Pln)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 국내 기업인 Oceanic사는 총 매출액이 25백만불 (100백만 Pln)으로 매출액의 15 - 20%를 14개국에 수출 중이며, 2004년에는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분장(make-up) 화장품 국내 생산업체인 Ingot사도 우크라이나에서 적극 진출 중이며,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 화장품 업체의 EU 및 동서구 국가로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Polish News Bulletin 및 Rzeczpospolita지 종합

50. 지적재산권

<개황>

폴란드는 법률로 모든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고 있다. 활동중인 예술가의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라디오/TV 프로그램, 발명, 산업샘플, Trademark, 심볼 등 모든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폴란드는 Berne Society(문학/예술품 보호), Paris Society(Trade Ownership 보호), WIPO(World Institute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폴란드 법 또는 국제협정에 의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폴란드가 이제 EU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므로 특허, Trademark, Copyright 등의 분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폴란드의 Copyright에 대한 보호는 "Rome text of Berne Convention on Copyright"에 의거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Literary Work, Scientific Work, Artistic Work, 그리고 Copyright이 찍혀 있는 사진과 음악 등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된다.

창작자의 권리는 상업적 또는 개인적 권리가 모두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권리는 창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특허등록>

폴란드는 Stockholm text of the Pari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greement on the Unification of the Requirement for Preparing and Filing Application and Invention, Madrid Convention on Patent 등의 인준 또는 서명국이다.

등록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등록된 모델, 발명품, 산업디자인 등의 보호 기간은 5년이며 추가적으로 5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Trademark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씩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폴란드 특허청의 Trademark 신청서류의 검토 기간은 약 3년이다.

생산국과 생산자를 속이는 행위, 상품의 외양을 모방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상대회사의 불리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등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표권 등록>

상표등록은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 상표 등록처는 폴란드 특허청이다. 등록이 배제되는 경우는 타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시, 기등록 사용중인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미 폴란드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 시효가 끝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할 경우 등이다.

상표 심사 처리절차는 상표등록회사 -> 변리사 위탁 -> 특허청 신청 -> 변리사 등록 통고 ->등록회사 통고의 순이다.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6개월-3년이다. 상표권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희망에 따라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소멸요건은 10년 경과 후이며 또는 변리사를 통해 취소 절차를 밟을 경우이다.

선 등록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신규 상표 등록 시 기존 사용 상표의 표절 또는 유사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

상표 출원을 위한 신청서류는 상표기술(상표의 형태에 대한 기술), 상품의 범주, 회사명, 상품에 대한 설명, 행위의 범주(생산, 유통, 서비스 등) 이다. 유첨 서류는 상표 로고에 대한 칼라사진 20매, 상표로고 흑백사진 2매, 변리사의 공증서, 변리사업무 위임증서 등이다.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2005. 6)

51. 소비자보호

<소비자 보호제도>

폴란드의 소비자 보호 관련제로는 유럽공동의 규격인증제도인 CE 마크를 들 수 있다. CE 마크는 소비자의 안전, 건강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품에 적용되는데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전격 도입되었다.

한편, 폴란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UOKiK (Office for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임
- PIH (Polish Trade Inspection): 상거래 조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함
- Sanepid (Sanitary Inspection): 위생 조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함
- Rzecznik Konsumentow (Spokesmen of Consumers):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문제 발생시 도움을 주는 지방 기구 임

[CE 마크의 개요와 승인 절차]

1) 제도 현황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폴란드에서 판매되는 특정제품들(소비자 건강, 안전, 위생, 환경 보호 관련제품)은 EU의 요건, 즉 CE 마크를 받아야 한다. CE 마크가 요구되는 21개 품목군은 다음과 같다.

- 완구류
- 단순압력용기
- 가스기기
- 기계류
- 전자파관련제품(전자기 정합성)
- 통신단말기
- 계량저울
- 신체보호장비
- 이식용 의료기기
- 온수보일러
- 건축자재
- 저전압기기
- 의료장비
- 민수용 폭약
- 방폭기기
- 레저용 선박
- 승강기
- 압축장비
- 무선통신 및 통신단말기기
- 냉각장치 / - 실험진단용 의료기기

CE 마크와 관계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a. 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폴란드 인증 센터)

- 주요 업무

1. 인증기관의 인가
2. 검사기관의 인가
3. 시험실(laboratories)의 인가
4. 인가된 기관 및 시험실 감독
5. 인가된 기관/시험실 리스트 관리

b. Office for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경쟁 및 소비자보호사무소)

- 주요 업무: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시장과 상품에 대한 관리, 통제

c. 검사 및 시험기관

- 지정인증기관(Notified Body) 이라고 불리며, 검사성격에 따라 적합한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임

- 주요 업무: 제품 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 모듈 결정, 기술자료 및 설계 서류 평가

2) 인증 승인 절차

CE마킹은 관련 품목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데, 완구류, 전자기정합성, 기계류, 개인 보호장비 등의 제품은 반드시 EU 지정인증기관에 의한 의무적 시험검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자기인증)

이 경우 CE마킹 의무자(제조자, 수입업자 등)는 스스로 자사제품이 EU 관련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EU 표준규격에 부합됨을 선언(적합성 선언)하고, 이를 증빙하는 적합성인증서를 관계 당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제품의 생산절차나 서비스절차 자체에 대한 안정검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상품화 이전에 반드시 EU 지정인증기관의 사전검증을 거쳐 CE마크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정인증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서류검사 또는 현장실사 등 검사방법은 해당품목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 CE마킹제도의 시행절차

일반적으로 CE마킹제도의 시행절차는 ①EU품목별 지침 제정 → ②EN규격 제정 → ③각국별 규격과 조화조치 시행 → ④EU 역내 강제시행 → ⑤제조자 및 대리인 CE인증 획득 → ⑥CE마킹 → ⑦통관 및 유통 → ⑧각국 사후 검사 및 관리이다.

○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CE마크 획득을 위한 검사의뢰(신청서 자료첨부) → 샘플송부 → 검사 및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회의 → 인증서 교부

○ 공장검사

검사 및 평가 단계에서 제품샘플의 검사 외에도 필요시(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혹은 관련 품목의 지침이 요구할 경우)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공장심사시 심사원은 제조공장과 제조장소의 검열과 더불어 때로는 필요한 테스트를 실시하며 그외에도 제품시스템 관련 서류, 사내품질기록서, 사내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보고서, 테스트 데이터, 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서류 등을 심사한다.

○ 시험소요기간 및 시험비용

획득 비용은 제품群별로 천차만별이며, 소요기간 역시 그러한데 비교적 단순한 제품의 경우 몇 주(週) 내에도 가능하나,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참고로 폴란드의 관련기관들로부터 입수한 일부 제품群에 대한 CE 마크 획득비용 및 소요기간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니 참고 바란다.

○ 제품群별 CE 마크 획득비용 / 소요기간

- 저전압기기: PLN 1,200 - PLN 4,500 / 약 6주
- 기계류 : PLN 8,000 - PLN 20,000 / 3개월
- 신체보호장비 : PLN 1,850 - PLN 3,700 / 2개월 - 4개월
- 완구류 : PLN 500 - PLN 4,000 / 2주 - 2개월 (* 적용환율 : US\$ 1은 약 3.3 PLN)

3) 미이행시 제재사항

CE 마킹이 요구되는 품목(群)의 경우,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폴란드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불법으로 CE 마킹을 부착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PLN 10만 (약 US\$ 26,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5.6)

52. 수입관리제도

<개황>

직접적인 수입제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폴란드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처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그간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2004년 5월 1일 폴란드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수입관리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폴란드가 EU의 공동통상정책(CCP)를 따르게 됨으로써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EU의 무역규제조치가 폴란드에 적용되게 되었다.

<수입규제 조치>

○ 개관

2004년 5월 1일 폴란드의 EU 가입과 함께 폴란드는 EU의 공동통상정책 (CCP; Common Commercial Policy)을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의 무역규제조치가 신규 회원국인 폴란드에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5월1일부로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반면, EU가 역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폴란드에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EU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컬러TV, 컬러 브라운관 등), 세이프가드(철강제품), 상계관세(반도체)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이제 폴란드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폴란드가 EU의 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폴란드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추진키 위해서는 EU 집행위 제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수입금지품목

야생동물 가죽 및 제품, 지적재산권 위반제품, 특정국에서 잡히는 참치, 가금류를 제외한 산 새, 라이베리아산 제품, 이라크산 제품 등이 있다.

○ 수입쿼터(수량제한) 품목

EU 회원국으로서 EU와 동일한데 현재 철강제품 (대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섬유/의류 (대상국: 베트남,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북한)가 대상이다.

○ 수입감시품목

수입감시품목으로는 섬유/의류, 각종 신발류를 비롯해서 다이아몬드(대상국: 아프리카 국가들) 등이 있다.

<기존 무역규제조치 효력상실>

2004년 5월 EU 가입 전까지 폴란드는 모두 13건의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세이프가드 7건, 반덤핑 조치 6건) 반덤핑 조치는 중국, 벨라루스 등 주로 저임금 국가의 제품에 적용되었으며(대만산 Lighter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았고, 품목에 따라 중국, 우크라이나 등 저임금 국가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칼슘 카바이드, 가스 온수기, 성냥, 철강제품 등 4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EU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의 기존 무역규제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고 EU의 무역규제조치가 폴란드에 적용되게 되었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53. 관세제도

<관세체제 및 EU 가입에 따른 변화>

폴란드의 관세체제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MFN) 여부, 경제발전 정도, 자유무역협정 유무 등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분류되었다.

즉, Conventional Customs Tariffs (기본세율), Autonomic Customs Tariffs (자율세율), Preferential Customs Tariffs (특혜세율/GSP), Discounted Customs Tariffs (협정세율)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5월 1일 폴란드 등 10개국의 EU 가입과 동시에 EU와 신규 회원국간(폴란드) 관세동맹이 발효됨에 따라 EU 회원국간 무관세,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수입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즉, 폴란드 자체의 관세율은 없어지며, 이제 EU의 공동역외관세(CET)가 적용되는 것이다. 5월 1일 이전 폴란드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9.9% 였으나, EU 가입으로 평균 관세율은 EU의 3.6%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EU와 폴란드의 관세율 수준 비교 (2004. 5. 1일 이전)>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전품목평균
폴란드	33.8	18.5	9.9	15.1
EU공동관세율	16.2	12.4	3.6	6.3

자료원 : EU 집행위, Market Access Database

<EU 가입에 따른 폴란드의 주요 품목별 관세 인상/인하 내역>

인하품목	인상품목	변동 없음
TV부품 9%→0 자동차부품 15% → 3.5% 휴대전화기 9%→0 합성직물 9%→8% 소형승용차 35%→10% 화물차 35%→10% 선박엔진 10%→0	없음	기억장치 0→0 입출력장치 0→0

EU 회원국의 수입관세율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Taric code 문구 클릭
- Taric code란에 HS 번호 6자리 입력
- HS 번호를 모를 경우 Browse를 클릭, HS 번호를 찾음
- Country of Origin란에 수입대상국을 입력/클릭
- Simulation date란에 원하는 날짜 입력
- 하단의 duty rate 클릭
- 해당 국가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나타남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 6)

54. 통관절차

<개황>

상품의 수출입은 무기류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자유롭다. 그러나 Homologation이 필요한 자동차 등의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기술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 등도 마찬가지로 보건관청의 검사가 필요하다.

통관시 수입물량과 금액이 적혀 있는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상품의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해당 세관은 수입상품의 통관 후,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3년까지 수입 통관절차를 재검증할 수 있으며 만약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 세관 주도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재 폴란드 세관이 수입 통관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물량 또는 금액의 언더벨류 여부이다.

<통관조사>

수입상의 이의 신청과 세관의 조사는 Customs Code, Tax Law, Criminal-Taxation Law에 근거한다. 수입 통관의 조사 요구는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세관의 자체 판단 하에 시작할 수도 있다.

세관의 수입통관 검증에는 합법적인 수단이 모두 동원될 수 있는데, 그 예로 통관서류, 관련자 진술, 세금서류, 전문가 의견 등이다.

조사결과는 세관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끝나며 조사중간에 범법 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만약 세관의 자체 판단으로 수입상의 범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관될 수도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범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관세, 벌금 등을 내야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세관의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을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결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결정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중앙세관장에게 이관한다.

중앙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개월 동안 중앙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중앙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세관의 결정후 30일 이내에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 후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2005.6)

55. 유통구조

<유통시장 개황>

판매, 유통부문의 민영화는 중동구권 중 선두이다. 90% 이상이 민간부문에 의해 운용된다. 대부분의 상점, 점포가 해당 시 당국의 지방재정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 리스형식으로 운영된다.

전반적으로 유통구조가 선진화되는 추세이나 아직은 후진적이다. 제조업체 및 수입상, 도매상, 총판, 소매상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통구조는 부족하다. 식·음료 부문 이외에는 수입 및 도소매를 겸하는 Garage-Style의 도매업체(Hurtownia)가 난립되어 있다.

Cash & Carry(즉석 현금지불 구매) 스타일의 도매 유통 주종이다. 고 이자율에 따른 소요 자본 조달 애로, 시장상황 수시 변동, 고율의 임차료 등으로 도소매업체의 장기 안정 경영기반이 취약하다.

90년 초까지만 해도 바르샤바의 백화점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Centrum(국영) 백화점이 대표적이었으나 경제 개방화 이후 서방자본 유입에 힘입어 City Center, Panorama, Blue City, Arkadia 등 최신 백화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형 양판점>

90년 중반부터 Carrefour 등 서유럽의 대형 도소매 유통전문업체들이 바르샤바를 비롯한 폴란드의 주요 도시에 슈퍼/하이퍼마켓 등의 대형 유통점을 속속 개점하면서 소비재의 유통 상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독일의 Metro AG Group 인데 98년까지 5.4억불을 투자했고, 앞으로 6.6억불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E.Leclerc, Casino, Stinnes사들도 매장을 더 늘리기 위해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 서유럽의 업체들은 자국 내에서 시장포화, 신규 유통점 개점시의 고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폴란드가 중동구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폴란드에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다. 진출 지역도 97년까지는 바르샤바 등 대도시가 대부분이었으나 중소 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폴란드 유통시장은 서유럽에 비해 크게 뒤졌었는데 선진 유통업체가 폴란드에 진출하면서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판매상품의 품질, 유통장비, 배달 체계, 판촉, 회계 등 유통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선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의 폴란드 유통시장의 수준은 서유럽의 80년대 중반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의 폴란드 진출은 폴란드 영세 도소매업체의 생존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 90년 체제 전환 이후 폴란드에는 소형 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었는데 현재 매장 규모가 50평방미터 미만인 가게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진로가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형 양판점의 관행)

-납품 업체의 재고관리 관행

대형 유통점은 신규로 소비가 급증하는 일부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직수입을 하지 않고 폴란드에 있는 수입대행 업체로부터 "수시로", "소량씩" 공급받는다. 폴란드산의 경우는 생산 업체로부터 직접 납품 받는다. 소량의 수시 주문은 유통점의 재고 관리 필요성을 없애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따른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형 유통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창고의 규모는 매장의 1/2 수준에 불과한데 주목적은 TV 등 부피가 큰 일부 상품만을 한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납품 조건의 변경

유통업체들은 납품 상품의 품질, 가격, 포장, 납기 등에 대한 조건을 수시로 공급업체에 제시,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수출업체들은 이와 같은 유통 업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부응하기가 어렵다.

-대금 결제 수시 결제

유통점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60-90일 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소량, 수시주문에 따라 대금 결제가 잦기 때문에 관련업무를 대행해 줄 수입상이 필요하다.

-판촉 행사 지원

유통업체간의 경쟁 격화로 판촉행사가 많다. 특정 품목군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판촉행사를 수시로 한다. 판촉 행사 시에 유통점은 매장내의 특정 장소 배려, 판촉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비용을 공급업체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수입상품의 유통구조>

수출업체는 상품을 독일 함부르크를 경유하여 바르샤바 보세창고까지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품을 선편으로 독일 함부르크의 보세창고에 보내면 폴란드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 하에 독일에서 폴란드까지 육로로 운송, 통관,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수출업체는 물건을 독일 함부르크에 보내놓고 바이어로부터 잔금과 B/L을 맞바꾸면서 물건을 인도한다.

유통구조는 수입상-> 디스트리뷰터-> 도매상-> 소매상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다.

Hurtownia(자체 창고를 갖고 있는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디스트리뷰션, 도매, 소매를 모두 수행한다. 또한 이들 수입상은 원부자재를 생산공장에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영세한 생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직접 수입하지 않고 전문 수입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수입상은 수입 물량을 러시아 및 중동구권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폴란드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바이어들은 주문한 물건이 함부르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어의 경우는 선수금을 포기하게 되고, 수출업체로서는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대 폴란드 2대 수출품목인 직물의 경우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2005. 6)

56. 국제입찰제도

<입찰기관>

폴란드는 95년 1월 1일부터 GATT 및 UN, EU의 정부조달구매에 대한 국제규범에 준하는 정부조달물자 구매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조달청(Public Order Office)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물자구매 창구를 일원화했다.

조달청의 주요 업무는 건당 EURO 2만 이상의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물자 구매, 구매 방식의 결정, 조달 업무 관련 법규 제정, 계약 조건, 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규의 홍보, 조달 중재위원회위원 선정, 각료회의에 정부물자 조달업무에 대한 보고, 정부물자 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

<입찰방법>

주요 구매대상 분야는 건설, 서비스 및 물품 등으로 주로 군수물자, 건설부문, 전력부문, 통신부문, 운송장비, 사무기기 등이다. 입찰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찰 형태의 결정에 있어 EURO 2만 이상의 건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 발주자는 그 사유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해당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경쟁입찰(Open Tender)

- EURO 2만 이상의 구매건으로 경쟁입찰 대상인 경우

제한경쟁 입찰(Limited Tender)

- 구매 대상의 특성상 제한경쟁이 필요하거나, 공급가능 업체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

2단계 입찰 방식을 통한 구매

- 1단계: 공급 희망 업체로부터 가격을 제외한 프로젝트 오퍼 접수 및 심의
- 2단계: 1단계 심의에서 선정된 응찰자와 후속 협상을 통한 구매 결정으로 구분

협상 입찰(Negotiation)

- 최소 3개사 이상의 공급가능 업체와 가격을 포함한 공급조건 포괄협상을 통한 구매결정

오퍼 요청에 의한 구매

- 최소 4개사 이상의 공급 가능 업체에 가격 오퍼를 요청, 가장 싼 가격의 공급 업체 선정을 통한 구매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 EURO 2만 이하의 구매 건 또는 동일 물품 및 서비스의 반복 구매 건으로 구매액이 이전 금액보다 15% 이상 인상되지 않은 경우

<입찰 공고>

입찰에 계획은 조달청 자체 관보인 Biuletyn Zamowien Publicznych에 게재하고 금액이 높은 경우 EU 관보에도 게재한다.

<입찰자격>

폴란드 내국 공급업체나 외국 공급업체는 동등한 자격으로 응찰할 수 있다. 그러나, EURO 2만 이하의 조달 건에 대하여는 조달청이 국내 업체나 폴란드 진출 외국 공급업체로 응찰을 제한할 수 있다. 발주 건이 폴란드내 건설공사인 경우 조달청은 폴란드산 원자재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 공급업체 우대는 국제적 협약사항과 일치한다.

<입찰서류 제출 및 낙찰>

오퍼 제출 기한은 경쟁입찰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6주,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4주이며 오퍼 제출기한 이후 도착한 오퍼는 미개봉 상태에서 반송된다. 오퍼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90일까지이고, 오퍼의 변경은 불가하다.

비드 본드(Bid Bond)는 발주 총액의 1-5%로 현찰, 국가증권, 보험증권 및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한 주권으로 가능하다. 오파의 개봉 및 공표는 발주 공고에 명기된 장소 및 기일에 의거 시행한다. 발주자와 응찰자간 제출된 오파에 대한 부차적 협상은 금지된다. 낙찰자와의 공급계약 체결은 낙찰 공고 후 7일이내에 체결한다.

응찰자 모두의 응찰 가격이 입찰 예정가를 상회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예산의 확보를 시도하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유찰되어 재입찰된다.

낙찰 결정은 해당 건의 발주처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조달청은 각종 행정지원 및 전문가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기준>

대형 입찰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가격(50%), Technical Opinion(30%), 기술능력 및 경험(15%), 기타(5%) 등이다. Technical Opinion은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 금융조건, 부품현지 조달 등이다.

<이의제기>

입찰 탈락 업체가 일정 기간 이전에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의 중재소(Arbitrage Court)는 선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입찰전략>

폴란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미가입한 상태(옵저버 자격임) 이고 정부조달시장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입찰 참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폴란드의 국제입찰 관행은 "절차상의 불투명성", "평가기준 객관성 부재", "원칙없는 행정" 3가지로 요약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는 EU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EU 업체가 선정되며, 현지부품 조달비율의 평가 비중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폴란드에 생산 기반이 없는 업체의 경우, 사실상 폴란드 입찰 참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제입찰의 관례로 볼 때 대개 입찰가격 기준 1-3위 업체를 추려낸 후 발주자와 참가업체 간에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 업체를 선정하나,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사소한 오파 서류의 자구 등을 문제 삼아 오파 자체를 거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최종 낙찰 전까지 불명확한 배경의 유찰을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도 있다.

한국 업체가 폴란드 입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업체와의 동반 진출, 현지 부품 조달 비율 제고가 중요하다. 현지부품 조달비율은 공식적으로는 평가 비중이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폴란드에는 입찰 전문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폴란드 업체를 선정하여 이들 업체들과 공동의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57. 외환관리제도

<개황>

폴란드는 2000.4.12일을 기해 기존의 환율 체제인 관리 변동환율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자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변동환율제 시행 이전에는 중앙 패리티율(Central parity rate) 유지 및 상하변동폭(+/-15%)을 허용해왔다. 중앙 패리티율은 미 달러화와 유로화에 연동되어 매월 0.3%씩 주위티화가 자동 절하되는 "월간 고정 연계 절하시스템(crawling peg system)"으로서 취약한 주위티화의 실질 구매력을 환율에 잘 반영시켜온 점은 있으나 지속적인 절하로 인플레이를 자극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외환관리 부처는 재무부, 관리업무는 중앙은행에 위임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외환업무는 환율결정, 외환계정개설, 타은행 및 기관의 외환업무 감독, 대외자산 관리 등이다.

<환율정책 역사>

-90. 1월

- .신외환법 시행. ZLOTY화에 내적 태환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종전 US\$1=2,400ZL이던 공정환율을 US\$1=9,500ZL로 조정하여 실시
- .외환시장을 무역외환시장과 개인외환시장으로 이원화
- .개인, 법인이 획득한 외환 매출액은 폴란드내 외환취급 은행을 통해 의무적으로 매각
- .여행자의 의무 환전제 폐지

-91. 5월

- .대미\$ 환율을 \$1=11,000 주위티로 평가절하하고, 자국화를 미\$, DM, FRF, 파운드 및 CHF 등 5종의 주요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동

-91.10월

- .복수통화 바스켓에 대한 점진적 평가절하(Crawling-Peg) 제도를 시행하여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1.8%로 운영

-92. 2월 : 12%의 평가절하 단행

-93. 7월 : 8%의 평가절하 단행 및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1.6%로 조정

-94. 9월 :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1.5%로 조정

-94.11월 :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1.4%로 조정

-94.12월

- .신외환법 시행. 각종 거래시의 제한 철폐(자본거래는 허가제), 주위티화 대 외결제수단 가능, 내외국인 외환구좌 개설 가능

-95. 1월 : 주위티화 액면절하(1만대 1) 단행

-95. 2월 :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1.2%로 조정

-95. 5월

-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IMF8조 의무 동구최초 수행. 자유화 가속
- .일반 시중은행의 대 고객환율 자율 결정

-95.12월

- .중앙은행의 대미\$, 대DM 기준율 6% 인하
- .기업의 외환보유 허용하여 의무매각제 사실상 폐지

-96. 1월

-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1.0%로 조정
- .폴란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이동에 대한 완화

-98. 2월 :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0.8%로 조정

-98. 7월 :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0.65%로 조정

-98. 9월 : 월 평가절하 한도율을 0.5%로 조정

-99. 1월 : 통화바스켓 유로화 55%, 미화 45%로 조정

-2000.4.12 : 완전 변동환율제로 전환

2000년 이후 폴란드 주위티화는 매년 소폭 평가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주위티화의 대US\$ 평균환율(주위티화/US\$ 1)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4년 들어 주위티화가 US\$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초만 해도 US\$ 대비 주위티 환율은 3.8 - 3.9에 달했으나,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주위티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 2000년 4.35 2001년 4.09 2002년 4.08 2003년 3.89 2004년 3.65
- 2005년 5월 3.29

자료원 : 폴란드 중앙은행(NBP) 자료 등 종합 (2005.6)

58.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폴란드는 중동구 최대의 시장이다. 경제규모 (2000년 GDP 1,639 억불, 2001년 1,830억불, 2002년 1,886억불, 2003년 2,069억불, 2004년 2,422 억불)는 같은 중동구 국가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한 것보다도 크고, 한국의1/3 수준이다.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틱 3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이들 국가로 재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폴란드 시장을 범 슬라브 시장으로 확대하여 실제 인구는 39백만 명이나 1억의 시장으로 보기도 한다.

중동구 최대의 인구와 면적, 동.서유럽 사이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잇점, 과감한 제도 개혁 등으로 중동구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적인 수입 시장 규모는 2002년 551억불, 2003년 680억불 수준이지만 추가적으로 서쪽의 독일 접경지대와 동쪽의 구 소련 위성국가(CIS)를 상대로 한 불법국경 무역액도 100억불 이상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수입시장은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위주이다. 전기·전자, 기계 및 엔지니어링 제품을 중심으로 한 설비류와 원부자재 수입이 총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폴란드의 대외교역은 국가별, 지역별, 경제권별 의존도가 편중되어 있다. 총 교역액의 70% 정도가 EU 국가와의 거래이다. 개별 국가로는 독일이 최대이다. 2003년도 기준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은 3억 8,200만 달러 수준이다.

<시장특성>

○ 가격에 민감

폴란드 소비자들의 최우선 구매 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1인당 GDP가 2003년 US\$ 5,418, 2004년 US\$ 6,345 로써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품질에 대해서는 기본 기능을 중시하며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비싼 제품을 구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소비자들은 근검, 절약이 습관화될 수밖에 없으며 서방의 수입품이 많이 있는 백화점 및 상점에서도 최소의 경비로 우선 순위에 따른 필수품만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회보장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제 생활의 질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 광고의 중요성 제고

그동안 경시되던 광고가 판촉 전략에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광고수단은 TV, 라디오, 인쇄매체, 옥외 광고판 등이다. TV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상표들은 브랜드 제품으로 평가된다.

인근 독일 등 서구와의 빈번한 교류, 특히 위성 TV수신을 통한 서구 소비문화에 대한 높은 인지도 때문에 저렴하면서 패션과 품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품이 구매대상이 되고 있다.

○ 구매패턴의 변화 추세

소비자 구매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체제전환 이후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중산층 감소로 시장수요가 이원화되고 있다. 고소득층은 EU산 등의 고급 브랜드 위주로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가격위주로 구매한다.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점차 브랜드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다. 중산층이 미약하나 94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약 5% 정도의 인구는 부유층에 속하는데 이들이 개방 이후 고가 사치품의 주 소비층이다.

○ 구매 시즌

전통적, 종교적인 행사 등의 특수는 따로 없다. 일반 공산품 및 원부자재는 특정 구매 시즌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3-5월에 비교적 구매가 많다. 선물용품 등의 일반소비재는 크리스마스 때 구매가 가장 왕성하고 1-2월의 연초가 가장 저조하다.

○ 유통구조

일반적인 수입 상품의 유통구조는 수입상→ 디스트리뷰터→ 도매상→ 소매상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다. 수입상이 도소매업을 겸하는 Hurtownia (자체 창고를 갖고 있는 도매상)가 수입, 디스트리뷰션, 도매, 소매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 품목은 전기.기계제품, 화학제품, 연료 및 에너지, 경공업품, 식품가공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이 많은 것은 서방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내 외자기업들의 부품.설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판매, 유통부문의 민영화 수준은 중동구권 중 선두이다. 90% 이상이 민간 부문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경쟁시장 체제가 정착되었다. 많은 상점은 소유주인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임대, 리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시장경기를 무시하고 고율의 임대료를 책정하기도 하여 민간 소매업자의 경영기반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신용장 거래 많지 않다

신용거래 체제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자본형성이 미미한 영세상이 다수이며 소량 다품종 주문이 일반적이다. 결제방식은 신용장 베이스가 아닌 D/A, D/P, COD 거래 등이 대부분이다. 신용장 개설시 거래은행에서 110%의 현금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는 드물다.

○ 불법적 거래에 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법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수입관세 및 부가세(22%) 포탈을 위해 이면계약이 성행하고 Invoice가격의 10% - 90% Undervalue를 요구하는 바이어가 많다. 한국산의 경우 EU산 보다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바이어의 언더 밸류 요구가 특히 더 많다.

불법 또는 변칙 수입, 즉 완제품의 극히 일부만 분해하여 부품으로 수입하여 관세절감, 접경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한 무관세 수입 등의 회색 마켓(Grey Market)이 성행하고 있다.

○ 서구 선진국의 조립생산기지

서유럽 등 선진국의 조립생산 기지이다. 저임의 고학력에다 완제품 관세율 보다 반제품의 관세율이 낮고 인근 EU 및 러시아시장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59.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문화적 금기사항>

카톨릭, 교황에 대해 농담을 하면 실례를 범하는 것이 된다. 3국 분할과 공산주의 시대에 국민통합이 카톨릭에 바탕을 두었고 교황 바오로 2세를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카톨릭의 영향력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강한 나라이므로 종교적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피해의식이 있어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산주의 때문에 경제 발전이 서유럽에 비해 크게 뒤졌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도 삼가 해야 한다.

공산주의라는 고정관념 하에서 체제를 논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체제에 대한 대화시에는 서유럽식의 사회주의 개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95~1918의 3국 분할 시기에 지도에서 폴란드가 사라졌던 뼈 아픈 과거사로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당시 유럽 지도에서는 사라졌어도 민족문화의 보호, 영광된 과거의 회상, 카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인간성 등의 자유 정신에 입각한 구국정신이 바탕이 되어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는 자존심이 강하다.

<수입관행>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주류 일부 및 원료, 담배, 원유, 디젤 연료 등 특수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시 운송서류 및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HOMOLOGATION이 필요한 일부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 의약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수출업체가 물건을 선편으로 독일 함부르크의 보세창고에 보내면 폴란드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일에서 폴란드까지 육로로 운송 및 통관하여 인수하는 방법을 취한다. 수출업체는 물건을 독일 함부르크에 보내놓고 바이어로부터 수입잔금과 B/L을 맞바꾸면서 물건을 인도한다.

수입상품의 유통구조는 수입상-> 디스트리뷰터-> 도매상-> 소매상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다. Hurtownia(자체 창고를 갖고 있는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디스트리뷰션, 도매, 소매를 모두 수행한다. 또한 이들 수입상은 원부자재를 생산공장에 직접 공급한다. 또한 이들은 수입상품을 러시아 및 동구권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L/C 거래를 회피한다. 수입상의 자본력 부족, 은행의 보수적인 관행, 세금 회피 등 때문에 L/C 방식 보다는 T/T 또는 직접 방한 구매를 선호한다. 은행자금 활용이 어렵고(고율의 이자, 과다 담보 요구) 바이어의 자본력 취약으로 외상거래(D/P, D/A)를 빈번히 요청한다. 스톡 구매 방식을 선호한다. 국내시장의 불안정, 장기 주문 생산에 필요한 자금력 부족, 소량 다품종구매 등의 이유로 스톡 수입방식이 성행한다. 디자인, 패션 등 소비 행태가 자주 바뀌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이에 해당된다.

탈세. 절세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일부 나타난다. UNDER-VALUE된 INVOICE요구도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지 시장 마케팅 수행에 애로요인이다.

고정 바이어 확보가 어렵다. 시황에 따라 수입대상품목 변경이 빈번하고, 신규 회사 설립과 폐업이 잦기 때문이다. 바이어들은 주문한 물건이 함부르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어의 경우는 선수금을 포기하게 되고, 수출업체로서는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 시황에 따른 부화뇌동식 주문이 많다. 특히 계절 품목의 경우 수요 급감시 대금 지급 거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는 위험하다.

<거래시 유의사항>

폴란드 시장은 서구에 비해 그렇게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다. 따라서 폴란드 기업인들과 교역을 추진할 경우 미리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정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구매자와 직접적이고도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의 상당수는 INVOICE 가격을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UNDER VALUE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은 수입 후 딜러에게 제품을 넘길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변칙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면식을 쌓을 수 있는데 거래 가능성이 있는 폴란드 기업을 미리 선정,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기 2-3개월전에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 계획이나 전시품목 샘플을 미리 보내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폴란드의 서쪽 지방 도시인 포츠난을 중심으로 국제 전문 전시회 개최가 많다.

폴란드 기업인들은 보통 제품의 기술 및 품질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거나 다루기 어렵거나 하면 반응이 냉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소이다. 또한 납기일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일단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시장에 장기적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계류 등의 품목인 경우 필수적으로 A/S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제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진출 초기단계에서는 현지실정에 밝은 에이전트의 활용이 권장되나 과거의 거래관계 없이 에이전트부터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간의 거래로 신뢰성을 쌓은 다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에이전트로 지정 받고서 수입자금 동원능력의 부족으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구조의 낙후 및 금융비용이 높아 수입상들은 대금의 일부 지급 후 상품 도착 후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거래규모가 커질 경우 에이전트 활용또는 직접 현지법인 진출을 통한 현지시장 직접관리가 필요하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소량 다품종 주문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1개 컨테이너(20FT CONTAINER)이면 비교적 많은 수량이라고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에티켓>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은 폴란드를 "동부유럽 국가(Eastern Europe)"로 호칭하고 있으나 폴란드 국민들은 "중부유럽 국가(Central Europe)"로 불리워지기를 선호한다. 폴란드인의 "중부유럽"의 개념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고, "동부유럽"에 대한 개념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폴란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발트 3국, 백러시아, 우트라이나, 러시아 등 폴란드 보다 못사는 나라이다.

폴란드를 방문할 경우 3월-6월초, 9월에서 11월 사이가 적합하다. 7-8월은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참가하는게 좋다. 폴란드인들의 평균적인 휴가 일수는 연간 30-40일로 긴 편이다.

말이나 행동에 실례를 범치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폴란드에서는 인사를 하거나 작별을 할 때 항상 악수를 나눈다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여성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도 여전히 통용된다. 명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장소에 안 나타나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시는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10-15분 정도 늦는 것은 크게 문제시 삼지 않는다. 그러나 15분 이상 지나면 기다리지 않는다.

아직도 일부의 비즈니스 맨들은 공산주의체제의 영향 및 슬라브적인 느슨한 기질의 영향으로 무책임하게 약속하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서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폴란드인은 솔직하고 정적이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상담에 임하는 폴란드 기업인들은 영어 구사가 서투르며 오히려 러시아어, 독어, 불어 등을 구사하는 이들이 많다.

폴란드어를 약간씩 구사하거나 폴란드가 배출한 세계적 인사들에 대해 말하면 화기애애하게 상담할 수 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로는 코페르니쿠스(지동설, "지구는 돈다"), 쇼팽 (피아노의 시인), 퀴리부인(노벨 물리상, 화학상),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언급하면 좋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데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독특한 판촉용품 등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선물은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인상을 각인시켜 놓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폴란드측 상대방을 점심이나 저녁에 초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또한 유익하다. 가볍게 한담을 나눌 때는 가정사를 포함, 다양한 소재가 화제로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사안은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상담시 유의사항>

무역을 대행하는 무역회사 보다 제조업체를 선호하므로 제조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폴란드 업체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제조업 마인드 보다는 트레이딩 마인드이다. 수입상 자신들이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의 공급업체도 단순

무역상은 기피하고, 대신 제조 업체와 직거래하기를 희망한다. 동부 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지도를 보면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COCOM (Coordination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대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 시기에도 폴란드는 서방의 물품을 확보해 공산권에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90년 폴란드가 개방된 이후는 이와 같은 중개 또는 중계 무역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폴란드의 주요 수입상들은 수입상품을 바로 인근 동방 국가에 전매하거나 수입원료로 폴란드에서 가공된 상품을 인근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타 유럽에 비해서도 폴란드 수입상들의 이같은 제조업체 선호는 더욱 심하다.

구체적인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불조건에 관해서 합의해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 대부분은 10-30%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COD 조건을 주장한다. L/C 개설만 고집하면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는 동구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간 20%대의 은행금리와 L/C 개설시 은행이 110%의 현금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후 인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항공 딜리버리인 경우 50% 선금, 50% 선적 직전 지불 정도의 조건이면 위험 부담이 없는 편이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나갈 때 단 한 번에 끝장내려 서두르지 말고 여러 번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폴란드측 파트너는 매우 철저히 준비해 협상에 임하는 편이다. 따라서 뛰어난 업무지식과 능숙한 상인 기질을 갖추고 있다면 호감을 사게 되며 협상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인들도 타고난 장사꾼임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예기치 않게 상대방으로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공세에도 효과적으로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폴란드 시장에 여타 경쟁사 제품이 아직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미 정보를 파악해 협상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됐든 이들과는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편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한편 생산제휴를 제안했을 경우 외면하지 않고 지불 방식에서도 외상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협상이 쉽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2005. 6)

60.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매력도>

구소연방(CIS) 및 서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사적, 상업적 중심지이다. 지리적으로 서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에 따라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유럽, 중동유럽 및 구소연방 국가와 역사적 긴밀성이 강하며 공동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중동구권 국가중 상권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인근국으로의 시장 확대가 용이하다.

폴란드는 대EU 진출기지로써 유망시 된다. 92년 3월 EU 준회원국이 된데 이어 2004년 5월 1일에는 EU에 정식 가입하여 폴란드를 통한 EU 진출이 용이하다.

폴란드는 중동구 최대의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312,683평방Km) 와 인구 (38.5백만명)면에서 중동구 최대이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석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철광석, 석탄, 동, 아연, 은, 유황, 목재 등이 풍부하다.

중동구권 최초의 플러스 경제성장 및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폴란드는 중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92년도에 +2.6%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0년도에도 GDP가 4% 증가하였다. 2001년 및 2002년 경제성장이 연속으로 1% 대를 기록하여 다소 주춤하였으나, 2003년 3.8% 성장을 기록하여 회복세로 돌아섰고 2004년 5월 EU 가입을 계기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5.8% 경제성장 전망)

비교적 저렴한 숙련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학 석사과정까지 교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고급인력도 많다.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숙련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다. 노동생산성도 상승 추세이다.

과거에는 저렴한 노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요인이었으나, 현재는 EU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투자 유치 방안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다. 투자 유치와 국영기업의 경쟁력 회복이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국영통신회사(TPSA)의 지분매각 40억불을 포함 총 46억불의 민영화 수입을 올렸으며, 2001년도에도 발전소 등 전력분야, 국영항공사인 LOT, 비료, 화학공장, 광산, 제철소등 대규모 기업 뿐만 아니라 국영 중소기업 200개의 민영화 등을 포함해 약 41억불의 수입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과 관련 정부(국고부)가 EU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해 두고 있다.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서방의 대폴란드 지원강화에 힘입어 91년도에 0.23 백만불에 불과했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서 2003년 말까지 FDI 누계액은 727 억불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년도 투자 유치액 2000년 106억불, 2001년 71억불, 2002년 61억불, 2003년 64억)

폴란드화(주오티화)의 태환성은 확보되어 있다. 폴란드화는 개방 초기 내적 태환성 (폴란드 내 시중 환전소에서 경화화 교환)이 부여되었으며 95년 1월 개정 외환관리법 시행 결과, IMF로부터 95년 5월 말 주오티화의 폴란드내에서의 경상계정 거래에 대한 태환성을 승인한 바 있다. 아울러 2000.4월 부터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외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경제특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폴란드 정부의 94년 투자세 감면조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폴란드내에 있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국영기업, 협동기업 등이 폴란드에 투자할 경우와, 생산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인세를 감면이 있다.

(수출의 경우)

연간 수출금액이 8백만 ECU이거나 총 매출액의 50% 이상 수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40% (98년 35%, 99년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법인 이익률이 8% (식품가공 및 건설의 경우 4%)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의 경우)

면허, 특허, R&D, 건설, 운송장비 부분의 투자를 위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한 납세자로 사업 개시 전 투자금액이 2백만 ECU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20%까지 (98년 15%, 99년 10%) 당해 연도와 추가 3년간 투자금액이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감면된다.

(경제특구)

현재 폴란드 경제특구는 총 14개로 Mielec(바르샤바의 남부), Suwalk(바르샤바 북동부), Katowice(바르샤바의 남서부), Lodz(바르샤바 서남부) 등이 있다.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Mielec 와 Katowice의 입주사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단, 폴란드가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여 특구에 대한 특혜조치가 축소되었다.

<경제특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 (2005년 6월 현재)>

○법인세 면제

- SEZ내 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소득 관련 법인세 면제는 'Act on SEZs' 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지역 지원(regional aid)으로 간주

○국가 지원액 (Amount of admissible state aid)

- 폴란드의 각 지역에 주어진 투자비용 대비 최대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별 지원율

▶ 크라쿠프(크라쿠프 SEZ의 일부), 브로츠와프 및 그단스크-소포트-그디니아: 40%

▶ 바르샤바, 포즈난: 30%

▶ 여타 지역: 50%

- 상기 지원율 50%는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지원의 형태는 세금(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임

○SEZ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 지원(regional aid)의 형태

-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 SEZ 입주기업은 요건 충족시 보조금과 조세 혜택을 모두 수혜 가능

○조세 혜택 산출방식

- 지원액은 투자비용의 액수, 성격 및 구조에 달려있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액 결정을 위해 적격비용(qualifying costs) 산출 필요

- 적격 비용은 토지, 건물, 시설 장비 구입 등과 관련한 지출을 포함

- 법인세 면제의 예

(예) 지원율 50%의 SEZ내 총 투자비용이 100만불이고 이것이 모두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만불이 지원액(세금 면제) 산출의 근거가 되며, 지원율 50% 이므로 세금 면제 형태로 50만불 (50% x 100만불)의 regional aid를 받게 됨.

면제 소득액(amount of tax-exempted income)은 지원액을 법인세율 19%로 나눈 2,631,579불 임 (= 50만불/19%)

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장사항은 100% 과실송금, 고정자산의 실물투자에 대한 관세 면제, 국유화의 경우 손실 보전, 기업 청산에 의한 자금 및 주식 매각대금의 송금 보장 등이 있다. 1977년 OECD의 Model Covenant에 따라 2000년말 현재 한국을 비롯한 70개국과 투자보장 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EU 가입추진과 관련, EU의 강력한 견제에 의해 폴란드내 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SEZ) 입주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조세면제 등과 같은 특혜조치가 축소되고 있다.

EU의 요구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입주기업들에게 투자액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특정지역에 투자한 고용인수 250명 미만,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40백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폴란드는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전면 자유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오고 있어 외국인 투자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었다. 특히, 99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이 일부 남아 있는 분야가 있다. 방송부문은 외국인 출자지분이 33%로 제한되어 있고, 공항 및 항구의 경영, 부동산 중개업, 방위 산업, 수입 소비재의 도매업, 변호사업, 민영화된 국유재산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앙은행 및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항공운송 및 해운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내국기업 및 외국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가 없다. 또한 폴란드 합작투자 파트너의 재정, 채무 등에 대한 정부보증제도가 미미하고 투자진출 기자재 반입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부여 조치가 없이 폴란드 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기업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폴란드의 기업문화 및 기업 경영기법에 익숙치 못한 외국기업의 경우 폴란드 기업의 절세/ 탈세방법, 비정상적이며 변칙적인 상관행 등을 따라갈 수 없다. 특히, 세제 등 주요 법규의 변경 및 난해성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경우 정확한 현실 파악이 어렵다. 법인세 감면/면제 등의 경우에도 적용 조건에 있어 투자기업과 폴란드 기업이 동일하다.

세제 혜택이 있는 경제특구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률이 높고 기간 산업시설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 후 생산활동이 매우 어렵다. 또한 세제 혜택 이외에는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다. 폴란드의 경제 특구 운영에 대해 EU는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하면서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자체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합작투자등 한국기업의 자본 차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나 현지 상관습을 철저히 파악치 않고 무리하게 진출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의 합작투자등을 통한 성급한 진출보다는 소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현지 시장 파악 후 점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란드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코자 하는 이유는 산업의 전반적 침체, 기술수준의 낙후, 설비대체의 미흡 등 산적한 문제는 많으나 소요외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외국인 투자로서 대체코자 하는 의도 때문인 점을 투자 진출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체의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입법은 제정되었지만 개혁입법이 순탄히 적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분야를 선택하고, 폴란드의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이다.

관세(EU 가입으로 EU 수준으로 낮아짐), 부가세, 특소세 등이 고율로 책정되어 있고 관련 법규의 잦은 변경으로 투자기업은 장기경영계획 수립 운영이 곤란하다. 이에 기업의 성패가 절세 내지 탈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합법적, 탈법적으로 해낼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개인 소득세 역시 소득액 정도에 따라 19%, 30% 에서 4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율이 급여의 약 50%에 달하여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2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불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통관, 세금누락판매 등이 중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성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이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정상 조세 납부에 따른 경쟁력 및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부품산업의 미성숙으로 일정 품질에 달하는 부품 및 자재조달이 어려워 조립생산 방식 등에 의한 원가절감 정책 추진이 용이치 않다. 또한 재수출에 따른 수출지원 제도가 미비하고, 관세환급제도 미 정착으로 원자재 수입을 통한 가공수출시 경쟁력 저하도 예상된다.

자국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자국기업의 참여가 장려되는데 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식품산업(케이크,조미료,다이어트 식품 및 담배 등을 포함)
- 직물, 의류 및 가죽산업(의류 및 의류 부자재 제조업)
- 목제품 및 종이산업
- 인쇄산업(건축용 목제품 및 포장재료 포함)
- 화학산업(염료,페인트,바니쉬,의약품,고무,프라스틱제품 포함)
- 비금속 광물 제품 산업(판유리,유리병,세라믹 가정용품,세라믹 절연체 등)
- 엔지니어링 산업
(CUTLERY,철판,와이어 및 ROD,비행기,자동차용 이외의, 엔진과 터빈,가정용품,조명기구, 전기 분배 및 조절 기구,절연 와이어 및 컨덕터,다이오드,전구 및 기타 전자부품, 의료기기,시험기기, 계측 및 항해 장치,산업용 통제 장치,차량,차량엔진 및 그 부품 등)
- 가구, 게임기 및 완구 산업 등이 그 예이다.

일부 산업분야의 경우 특정 외국업체에 독점권을 주고 있어 신규 진출이 불가하다.
통신산업이 대표적인데 폴란드는 지난 93년 AT&T, SIEMENS, ALCATEL 등 3사를 통신사업의 공식공급업체로 지정하여 독점 공급권을 주고 있어 통신분야의 현지투자진출이 매우어렵다.

외국인 투자에 따른 세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헝가리 등 인근 중중동구 권에 비해 미흡하여 시장규모, 생산기지로서의 지리적 장점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산업,제조부문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향후 획기적인 투자혜택이 없는 한 투자는 주로 소비부문에 계속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폴란드내 합작투자나 단독투자의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야는 공항 및 항구의 경영, 부동산 중개업, 국방산업, 수입 소비재의 도매업, 변호사업 등이다. 또한,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나 공히 은행 및 보험회사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경우 각각 중앙은행 및 재무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자 허가는 필요치 않더라도 투자기업은 폴란드 업체와 동일하게 환경보호 및 작업안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조사 (2005.6)

61. 투자유치정책

폴란드는 외국인투자가 경제발전에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등 인센티브 부여, 법인세율 인하, 경제특구 설치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펴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정보 제공 및 협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청(PAIIIZ; Polish Information & Foreign Investment Agency)을 설치해 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

(1) 보조금 (Grants)

1) 근거법령 : Law on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2002.3.20)

2) 지원대상 기업 :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투자기업

- 최소 1,000만 유로의 투자
- 투자가 기업의 발전이나 현대화와 관계되고 5년간 최소 1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소 50만 유로의 투자
- 최소 5년 동안 적어도 2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 기술적인 혁신을 도입하는 투자
-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투자
- 산업단지 또는 기술단지 안에서의 투자

3) 지원사항

- 투자 보조금(investment grant) : 하기 지역별 최대 지원율의 50%까지 투자비용을 보조

- 지역별 최대지원율(Maximum admissible intensity of regional aid)

▶ 바르샤바, 포즈난 : 30%

▶ 그단스크-소포트-그디니아, 브로츠와프, 크라쿠프 : 40%

▶ 여타 지역 : 50%

○ 고용보조금(employment grant):신규일자리 1개당 4천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범위에서 지원

4) 대형 투자프로젝트(투자비 5천만 유로 이상)에 대한 지원액 산출식

○ 최대지원액 = $R \times (5\text{천만} + 0.50B + 0.34C)$

R : 해당지역에 대한 최대 지원 율 (maximum aid intensity)

B : 5천만 - 1억유로 사이의 적격 비용 (qualifying expenditure)

C :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적격 비용

5) 적격 투자비용 (Qualifying expenditure)

○ 토지 구입비용

○ 고정자산의 구입비용 (건물, 기계 및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 중고 고정자산 구입비용

○ 무형자산 구입비용

○ 고정자산 설치비용

○ 원료 구입 및 건설작업 비용 등

6) 보조금 지원 절차

○ 매년 3월 - 6월중 경제 담당 부서에 신청

○ 경제 담당 부서는 관련 위원회(Committee for Financial Support to Entrepreneurs)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결정시 투자가와 담당부서간 계약 체결

(2) 경제특별구역의 조세 혜택 (Tax incentives in SEZ)

1) 법인세 면제

○ SEZ내 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소득 관련 법인세 면제는 'Act on SEZs' 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지역 지원(regional aid)으로 간주

2) 허용가능 국가지원액 (Amount of admissible state aid)

○ 폴란드의 각 지역에 주어진 투자비용 대비 최대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별 지원율

▶ 크라쿠프(크라쿠프 SEZ의 일부), 브로츠와프 및 그단스크-소포트-그디니아: 40%

▶ 바르샤바, 포즈난: 30%

▶ 여타 지역: 50%

○ 상기 지원율 50%는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지원 형태는 대부분 조세 감면임

3) 신규 투자 프로젝트 지원 (Regional aid for investment projects)

- 지원액은 투자비용의 액수, 성격 및 구조에 달려있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액 결정을 위해 적격비용(qualifying costs) 산출 필요
- 적격 비용은 토지, 건물, 시설 장비 구입 등과 관련한 지출을 포함
- 지원 형태 : 법인세 면제

4) 현재 폴란드 전역에는 14개의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음

<투자유치 기구>

97년 2월 설립된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이 있다.

PAIIIZ는 국고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Joint Stock Company이다. PAIIIZ는 경제부, 재정부, 국고부, 외무부 및 농업부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며, PAIIIZ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는 상기 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단일화를 위한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외국인의 자국내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투자기회, 시장정보, 투자 대상 기업 리스트, 노동력 수급 정보, 투자 인센티브, 조세제도 및 투자관련 법규 등의 정보 제공 및 투자상담,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 정부 건의, 투자 희망 외국업체의 출장시 투자조사 지원 및 관계 당국과의 협의 알선 등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혜택 정책은 중앙정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은 지방의 산업 및 입지를 소개하는 홍보와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센터인 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운영에 한정되어 있다.

폴란드 주요 도시에는 지역의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90년부터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운영되기 시작하여 현재 50여개에 달한다. 일부 RDA는 해당 지방 정부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없이 투자 타당성 조사 수입으로 운영된다.

RDA의 주 기능은 지방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잠재 투자자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투자타당성 조사대행, 투자자와 지방정부와의 연결, 합작투자자 물색, 투자시 부동산 취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62. 외국인투자제한

폴란드는 90년 개방 이후부터 민영화와 연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분야의 제도 개선과 함께 꾸준한 개방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96년 OECD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상의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이 남아 있는 분야가 일부 있다. 방송부문은 외국인 출자지분이 33%로 제한되어 있고, 공항 및 항구의 경영, 부동산 중개업, 방위 산업, 수입 소비재의 도매업, 변호사업, 민영화된 국유 재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앙은행 및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항공운송 및 해운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49%로 제한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민영화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 폴란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외국인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폴란드 투자 유치청(PAIZ) 발간 “Poland How to do Business” (2005. 6)

63. 투자진출절차

현지투자법인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폴란드 약어 Sp.zo.o)와 주식회사(Joint Stock/폴란드 약어 S.A.)로 나뉘는데 설립 절차는 동일하다. 은행, 보험, 부동산 중개, 항구, 공항 운영 등을 위한 회사 설립 시에는 관련 부처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은 최소 50 천 즈워티(U\$ 12,500/1달러=4.0PLN 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조직은 투자자 총회와 이사회로 나뉘며 감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사회의 구성인원은 1인 이상으로서 정관에서 정한다. 이사와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투자자 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 총회의 결재를 받은 후 2주내에 경제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본금이 25천 즈워티 이상의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자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개인인 경우 여권 이외에 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금이 미화 5천불 이상인 경우 입국시 외환신고가 필요하다.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폴란드 회사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폴란드에서 직접회사를 설립할 사람의 위임장을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폴란드어로 준비해야 한다. 폴란드에서 준비할 서류는 회사설립 신청서, 정관, 자본금 확보 확인서, 외환신고서, 투자자 명단 등이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500천 즈워티 이상이며, 등록시 자본금의 5%를 지방법원에 등록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의 설립자가 서명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항목은 회사명, 설립지, 회사의 활동범위, 회사의 활동기간, 자본금의 액수, 확보방법, 주식의 액면가와 수량, 회사의 경영기관과 감사기관 등이다.

이사회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 이하이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확인, 부동산 처분,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주 총회 2주전부터 주주의 요구에 따라 주주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재를 받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2주내에 경제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한다.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전 준비할 서류는 유한책임회사와 같다. 폴란드에서 준비할 서류는 회사설립 신청서, 정관, 주식배분표, 이사회의 자본금 확보 확인서, 회사 조직표 및 임원명단 등이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 신고

-관련 기관은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이다.

-별도의 신청 양식은 없으며 투자 모회사의 법인형태, 재무구조, 영업 활동(모든 해외의 영업활동 대상국을 포함해야 함)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폴란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폴란드 회사에 대한 상기 항목의 세부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25백만EUR0가 넘는 회사가 폴란드 법인의 지분을 25%이상 인수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비용은 없다.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

-관련 기관은 공증 사무소이다.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시에도 공증이 있어야 한다.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위임자를 통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공증 사무소의 공증 검토 기간은 4주이며 수수료는 230불이다.

법원 등록

-관련 기관은 지역 법원이다.

-공증 받은 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한다.

-준비 서류는 이사회의 법인 설립 결의서, 공증된 정관, 조직 및 이사회위원 내역, 이사회 위원 서명 사본, 자본금 납입 및 지분내역, 폴란드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Office의 승인서, 신문 공고 등이다.

REGON 번호 취득

- 관련 기관은 지역 통계청이다.
- 통계청 관리의 번호이다.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다.
- 통계청의 RG-1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 단계의 기관에서 받은 승인서 등과 함께 통계청에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2일이며 비용은 없다.

경제부 신고

- 관련 기관은 폴란드 경제부이다.
- 법원에서 받은 회사 등록 확인 서류와 등록 번호, REGON 번호, 정관 등의 사본을 경제부에 제출한다. 허가사항은 아니며 단지 신고만 하는 것으로 비용은 무료이다.

은행구좌 개설

- 관련 기관은 외국환은행이다.
- 은행의 구좌 개설 신청서, 경제 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회사 정관 등을 제출한다. 구좌 개설 신청서 이외에는 원본을 제시한 후 회수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1주 정도이고 비용은 없다.

납세번호 취득

- 관련 기관은 지역 세무소이다.
- 세무소의 신청서, 경제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은행구좌번호, 사무실 매입 및 임차서류 등을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3주 정도이며 비용은 40 주오티(US\$11)이다.

자료원 : 폴란드 투자유치청(PAIZ), "Poland How to do business", 2005.6

64.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Representative Office는 Branch Office, Technical Information Office로 나뉘어지는데 설립 절차는 동일하다.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필요 경비(사무실 임대료, 급여 등)는 모기업에서 은행을 통해 지급 받는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정관,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사무소가 폴란드 법을 따를 것이라고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이다. 한국에서 준비된 위 서류들은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인 번역사에 의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바로 폴란드어로 번역할 공인번역사가 없는 관계로 먼저 영어로 번역한 후 그것을 다시 폴란드에서 공인 번역사에 의해 폴란드로 번역해야 한다.

폴란드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무소 설립 신청서인데 별도의 양식은 없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자료 작성이 폴란드어이기 때문에 현지 법률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설립절차>

경제 활동 승인서 취득

- 관련 기관은 폴란드 경제부이다.
- 필요한 서류는 사무소 설립 신청서와 해당국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본사 대표의 위임장이다.
- 신청서는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 형식으로 쓰되 폴란드어로 작성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것을 공인 번역사에 의해 폴란드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내용은 회사 소개, 현재까지 폴란드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주요 폴란드 거래선, 사무소 설립 배경, 개소 지역 등을 기재한다.
- 본사 사장의 위임장에는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한다는 계획과 폴란드 현지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 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여 폴란드 경제부에 제출하면 6주 내에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 기간은 2년이고, 기간 만료 시 다시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등록비는 3천 주워티이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 3천 주워티가 추가된다.

REGON 번호 취득

- 관련 기관은 지역 통계청이다.
- REGON은 통계청 관리의 번호인데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다.
- 통계청의 RG-1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제부의 경제 활동 승인서와 함께 통계청에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2일이며 비용은 없다.

은행구좌 개설

- 관련 기관은 외국환은행이다.
- 구좌 개설 신청서와 경제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회사 정관 등을 제출한다. 구좌 개설 신청서 이외에는 원본을 제시한 후 회수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1주 정도이고 비용은 없다.

납세번호 취득

- 관련 기관은 지역 세무서이다.
- 세무소의 신청서와 경제 활동 승인서, REGON 번호 확인서, 은행구좌번호를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한다. 소요기간은 3주 정도이며 비용은 40 PLN(US\$11)이다.

65. 공장설립

<부동산 취득 방법>

(부동산 취득의 일반적인 규정)

폴란드 법령에 의거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 . 자연인에 의해 영구사용권 부여된 부동산
- . 경제주체(법인, 자연인)에 의해 소유된 부동산
- . 국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된 부동산

부동산 취득은 소유권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구입계약(자유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으로부터 지방자치체의 입찰매각까지 소유권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 취득을 위한 모든 거래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각정보는 신문광고와 언론 광고,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매각대상 부동산 리스트 등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매매중개소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취득)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취득은 자치단체위원회의 적절한 결의에 의해 규정된다. 국고부 또는 자치체 소유의 부동산은 자치정부의 집행부(executive board)에 의해 공표된 입찰로 영구 사용권의 형태로 매각되거나 양도된다. 입찰은 매각대상 국고부 또는 자치체 부동산 리스트가 공표된후 6주후에 실시된다. 입찰결과는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계약을 맺을시 기초가 된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

법에 의하면 외국인(또는 외국기업)의 정의는 하기와 같다.

- 폴란드 시민이 아닌 자연인
- 등록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 폴란드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며 동 법인이 상기의 조항에 의해직간접으로 지배될 때

적어도 상기 조항의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 회사지분의 50%를 소유할 때 외국인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경우 내무행정부(사회행정부서)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폴란드 시민권을 획득한 이중 시민권자(Dual Citizenship)는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는 하기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주소 등)
-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동산 종류, 장소, 지역, 지번, 등기번호 등)
- 부동산 취득형태에 대한 정보(매각, 증여, 교환, 기부 등)
- 구입 목적

또한 신청자는 폴란드와의 인과관계를 규정해야 하며 폴란드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폴란드 출생 증명서, 결혼에 의한 폴란드 시민권 획득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거나 계획이 있는 자는 그러한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주주에 대한 정보 등)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소재 지자체당국의 승인서류를 가지고있으면 도움이 된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자의 서면동의는 매매시 필수적이다. 허가증 발급비용은 부동산 확정금액 인지대의 1%이다. (상속과 같은 경우는 동비용이 없다) 입찰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내무장관에 의해 발급된 허가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가지 방법으로 내무장관에 의해 발급된 허가서약(Permit promise) -신청자가 낙찰되면 허가를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응찰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발급비용은 무료) 이와는 별도로 내무장관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국고부의 농업 자산국에 의해 관리되는 부동산은 국가소유의 농장으로 사용되었던 토지에 한해 외국인에게 임차할 수 있다. 허가증은 임차로 인한 차지(借地)인이 폴란드인이 아닐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외국인인 경우 실업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태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특수목적의 생산(온실에서 의 원예, 과일 재배 등)을 시작하거나, 새기술 도입을 확산시킬 때 허가를 해준다. 국고부 농업자산국은 토지임차의 최적기간을 5-30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임차기간은 경제활동에 의해 좌우되는데 대부분 투자액 회수기간이다.

<자산구입을 위한 허가획득 절차>

서류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입자 이름, 출생지, 국적, 집주소, 전화, 팩스번호
- 매각자 이름: 회사 또는 기관명, 대표 이름 및 집주소, 전화, 팩스번호
- 구입한 자산의 자세한 명세: 주소, 지역, 자산의 종류(부동산 등기부, 부속토지 등을 고려)
- 자산구입의 법적 형태: 매각계약, 기부계약, 임차계약, 교환계약, 영구임차인 임명 등
- 신청자와 폴란드간의 인과 관계: 폴란드 태생 또는 국적, 영주, 폴란드 국적의 배우자 등
- 자산구입 동기 및 면적 등

다음 서류는 상기의 신청서에 동봉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규정임)

- 신청자와 폴란드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출생증명서, 폴란드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폴란드 시민과 결혼한 증명서, 영주카드 등
- 신청자의 이익을 위한 자산의 매각임을 나타내는 서면 신고서, 매각 양식과 매각가격
- 매각 자산의 등기부 초본
- 토지 등기부 초본 및 토지에 대한 정보
- 공인 전문가가 작성한 매각 자산의 견적가(폴란드 통화로 표시)
- 신청자에 의해 작성된 대리인 문서 위임장
- 신청서용 인지대 15,000Pln 및 동봉된 서류용 인지대 각 1,500Pln

폴란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동봉해야 한다

- 사업 운영 인증서류
- 재정[금융]신용 증명서류
- 외국법인체의 무역등록증 초본(원어 및 공인 번역사를 통해 번역한 폴란드어)
- 구입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지역자치행정 기관지나 정부행정 기관지에 서면 견해가 요구됨
- 국영기업을 취득하는 경우 하기사항이 요구된다.
 - 인증 및 공표된 사업에 대한 서류: 외국파트너(국영기업 구입자)의 경제활동 운영사항 명기(구체화)
 - 국영기업 취득방법 및 형태에 따라 청산인의 양도결의서, 이사 지명결의서,

-
- 종업원단과 설립자 간의 동의서, 입찰공고 등의 서류
 - 구입자산을 이용한 미래투자 사업계획, 추정 생산량, 종업원수, 투자지출명세

(기계/장비 구입 및 현대화, 기술획득 등)

제출된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자산취득 허가는 상기서류 제출후 2개월후 결정된다.

허가는 내부행정부, 국방부, 농업식량경제부 등 관련 행정당국에 의해 결정되며 농업식량경제부는 1헥타르(1만 m^2)를 초과하는 농지구입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의 우선권을 갖는다.

- 폴란드 혈통 또는 국적,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 배우자가 폴란드 시민일 경우
- 1991.6.14일 법령(외국기업 합작투자 파트너쉽)에 근거, 외국기업에 의해 맺어진 파트너쉽
- 1976. 2.6일 내각 결의[명령]에 근거해 해당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업

<공장 건설절차>

어떠한 상업적인 자본 건설활동은 적합한 허가 및 승인은 물론 용수, 전기, 가스, 오물수거 등의 확보가 요구된다. 부동산 취득후 투자자는 하기의 서류를갖춰야 한다.

그 구획에 대한 실측도로서 일련의 허가 및 설계의 기초가 된다. 실측도는 1:500또는 1:1000 비례로 축도한 지도로서 공익설비, 기존 구획 및 경계, 인근 구획의구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실측도는 District Office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도 및 토지측량 문서센터(Cartography and Land Surveying Documentation Center)에서 구입할수 있다. 실측도는 다음단계인 부지 명세서(Siting Specification)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부지명세서는 지방자치체 또는 그 구획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건축과에서 발급된다. 부지명세서 신청서에는 제안사업(종류와 면적)의 일반적인 기술(Discription)이 포함되어야 하고 진입로 및 관련 공익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부지명세서는 부지의 지자체 토지사용계획에 대한 기초정보가 포함되며 건설을 위한 조건을 명기한다.

전형적인 조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용수, 가스, 전력, 오물수거, 고형 폐기물 처리 가능성
- 국가위성검사관의 승인 취득 필요성
- 주(州)유적보존 당국의 승인 취득 필요성
- 환경보호부의 승인 취득 필요성
- 계획된 진입로 승인 취득 필요성

다음은 부지명세서에 기초한 도시 및 건축구상으로서 이것을 기초로 부지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다.

부지허가서는 지자체 건축과에서 발급한다. 부지허가서 신청시 상기의 건축구상과 구획 실측도, 토지등기부 초본, 관련 승인서류, 제안된 투자에 대한 환경영향의 포괄적인 평가가 수반된다. 부지허가서는 건축, 증축 및 재건축시 설계도의 기초가 된다. 도안서류 제출시 설계도외에 기승인 및 허가된 모든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도안서류는 관련 District Office의 건설감독위원회에서 건설허가를 내주기 위한 기초가 된다.

정보원: 각종 자료 종합 (2005.6)

66. 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

폴란드는 '94.10월 특별경제구역 제정법에 의거, 실업해소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주요 17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이하 SEZ)으로 지정하였다. 2005년 5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SEZ는 14개 이다. SEZ에 투자한 업체들은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 법의 EU 부합, SEZ의 일부 인센티브가 EU 법 체계와 자유경쟁에 위배 되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EU 요청에 의거 2000년 말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2001년부터 신법(新法)에 의거,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혜택은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SEZ는 14개 이다.

특별경제구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 (2005년 6월 현재)

- 법인세 면제
 - SEZ내 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소득 관련 법인세 면제는 'Act on SEZs' 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지역 지원(regional aid)으로 간주
- 국가 지원액 (Amount of admissible state aid)
 - 폴란드의 각 지역에 주어진 투자비용 대비 최대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별 지원율
 - ▶ 크라쿠프(크라쿠프 SEZ의 일부), 브로츠와프 및 그단스크-소포트-그디니아: 40%
 - ▶ 바르샤바, 포즈난: 30%
 - ▶ 여타 지역: 50%
 - 상기 지원율 50%는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지원의 형태는 세금(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임
- SEZ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 지원(regional aid)의 형태
 -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 ※ SEZ 입주기업은 요건 충족시 보조금과 조세 혜택을 모두 수혜 가능
- 조세 혜택 산출방식
 - 지원액은 투자비용의 액수, 성격 및 구조에 달려있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액 결정을 위해 적격비용(qualifying costs) 산출 필요
 - 적격 비용은 토지, 건물, 시설 장비 구입 등과 관련한 지출을 포함
- 법인세 면제의 예

(예) 지원율 50%의 SEZ내 총 투자비용이 100만불이고 이것이 모두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만불이 지원액(세금 면제) 산출의 근거가 되며, 지원율 50% 이므로 세금 면제 형태로 50만불 (50% x 100만불)의 regional aid를 받게 됨. 면세 소득액(amount of tax-exempted income)은 지원액을 법인세율 19%로 나눈 2,631,579불 임 (= 50만불/19%)

상기와 같은 인센티브 외에, SEZ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때때로 지방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최소 10만 유로가 되어야 하며, 최소 5년간 지속되어야 한다.

<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 현황>

특구명	실효기한 (Active until)	총투자액 대비 최대조세감면율	총면적 (ha)
SEZ “Euro-Park” Mielec	2015	50 (65)*	739.23
Katowicka SEZ	2016	50 (65)	1077.24
Suwalska SEZ	2017	50 (65)	331.00
Legnicka SEZ	2017	50 (65)	441.93
Walbrzyska SEZ	2017	50 (65)	492.61
Lodzka SEZ	2017	50 (65)	337.60
Kamiennogorska SEZ	2017	50 (65)	250.89
Kostrzynsko-Slubicka SEZ	2017	50 (65)	462.56
Slupska SEZ	2017	50 (65)	167.89
SEZ “Starachowice”	2017	50 (65)	351.48
Tarnobrzaska SEZ	2017	50 (65)	828.80
Warminsko-Mazurska SEZ	2017	50 (65)	372.10
Pomorska SEZ	2017	50 (65)	348.37
Krakowski Technologiczny (Cracow Technology Park)	2017	40 (55)	122.35

주: * () 안 수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임

자료원: 각종 자료 종합 (2005.6)

67. 자유무역지대

<보세구역 : Duty Free Zone>

Duty Free Zone은 폴란드 세관지역의 일부로서 외국영토로 간주되며 폴란드는 물론 외국, 국제경제 단위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Duty Free Zone에서 무역시수출입 물량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관세면제 또는 감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동지역내에는 물품 보관, 적재, 하역, 제조 등에 관련된 제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Gliwice Duty Free Zone)

Gliwice Duty Free Zone은 내륙에 위치한(폴란드 남부) 유일한 관세 면제지역으로서 Upper Silesia 산업지대의 Gliwice 지역에 위치해 있다. Upper Silesia 산업지대(Upper Silesia Industrial Area)는 철도, 내륙 항만(Inland Port), 공항(Pyrzowice 공항에서 40Km 떨어져 있음)등 교통이 편리하며 제반시설 및 우수한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Upper Silesia 산업지대에 위치한 Gliwice 지역은 산업 및 과학의 중심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다.

- 기능 및 설비

- . 10,000㎡ 면적의 물류 창고 보유
- . 20만톤 이상을 쌓을수 있는 적재장(Yard) 보유
- . 벌크(Bulk) 및 물건을 하역하는 터미널 설비
- . 호이스트(물건을 감아올리는 기계), 크레인 등 화물 적재/하역 장비 및 운송수단 보유
- . 최적의 교통 : Gliwice Port 철도역, 내륙 항만, 인근지역인 Pyrzowice의 국제공항 등
- . 시(市) 통신망 접근 용이
- . 기타 관세소, 운송회사, 은행 등이 운영됨

- 연락처

- . 운영주체 : Slaski Wolny Obszar Celny S.A.
- . 주 소 : ul. Portawa 28 44-100 Gliwice, Poland
- . 전 화 : +48-32-31 39 55/+48-32-130 49 42(Marketing Division : +48-32-31 53 88)
- . 팩 스 : +48-32-31 05 47(Marketing Division : +48-32-31 97 50)
- . E-Mail
 - head office : boss@swoc.gliwice.pl
 - office : sekretar@swoc.gliwice.pl
 - marketing division : market@swoc.gliwice.pl
 - information : info@swoc.gliwice.pl

(Duty Free Zone in Gdansk)

1995년 그단스크항에 관세면제구역이 설립되었으며 총면적은 33헥타르에 이른다. 그단스크항은 전통적으로 해상무역의 적지(適地)이며 관세면제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특히 러시아 및 여타 동구권과 교역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감독 및 경제활동에 대한 허가사항 등은 그단스크 항만당국에서 담당한다.

- 기능 및 설비

- . 총 5개, 38,000㎡ 면적의 옥내 물류 창고 및 총 15개, 80,000㎡ 옥외 작업장 (조명시설 완비) 보유
- . 6개의 계류장이 있는 2개의 부두가 있음.
- . 물품 저장 및 적재/하역, 생산, 수송 및 운송서비스, 각종 자문 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 연락처

- . 운영주체 : The Port Authority of Gdansk(그단스크 항만당국)
- . 주 소 : ul. Zamknieta 18 PL-80-955 Gdansk, Poland
- . 전 화 : +48-58-430927
- . 팩 스 : +48-58-439308/439191

이외에 Szczecin지역에 Duty Free Zone in Szczecin(운영주체 : Szczecin-Swinoujscie 항만당국) 및 Terespol Community에 Malaszewicze Duty Free Zone(운영주체: Terespol Community)등이 있다.

<자유 보세구역 : Free Bonded Zone>

(Free Bonded Zone in Swinoujscie)

Swinoujscie 보세구역은 Swinoujscie 항구(Swinoujscie Commercial Port)에 있으며 총 면적은 46 헥타르에 이른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연결되는 International Road(International Road no.3)와 매우 가까우며 바르샤바와는 550Km, 베를린과는 260Km 떨어져 있다. 그외 지역은 철도를 기준으로 프라하와는 585Km, 민스크 1,144Km, 모스크바 1,852Km, 파리 1,260Km, 로테르담 928Km, 함부르크 520Km 떨어져 있으며 코펜하겐, 말뚝, 이스타드 등에 정기여객선이 운항된다.

- 기능 및 설비

- . 2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냉장설비, 선박 수리소, 관리/행정 당국
- . 8,200㎡에 달하는 적하장
- . 물, 전기공급 등 충분

68. 조세제도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당초 법인세는 2000년 30%, 2001-2002년 28%, 2003년 24%, 2004년 이후 22%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예산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동 계획을 수정하여 2003년 27%로만 확정하고, 2004년 이후 법인세율을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법인세율은 19%로 전격 인하되었다.

일부 임업 및 농업 부분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Joint Stock Company(SA), 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 등은 상기 세율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Civil Code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은 매출액이 400천PLN (99년) 이상인 경우에만 상기 세율이 적용되고, 매출액이 400천PLN 미만인 경우는 업종에 따라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 3.0% : 소규모 레스토랑(알콜 취급 불가), 무역회사
- 5.5% : 생산, 건설, 운송분야
- 8.5% : 서비스업, 대형 레스토랑(알콜 취급 가능)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과세특례 등에 관한 법규를 단순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체계로 변경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소득 (Taxable Income)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37,024 PLN (USD 8,815) 까지	19% 마이너스 530.08 PLN (USD 139)
37,024 - 74,048 PLN (USD 8,815 - USD 17,630)	PLN 6,504.48 + PLN 37,024 초과에 30% (USD 1,712 + USD 9,743 초과에 30%)
74,048 PLN (USD 17,630) 초과	PLN 17,611.68 + PLN 74,048 초과에 40% (USD 4,635 + USD 19,486 초과에 40%)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대부분의 부가세 세율은 22%이고 품목에 따라 7%의 세율도 있다. 7%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는 식품류 일부, 아동용품(장난감 제외), 관광 및 국내항공 서비스, 공공서비스(수도, 하수도 등), 신문 잡지 등이 있다.

2004년 5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건축자재,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세율이 7%에서 22%로 상승한 바 있다.

<특별소비세/Excise Tax>

생산 및 수입 단계에서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정액(Lump Sum)으로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알콜, 담배, 연료, 자동차, 요트, 특정 전자제품, 향수, 플라스틱랩 포장지 등이며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다. '98년에 이미 연료에 대한 특소세가 인상되었고, 기타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도 '99년에 인상되었다.

연료에 대한 특소세는 '98.10월부터 인상된 세율에 따라 정액세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 자동차 연료의 특소세는 톤당 1,209PLN, Diesel 엔진용 연료 735PLN/톤, 항공기용 연료 1,203 PLN/톤이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Z) "Poland How to do business" (2005.6) 등

69. 사회간접자본

(항만)

폴란드 내 항만은 5개로, Gdansk, Gdynia, Kolobrzeg, Szczecin, Swinoujscie 등이 발틱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외교역을 위한 항구로 이용된다.

반면, 폴란드에서는 내륙 수로운송 이용도는 총 화물 운송량의 0.8%를 차지하며, 철도, 도로 이용도 대비 극히 낮으며, 내륙 수로 운송 연장은 총 3,812 km에 달하며, 이용하는 강은 Odra, Vistula, Warta, Notec 등으로 주로 Warsaw, Szczecin, Gdansk간의 모래, 자갈, 석탄, 철광석, 비료 등을 수송하는데 이용된다.

(도로)

폴란드의 도로 총 연장 (2002년 말 기준)은 377천 km로 이 중 250천 km가 포장도로 이다. 도로 수송 이용도는 전체 화물 수송량의 81.4%, 여객 수송량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의 고속도로 총 연장 (2002년말 기준)은 337 km, 준고속도로는 401 km 이나, 향후 2,600 km에 달하는 7개의 주요 고속도로를 역점적으로 건설 계획 중이다.

이 중 하기 3개 고속도로는 건설 중이다.

- A1 고속도로 : 폴란드 남북 연결 ; 그단스크-카토비체
- A2 고속도로 : 폴란드서부-중동부 연결 ; 독일국경 - 포즈난 - 바르샤바 - 벨라루스
- A4 고속도로 : 폴란드서부-남동부 연결 ; 독일국경-카토비체-크라코프-우크라이나

(철도)

폴란드의 철도 총 연장은 21,119 km로 광궤 철도이며, 59.4%는 전기 추진 방식으로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 수송 이용도는 총 화물수송량의 18.9%로 유지 운송 비용의 상승으로 철도 이용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폴란드의 국적 항공사는 LOT이며, 50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전세계 31개국 49개 도시간 운항 중이다. 2002년도 이용객 인원은 320만명으로 이 중 70%가 국제 노선을 이용했다.

한편 폴란드 내 국제공항은 Warsaw-Okecie, Krakow, Poznan 등이 있으며, 국내선 공항으로는 Warsaw-Okecie, Krakow, Poznan , Gdansk, Katowice, Wroclaw, Szczecin, Rzeszow 등이 있다.

<통신>

전화 보급 수준은 2001년 기준, 100명당 26명 정도로 매우 낮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중요 사회간접자본인 통신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90년 개방 이후 폴란드 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화기 및 교환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총 전화가입자는 2000년 10-12백만, 2010년 17백만명이 목표이다. 통신망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교환기를 확충중이다. 통신분야에 투자될 공공 및 민간의 총 투자 예정금액은 150억불이다.

이동전화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95년 75천명에서 '99년에는 4,000천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약 5,300천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3년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17,400천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 이동통신 시장은 3개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Polkomtel사의 Plus GSM과 Polska Telefonii Cyfrowa(PTC)사의 ERA GSM이 주도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로 국영통신공사 (TPSA)의 자회사인 PTK Centertel의 Idea Centertel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GSM 9000 및 DCS 1800등 디지털망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PTK Centertel의 경우 기존망인 아날로그망(NMT-450)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 IT 산업 >

2002년 기준 100 가구당 PC 보급대수를 보면, 폴란드는 9대로서 스웨덴의 53대, 미국의 50대, 영국 39대, 독일 30대, 스페인의 18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00명당 18대로서 인근국인 헝가리, 체코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 IT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업체들의 자본 부족이다. 이에 자본력이 막강한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IT 프로젝트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이 인근 독일로 송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통신기반이 열악한 점도 장벽으로 꼽히고 있다. 국영통신공사인 TPSA의 독점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IT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반확충을 위해 컴퓨터 등 장비시장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장비나 단순 IT 해법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응용통합/수리/교육/컨설팅/데이터 가공/인터넷 접속 등과 같은 IT 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더 높으며 시장규모도 전체 IT 시장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 하드웨어와 같은 장비도 낮은 보급률을 감안할 때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전문업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하드웨어 업체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분야를 함께 취급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IT는 금융기관, 산업, 통신 등 3대 분야는 전체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은 IT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 오히려 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산업분야는 아직 IT 수준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폴란드의 IT 산업 자체도 서구의 대형 IT 업체들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열악한 통신환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2002년 폴란드의 인터넷 인구는 100명당 10명 (약 10%)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추정된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태리, 스페인과 비슷한 4% 수준이다. 기업들도 58% 가량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력>

2002년 총연간 전력생산 (gross annual production of electricity)는 145,655 GWh로 추정되고 있다. 폴란드 에너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발전산업이다. 전기의 90% 이상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원료로 해서 발전된다. 석탄 생산량의 68%는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원자력 발전소는 없다.

70. 노동여건

<고용>

폴란드에서 고용은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의 체결을 통해 형성되며, 고용 계약서에는 피고용인의 기본임금, 의무사항, 근로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기타 조건도 명시될 수 있다

고용 계약서의 내용에는 단체 협약의 내용보다 피고용인 측에 유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반해서는 안되며, 피고용인은 노동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고용 계약의 체결 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신상 명세서 등 고용주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성 검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고용 관계가 형성 되는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개시일이 된다.

수습기간은 노동 계약서 상의 쌍방 합의 또는 기업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다. 그러나 단체 협약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견습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3개월 고용 이후에도 헝가리 피고용인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3개월 재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인력>

폴란드는 2004년 실업률이 19% 에 이르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이 다수 있으나 아직 일자리는 인력에 비하여 부족하다.

최근 서방 투자기업의 경영 기법이 도입되어 비효율적인 작업 체계 등은 사라지고 있으나 폴란드의 노동 생산성은 서유럽 등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 중 하나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노동습관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임금>

임금은 서구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합작기업의 경우는 국내기업 보다 20- 50% 정도의 높은 임금 지불이 관례로 되어 있다. 특히 외국 기업 진출 급증으로 시장경제 적응 및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중견 관리급이 절대 부족하여 이들의 임금 수준이 급상승 추세에 있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이나 기업 이윤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단지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연도별 평균 임금수준>

(단위: PLN, Gross기준)

구분	2002	2003	2004
임금	2,134.67	2,201.63	2,309.52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생산직 보다 서비스업 부문과 주요 도시지역의 임금이 높은 편이며 외국인 합작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폴란드 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폴란드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성격에 따라 고용 관련 규정이나 양측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최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균 8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휴가>

고용주는 매년 피고용인에게 기본휴가와 보충휴가로 구성되는 정기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휴가에는 질병휴가, 출산휴가, 10세 이하의 자녀양육 또는 보호를 위한 1년간의 무급휴가, 30일 이내의 무급휴가, 각종 군사 의무 수행기간의 휴가 등이 있으며 기본휴가는 연 20일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피고용인들은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아무 때나 3일간의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현지 투자기업들의 경우 병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계약서 작성시 인센티브 제공(예시: 연간 병가 없이 만근한 경우)을 명시하는 등 병가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현 직장에서도 그 휴가를 마저 사용할 수 있다.

71. 사회보장제도

<현지인 사회보장>

'99년 1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가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98년까지 사회보장세는 피고용자 총 급여의 48.2%(사회보장세 45%+노동기금 3.2%)로서 전액을 고용주가 납부했으나, '99년 1월 1일부로 총 급여의 46.95%로 하향 조정되고,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공동 분할 납부로 변경되었다.

사회보장의 혜택은 크게 퇴직 후 연금, 재직기간 또는 후의 의료보험 혜택이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폴란드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 이상(장애자인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장애자인 경우 55세)이 되어야 한다.

사회 보장세는 급여의 46.95% 인데 세부내역은 사회보장보험 (Social Insurance) 37%, 노동(Labor) 기금 2.45%, 의료(medical) 보험 7.5%이다. 사회보장보험(Social Insurance) 37%는 퇴직기금(Retirement Fund) 19.52%, 산재기금 13.00%, 병(Sick) 기금 2.45%, 사고(Accident) 기금 2.03%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세의 납부 주체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		피고용자	
퇴직기금(Retirement Fund)	9.76%	퇴직기금(Retirement Fund)	9.76%
산재기금	6.5%	산재기금	6.5%
사고(Accident) 기금	2.03%	병(Sick) 기금	2.45%
노동(Labor) 기금	2.45%	의료(help Insurance)	7.5%
합계	20.74%		26.21%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폴란드에 있는 모든 노동자는 사회보장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재 폴란드 외국인은 사회보장청(ZUS)에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연금 수혜가 불가하나 의료보험은 폴란드 체제 기간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중도 탈퇴하여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폴란드와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해서만 환불되는데 프랑스, 독일,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영국, 미국 국적의 국민들이 해당된다. 환불액 산정은 체재기간과 해당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르다. 한국인의 경우 한-폴란드간 협정이 없어 납입 보험금을 환불 받을 수 없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2005.6)

72. 현지 생활여건

<생필품 조달>

90년 전면 대외무역자유화 이후 생필품은 풍부히 공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국자본의 대형슈퍼마켓(TESCO, CARREFOUR, GEANT등)이 개점하면서 저렴한 생필품의 공급이 원활하다. 현지 시장에서 배추, 두부 등도 조달이 가능하다.

< 대형 슈퍼마켓 >

	주 소	전화번호
TESCO	Al. KEN 14,02-797 Warszawa	(022) 54 53 300, 301, 302
CARREFOUR	Al. Powstancow slaskich 126	(022) 56 97 600
GEANT	ul. Pu ławska 427	(022) 645-86-00

<레저 여건>

광활한 평지의 연속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바르샤바 인근에 POWSIN 등 산보에 적당한 울창한 숲이 산재해 있다. 바르샤바 인근에 92년 8월 개장된 골프장이 한 곳 있으며,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시설도 다수 있다.

스키장은 수도에서 400-450Km 거리의 Zakopane, Wisla, Szczerek 지역에 있다. 시내에는 박물관이 종류별로 있으며, 연중프로그램에 따라 음악회, 미술전시회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시내의 공원으로는 가장 오래된 와지엔키 공원을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 공원들이 산재해 있어 여름에는 온 도시가 녹색의 숲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골프장은 바르샤바 1개소, 그단스크 1개소, 올스친 1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의료>

폴란드 국민은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가 얼마이나 이는 국영병원에 한하며 외국인들은 주로 개인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은 비싸지만 시설 및 의료진 수준은 국영 보다 좋다.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으나 종합감기약, 두통약 정도는 가능하다. 약국은 APTEKA 라는 글씨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중앙역 등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다.

<치안상태>

외출시는 혼잡한 곳에서의 소매치기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밤늦게 중앙역 등 도심지의 우범지대에 혼자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호텔은 일류호텔이 아니더라도 도난 등의 사고는 많지 않다.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사회주의 시절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88 올림픽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고,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은 국산 전자제품이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부의 고급관리들도 한국의 개발성장 모델을 배워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73.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주택임차, 자동차 구입, 자녀교육, 은행계좌 개설 등 이주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주택임차료

월 주택임차료는 아파트의 경우 평방미터당 US\$ 11-12 내외이다.

(예1) 120 s/m : US\$1,320 - US\$ 1,440

(예2) 160 s/m : 1,760 - US\$ 1,920

통상 임차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산출하며, 한국과 같이 공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다.

통상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침대, 냉장고, 소파, 책장, 전자레인지, TV, VCR, 청소기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퍼니쉬드'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경우 유의

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인 쌍방이 사전에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모델, 가격, 용량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최종 입주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최소한 3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임차계약기간은 통상 2년~3년이며, 임차기간 중 중도해약 시에는 2~3개월 전에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1개월 임차료를 중개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증금으로는 보통 1개월치 임차료를 선금으로 소유주에게 납부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 돌려 받게 된다.

관리비는 아파트의 경우 통상 월 임차료에 포함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세, 가스세, 전화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2. 차량구입

메이커, 모델,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차량 가격이 상이하나, 대체로 1,500cc인 경우 US\$ 9,000 - 10,000, 2,000cc는 US\$ 14,000-17,000, 2,500 cc는 US\$ 24,000-25,500, 3,000cc는 US\$ 37,000 정도 이다.

차량보증기간은 통상 3년이며, 차량보험료는 종합보험인 경우 연간 US\$ 600-700 내외인데 2004년 이후 현지화 강제로 올라가는 추세이다.

폴란드에는 현대자동차 (판매), 기아자동차 (판매)가 진출하고 있고, 대우의 일부 차종도 생산되고 있어서 한국산 자동차 구입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스틱기어이며, 오토 기어는 흔하지 않고 가격이 높아진다.

3. 의료보험료

사설 의료보험기관이 3~4년전부터 다수 설립, 운영되고 있다. 월 의료보험료는 가족인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870 pIn (US\$ 220 상당)이며, 개인 1명인 경우 630 pIn (US\$ 160 상당) 정도이다.

보험가입의 경우 의료보험기관 지정 병원으로부터 의사 진찰, 치료, 응급처치, 입원 치료, 가정방문 검진, 감기예방주사 접종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약값은 보험 혜택이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자녀교육비

American School과 British School이 있으며, British School의 경우 학년에 따라 상이하나, 연간 학비가 US\$ 6,000 - 8,000이나, American School의 경우 기부금 등을 감안하는 경우 British School의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비싸다.

American School은 학교가 바르샤바 외곽에 소재하고 있어 통학시 스쿨버스 (월 1인당 US\$ 260 정도)를 이용하거나 별도로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British School은 시내에 위치해 있어 스쿨버스 비용이 다소 저렴한 편이다.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미국, 영국 등 모든 국가의 대학에서 학력, 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 1학년에서 13학년까지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학교에서 교육 받게 된다.

5. 인터넷 통신

Dial-up, ISDN, 전용선(Lease Line) 등이 있으며, 사무용은 대부분 전용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이다. 주택 혹은 사무실내 전용선 설치비는 현지 서비스 회사의 경우 Supermedia 무료이며, 월임차료는 1,200pIn(US\$ 400) 수준 (속도 256 kbps)이며, 신청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된다.

Cable TV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는 월 사용료가 150pIn (US\$40)으로 저렴하나, 아직 도입 단계이며, 속도가 전용선에 비해 느리고, 서비스 업체로는 ASTRA가 있다.

6. 계좌 개설

계좌개설은 간단하다. 여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2일이면 계좌가 개설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단위를 지정하여 외화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계좌에 외화예금을 할 경우 폴란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외환 소지 신고서를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7. 전화신청

외국인이 전화를 신청할 경우는 주택임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와 여권이 있으면 된다. 지역의 국영통신공사(TP SA)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2주내에 통신공사는 신청 서류 및 전화연결 가능성(기술적인 면)을 검토한 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준다. 전화 연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TP SA를 통할 경우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폴란드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동전화사용을 원할 경우 이동전화사업자의 본지점을 방문하여 이동전화기와 단기사용 카드를 구입하면 카드대금 지불액 만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Plus GSM의 Simplus, Era GSM의 Tak-Tak, Centertel의 POP 카드가 그것이다.

8. 기타 사항

- 치안상태, 레저여건: 양호
- 실내외 테니스장 다수, 골프장 (18홀) 1개소
- 골프장 연간 회비: 약 2,500불 - 3,000불 상당, 1회 그린피 80불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2005.6)

74. 자녀 교육여건

폴란드에 주거하는 외국인과 한국인 자녀들은 대부분 아메리칸 스쿨과 브리티시 스쿨에 취학하고 있다. British School의 경우, 학비는 학년에 따라 상이하나, 연간 US\$ 6,000 - 8,000이며, American School의 경우 기부금 등을 감안하는 경우 British School의 1.5배 내지 2배로 비싸다.

학교는 바르샤바 외곽에 소재하고 있어 통학시 스쿨버스 (연간 1인당 US\$ 1,000 추가소요)를 이용하거나 별도로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미국, 영국 등 모든 국가의 대학에서 학력, 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 1학년에서 13학년까지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학교에서 교육 받으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은 6 세로서한국 보다 빠르다.

<외국인 학교 연락처>

	주 소	전화 / 팩스	이메일 및 홈페이지
American School	Bielawa, ul. Warszaska 202, 05-520 Konstancin-Jeziorna	(22) 702-8500 / (22) 702-8599	admissions@asw.waw.pl www.asw.waw.pl
The British School	ul. Limanowskiego 15, 02-943 Warszawa	(22) 842 3282 / (22) 842 3265	britscholar@wonetcom.pl
American Kindergharden	ul. Zawrat 14, 02-702 Warszawa	(22) 843 0964	
Japanese School	ul. Milobedzka	(22) 848 0435	
The High French School	ul. Piekna 1, 00-477 Warszawa	(22) 617 6254 / (22) 617 8457	
Russian School	ul. Kielecka 45, 02-530, Warszawa	(22) 849 1875	

상기외에도 프랑스 학교, 독일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자료원 :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조사 (2005. 6)

75. 진출기업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 현황>

2005년 6월 업데이트

- | | | | |
|---------------------------------|---------|---------|---------|
| 1) 업종 | 2) 취급품목 | 3) 진출형태 | 4) 진출년도 |
| 5) 종업원수(본사파견: 현지채용) | 6) 자본금 | 7) 매출액 | |
| 8) 합작선 및 합작비율(한국측 지분-백분율(%) 표기) | | | |

1. (주) 대우 인터내셔널 바르샤바 지사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Warsaw Office

Add : ul. Wspolna 62, 00-684, Warszawa, Poland

Tel : (48-22) 627-1627

Fax : (48-22) 627-1625

E-Mail : ischun@ddc.com.pl

Home page: <http://www.daewoo.com>

Pres : Mr. In-Sung Chun/ 전인성 지사장

1) 도, 소매업(무역업)

2) 무역업-기계, 전자, 화학, 부품, 자동차 등

3) 법인-단독

4) 1991 년 5) 1:4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주) 대우인터네셔널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Tel : (02) 759-2114

Fax : (02) 753-9489

Pres : 이태용

2. (주)아름텍

Arum-Tec Co.ltd

Add : ul. Zolny 13, 02-815 Warszawa, Poland

Tel : (48-22) 643-8093

Fax : (48-22) 643-8093

E-Mail : arumtec@pol.pl

Home page : <http://NA>

Pres : 이풍길 사장

1) 도 · 소매업(무역업) 2) 무역업-섬유류 3) 지사

4) 1998 년 5) 4 : 3 6) US\$ NA 천.

7) US\$ 3000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주) 아름텍

Add : 서울시 강북구 번동 112번지 2층

Tel : (02) 988-8966

Fax : (02) 989-2514

Pres : 장세은

3. 굿 뉴스 트랜스

GoodNews Trans sp. z o.o.

Add : ul. Okopowa 47, 01-059 Warszawa Poland

Tel : (48-22)636-4455

Fax : (48-22)636-1241

E-mail : office@goodnewstrans.com

Home page : www.goodnewstrans.com

Pres : 문성천 사장

1) 물류업 2) 육로, 수상, 항공 운송 및 창고업

3) 법인-단독 4) 2005 년 5) 3:8 6) N/A

7) N/A 8) 100%

4. LG상사 바르샤바지사

LG International Corp. Warsaw Liaison Office

Add : Al. Jana Pawla II, XI Floor, 00-828 Warsaw, Poland

Tel : (48-22) 624-9381

Fax : (48-22) 652-9068

e-mail :

Home page : <http://NA>

Pres :

1) 도·소매업(무역업) 2) 무역업-화공, 전자부품 3) 지점

4) 1990 년 5) 0:3 6) US\$NA 천 .

7) US\$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LG상사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 (02) 3773-5675

Fax : (02) 3773-5833

Pres : 이수호

5. LG전자 폴란드 생산법인

LG Electronics Mława Sp. Z o.o.

Add : ul. LG Electronics, 06-500 Mława, Poland

Tel : (48-23) 654-7404

Fax : (48-23) 654-3259

E-mail : ykchoi@lge.com

Home page : <http://N.A.>

Pres : 노석호 법인장

1) 제조업 2) 전자, 통신장비(일반 TV, PDP 및 PROJECTION TV, LCD TV)

3) 법인-단독 4) 1999년 5) 9:800 6) US\$ 6000천

7) US\$ 300000천 8) 100%

* 국내 모기업 : LG전자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 (02) 3777-1114

Fax : (02) 3770-5210

Pres : 김쌍수

6. LG전자 폴란드 판매법인

LG Electronics Polska Sp. Z o.o.

Add : ul. Domaniewska 41, 02-672, Warszawa, Poland

Tel : (48-22) 606-1450

Fax : (48-22) 606-1458

E-mail : yybaik@lge.com

Home page : <http://www.lge.pl>

Pres : 신동웅 법인장

1) 도·소매업(무역업) 2) TV, Audio,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3) 법인-단독

4) 1997 년 5) 6 : 80 6) US\$ 4000 천

7) US\$ 200000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LG전자(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 (02) 3777-1114

Fax : (02) 3770-5210

Pres : 김쌍수

7. SK 유로켄

SK Eurochem sp z.o.o

Add : ul. Torunska 222, 87-805, Wloclawek, Poland

Tel : (48-54) 247-3921

Fax : (48-54) 237-3929

e-mail : dglee@skchemicals.com

homepage : <http://www.skeurochemicals.com>

Pres : 우제범 법인장

1) 제조업 업종(중분류) 기타제조 2) 제조업-PET 수지제조

3) 법인-합작(현지합작생산법인)

4) 2002 년 5) 11 : 60

6) US\$ 38000 천 7) US\$ NA 천 8) SK Chemicals 100%

* 국내모기업 SK케미칼

Add: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8-1

Tel: (02) 2008-2008

Fax: (02) 2008-2279

Press: 홍지호

8.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Grace International Sp. Z O.O.

Add : ul. Mszczonowska 48, Raszyn, Janki, 05-090, Poland

Tel : (48-22) 715-6735, 715-6630

Fax : (48-22) 715-6313

E-mail : spa426@yahoo.com, James@grace-international.pl

Home page : <http://NA>

Pres : 오중열 사장

1) 도·소매업(무역업) 2) 무역/도매업-직물 3) 현지법인

4) 1995 5) 6 : 14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9. 글로리아 인터내셔널

Gloria International Sp. Z O.O.

Add : ul. Francuska 20-3, 03-906 Warszawa, Poland

Tel : (48-22) 617-5748

Fax : (48-22) 616-0215

E-mail : gloriashwoo@hanmail.net

Homepage : <http://NA>

Pres : 우상해 사장

1) 도·소매업(무역업) 2) 무역/도매업-직물 3) 현지법인

4) 1993 5) 1 : 1 6) US\$ 13 천

7) US\$ 500 천 8) 100%

10. 금강기획 폴란드지사

Diamond Ad Poland office

Add : ul. Konstruktorska 11A, p 418 Warszawa, Poland

Tel : (48-22) 548 5443

Fax : (48-22) 548 5468

e-mail : bgpark_diamond@hotmail.com, chpark@diamond.co.kr

Home page : <http://NA>

Pres : 고동석 지사장

1) 기타 2) 광고 대행-광고 매체 구매 및 광고 제작 3) 지사

4) 2000 년 5) 1 : 1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금강기획

Add :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8

Tel : (02) 513-1114 (대표)

Fax : (02) 3672-0019

Pres : 이영희

11. 기아자동차 동구/CIS 지역본부

Regional Headquarters of Central Europe & CIS Operation

Add : ul. Pulawska 393, 02-801 Warszawa, Poland

Tel : (48-22) 546-4001

Fax : (48-22) 546-4060

E-mail : dssuh@kia.com.pl

Home page : <http://www.kiamotors.com>

Pres : 서동식 상무(폴란드 판매법인장 겸직)

1) 제조업 2) 기아 자동차 CIS .중.동구지역 수출 총괄

3) 중.동구.CIS지역판매총괄

4) 1998 년 5) 6 : 3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Add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Tel : (02) 3464-5036

Fax : (02) 3464-6830

Pres : 윤국진

12. 기아자동차 폴란드 판매법인

Kia Motors Polska Sp. Z O.O.

Add : ul. Pulawska 393, 02-809 Warszawa, Poland

Tel : (48-22) 546-4000

Fax : (48-22) 546-4040

E-mail : seil@kia.com.pl

Home page : <http://www.kia.com.pl>

Pres : 서동식 상무

1) 도 · 소매업(무역업) 2) 무역/제조업-자동차 및 부품, 서비스

3) 현지판매법인

4) 1997 년 5) 3 : 37 6) US\$ 3950 천

7) US\$ 38000 천 8) KIA 99.55%: 현지 0.45%

* 국내 모기업 : 기아자동차

Add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Tel : (02) 3464-6035

Fax : (02) 3464-6830

Pres : 윤국진

13. 대우전자 폴란드 생산/판매법인

Daewoo Electronics Manufactruing Poland Sp. Z O.O. -

Add : ul. Parzniewska 18, 05-800 Pruszkow, Poland

Tel : (48-22) 739-2000

Fax : (48-22) 739-2240

e-mail : shhong2@dwe.co.kr

Home page : <http://www.d-e.com.pl>

Pres : 백기호 이사

1) 제조/판매업 2) TV생산 및 가전제품 수입판매 3) 현지생산/판매법인

4) 1993 년 5) 14 : 930 6) US\$ 47028 천 7) US\$ 300000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Add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Tel : (02) 360-7114

Fax : (02) 364-5588 Pres : 김충훈

14. 돈텍스 폴스카(주)

Dontex Polska Sp. z o. o.

Add : ul.Cicha 9, Slupno, 05-250 Radzymin, Poland

Tel : (48-22) 786-7272/5769

Fax : (48-22) 647-0654

e-mail : dontex@supermedia.pl

Home page : <http://NA>

Pres : 이성오 사장

1) 도·소매업(무역업) 2) 섬유, 기계, 잡화 3) 법인-단독(현지법인)

4) 1995 년 5) 1 : 4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15. 디케이엠에프지

D.K. MFG Sp.z.o.o.

Add : ul. Stoleczna 252, 05-074 Halinow, Jozefin, Poland

Tel : (48-22) 894-6657

Fax : (48-22) 894-6657

e-mail : uJean21@hotmail.com

Home page : NA

Pres : 최경수 법인장

1) 제조업 2) 의복, 모피(작업용 장갑) 3) 해외 생산법인

4) 2003 년 5) 2 : 4 6) US\$ 50 천 7) US\$ 500 천 8) 100%

16. 로켓 폴란드

Rocket Poland Co.,Ltd.

Add : ul. Kosciuszki 112-114, 83-200 Starogard Gdanski, Poland

Tel : (48-58) 775-1221

Fax : (48-58) 775 1450

e-mail : rocketpl@gd.onet.pl

Home page: <http://www.rocket.co.kr>

Pres : 박종대 법인장

1) 도/소매업 2) 건전지 3) 현지합작법인

4) 1997 년 5) 1 : 14

6) US\$ NA 천 7) US\$ 3000 천 8) 100%

*국내모기업: 로켓전기

Add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758

Tel : (02) 3451-5600

Fax : (02) 3451-5757

Pres : 김동영

17. 사앰텍스

Saamtex Ltd.

Add : al. Krakowska 14a, Janki 05-090, K/Warszawy, Poland

Tel : (48 22) 702-3671-3

Fax : (48 22) 702-3670

E-mail : saamtex@wp.pl

Home page: <http://NA>

Pres : 최현 대표

1) 도 · 소매업(무역업)

2) 무역업-직물, 잡화 (신발, 모자, 장갑, 양말 등), 컴퓨터 주변기기 등

3) 법인-단독 4) 1996 년 5) 2 : 8 6) US\$ 150천

7) US\$ 2500천 8) 100%

18. 삼성물산 바르샤바 지사

Samsung Deutschland GmbH, Warsaw Office

Add : ul. Domaniewska 37, 02-672 Warszawa, Poland

Tel : (48-22) 621-9934

Fax : (48-22) 847-6326

e-mail : grace@samsungcorp.com

Home page : <http://NA>

Pres :

1) 도 · 소매업(무역업) 2) 무역업-종합품목 3) 삼성물산 독일법인 바르샤바지사

4) 1990 년 5) 4) 0 : 3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삼성물산(주)
Add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Tel : (02) 3706-7505
Fax : (02) 3706-7326
Pres : 정우택

19. 삼성전자 폴란드 판매법인

Samsung Electronics Polska (SEPOL)

Add : ul. Szturmowa 2a, UBC II 02-678 Warszawa, Poland
Tel : (48-22) 607-4400
Fax : (48-22) 607-4401
e-mail : office@samsung.com.pl
Home page : <http://www.samsung.com.pl>
Pres : 이정복 상무
1) 제조업 2) 전자 통신장비 3) 현지판매법인
4) 1996 년 5) 6 : 86 6) US\$ 17000 천
7) US\$ 230000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삼성전자
Add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Tel : (031) 200-1114
Fax :
Pres : 윤중용

20. ㈜성안

Seong an co. ltd

Add : ul. Wita Stwosza 32/4, 02-661, Warszawa, Poland
Tel : (48-22) 843-9095/6,7
Fax : (48-22) 843-9095
E-mail : poland@startex.co.kr
Home page : www.startex.co.kr
Pres : 강병관
1) 도 · 소매업(무역업) 2) 직물 3) 지사
4) 1994 년 5) 1 : 2 6) US\$ NA 천
7) US\$ 5000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주)성안
Add : 서울 중구 소공동 1 해운센터 (신관) 8층
Tel : (02) 754-0910
Fax : (02) 777-2292
Pres : 박상태

21. 세계물산

Segye Corporation Warsaw Office.

Add : ul. Migdalowa 4, room no. 71, 02-796, Warszawa, Poland

Tel : (48-22) 645-1695

Fax : (48-22) 645-1699

e-mail : jurasic@sgwicus.com

Home page : www.sgwicus.com

Pres : 박종선 지점장

1) 도매/무역업 2) 직물 3) 사무소

4) 1997 년 5) 1 : 3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세계물산(주)

Add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9

Tel : (02) 850-5959

Fax : (02) 850-5927

Pres : 김평원

22. 아이엠지플라스텍

IMG Plastec Sp.zo.o.

Add : ul. Makolągwy 31, 02-811 Warszawa, Poland

Tel : (48-22) 323-6400

Fax : (48-22) 434-6371

E-mail : Poland@imgplastec.com

Home page : <http://www.imgplastec.com>

Pres : 송영국 대표이사

1) 도·소매업(무역업) 2) 무역업-기계류(플라스틱 사출성형기계 등) 판매, A/S 등

3) 법인-단독 4) 1995 년 5) 2 : 5 6) US\$ 250 천

7) US\$ 2000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주) 아이엠지 플라스텍

Add :

Tel : (032) 817-9335

Fax : (032) 817-9336

Pres : 신우식

23. 엠비폴

Ambipol Corporation Sp.zo.o.

Add : ul. Belgradzka 4/72, 02-793 Warszawa. Poland

Tel : (48-22) 649-9880

Fax : (48-22) 648-8527

E-mail : janusz@hanmail.net

Home page : <http://NA>

Pres : 권영관 사장

- 1) 제조업 2) 제조업 서비스업-인쇄물 제작 및 대행, 무역업, 부동산 중개업
3) 현지합작법인-합작(WENA (70 : 30)) 4) 1998 년 5) 1 : 8 6) US\$ 25 천
7) US\$ 700 천 8) 60% (엠비폴 70 : WENA 30)

24. 운화실업(주)

UNWHA-ZZN POLAND. LTD

Add : ul. Jana Pawla II 14, 06-100 Pultusk, Poland

Tel : (48-23) 692-5241

Fax : (48-23) 692-0658

E-mail : unwhapark@empal.com

Home page : <http://NA>

Pres : 박장원 이사, Mr. Leslaw Smyk

- 1) 제조업 2) 자동차용 Seat belt 및 Rewinding spring 제조
3) 합작법인
4) 1997 5) 1 : 67 6) US\$ NA천 7) US\$ 1500 천
8) NA

* 국내 모기업 : 운화실업(주)

Add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6 번지 (동양빌딩 1505호)

Tel : (02) 774-7686

Fax : (02) 774-4022

Pres : 정덕용

25. 유로인터넷 홀딩스 현지법인

Euro Internet Holdings S.A.

Add : ul. Walbrzyska 11, Paw 60, 02-739 Warsaw, Poland

Tel : (48-22) 549-9276-8

Fax : (48-22) 549-9280

E-mail : jcsuk@euroitech.com

Home page : <http://www.euroitech.com>

Pres : 석진철 사장

- 1) 서비스업 2) 채팅 사이트(Skylove Poland Site: www.skylove.pl) 운영,
PC판매/ 임대, IT 솔루션 3) 법인-합작(소프콘(주), 대우엔지니어링(주) 등 합작)
4) 2000 년 5) 2 : 7 6) US\$ 2330 천
7) US\$ NA 천 8) 100%

26. 제이케이코퍼레이션

J.K. Corporation Sp. z o. o.

Add : ul. Wroblewskiego 16/18, 93-578 Lodz, Poland

Tel : (48-42) 684-8367

Fax : (48-42) 683-1696

e-mail: jhkim@hanmail.net

Homepage: http://NA

Pres: 김장후 사장

- 1) 제조업 2) TV세트부품 3) 현지생산법인
4) 1999 년 5) 2 : 140 6) US\$ 50 천 7) US\$ NA 천 8) 100%

27. 조흥전기산업(주) 폴란드 현지법인

Chowel Poland Sp. Z O.O.

Add: ul. Okrzei 18, 03-710 Warszawa, Poland

Tel: (48-22) 818-9636

Fax: (48-22) 619-2035

e-mail johnpol@hanmail.net

Homepage: http://NA

Pres: 김종술 상무

- 1) 도·소매업(무역업)
2) 무역/서비스업/건설-전기 용접기, 용접 자동화 기기, 건축, 유제품
3) 법인-단독
4) 1997 년 5) 2 : 3
6) US\$ 40 천 7) US\$ 2700 천
8) 100%

*국내모기업: 조흥전기산업

Add: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395-3

Tel: (031) 493-9911(代)

Fax: (031) 495-2515

Pres: 최백규

28. 칸

Khan Company

Add: ul. Pachnaca 39, 02-790, Warszawa, Poland

Tel: (48-22) 649 2709

Fax: (48-22) 649 8121

e-mail: seeyou2020@hotmail.com

Homepage: http://NA

Pres: 남종석 사장

- 1) 무역업(도/소매업) 2) 직물, 전자제품, PROJECT 3) 지점
4) 2003 년 5) 1 : 2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29. 한국유리

Saint-Gobain Sekurit Hanglas Polska Sp z o.o(SGSHP)

Add : ul. Szklanych Domow 2 42-530 Dawrowa Gornicza, Poland

Tel : (48-32) 295-3101

Fax : (48-32) 295-3199

e-mail : youngjae.rho@saint-gobain.com

Home page : <http://www.saint-gobain-sekurit.com>

Pres : President : 노영재

1) 제조업 2) 자동차용 안전유리

3) 법인-합작(독일 Sekurit Saint Gobain : 87%, 한국유리 : 13%)

4) 1997 년 5) 1 : 550 6) US\$ NA 천

7) US\$ 120000 천 8) NA

* 국내 모기업 : 한국유리 (주)

Add :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Tel : (02) 3706-9219

Fax :

Pres : 이세훈

30. 한양 몰드

HAN YANG-MOLDS Sp.z o.o.

Add: ul. Chemiczna 1, 21-040 Swidnik, Poland

Tel: (48-81) 749-3815

Fax: (48-81) 749-3834

e-mail: newkdk@hanmail.net

Homepage: <http://www.molds.hanyang-dmp.pl>

Press: 석진철

1) 제조업

2) 조립금속제품(금형제작)

3) 법인-단독 (투자업체:동우기계 100%)

4) 2002 년 5) 3 : 67

6) US\$ 500 천 7) US\$ 2000 천

8) 100%

* 국내모기업: (주) 한양정밀(동우기계)

Add: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

Tel: (032) 578-9951

Fax: (032) 578-9956

Press: 신동국

31. 한진해운 폴란드

Hanjin Shipping Poland Sp. Z O.O.

Add : ul. Rzymowskiego 30, 02-697, Warszawa, Poland

Tel : (48-22) 647-0732

Fax : (48-22) 647-0654

E-mail : idbaik@hanjin.com

Home page : <http://www.hanjin.com>

Pres : 백인도 법인장

1) 운수, 창고업 2) 해운업 3) 법인-단독

4) 1997 년 5) 1 : 8 6) US\$ NA 천

7) US\$ 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한진해운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 빌딩

Tel : (02) 3770-6114

Fax : (02) 3770-6748

Pres : 조수호

32. 현대자동차 폴란드 법인

Hyundai Motor Poland

Add : ul. Migdalowa 4 Natpoll Building a30, 02-796 Warszawa, Poland

Tel : (48-22) 645-1700

Fax : (48-22) 645-1551

E-mail :

Home page : <http://www.hyundai.pl>

Pres : 배상덕 부장

1) 도·소매업(무역업) 2) 무역업-자동차, 부품

3) 법인-단독 4) 2000 년 5) 5 : 32

6) US\$ 20000 천 7) US\$ NA 천 8) 100%

* 국내 모기업 : 현대자동차

Add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Tel : (02) 3464-1114

Fax : (02) 3464-3477

Pres : 김동진

*Kotra 홈페이지의 현지 진출업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6. 주요경제지표

<폴란드 주요 경제 지표 (2001-2004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GDP(US\$억)	1,777	1,886	2,069	2,442
1인당 GDP(US\$)	4,738	4,882	5,418	6,345
경제성장률(%)	1.0	1.3	3.7	5.3
인플레이션(%)	5.5	1.9	0.8	3.5
실업률(%)	17.4	18.10	20.0	19.1
수출(US\$억)	360.9	410.0	535	738
수입(US\$억)	502.7	551.1	680	879
무역수지(US\$억)	-141.8	-141.1	-145	-141
외환보유고(US\$억)	266	298	340	368
총외채(US\$억)	719	843	932	1,160
연평균환율 (US\$대비)	4.10	4.08	4.02	3.65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무역관 종합

77. 대외거래지표

<대외경제지표>

(단위: US\$억)

지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본수지	82	76	29	66	67	
경상수지	-116	99	70	-67	-40	
무역수지	-185.2	-172	-143	-104	-144	-141
수출	273.6	315	361	410	535.76	738
수입	458.9	488	504	551	680.0	879
외환보유고	263	265	277	297	340	368

자료원 : 폴란드 중앙은행(NBP), 통계국(GUS), 수출입액은 통관(SAD) 기준

78.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대상국별 수출입

<교역 대상국 별 수출입>

(단위:US\$백만)

국가	2003			2002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합계	53,576.9	68,003.9	-14,427.0	41,009.8	55,112.7	-14,102.9
독일	17,281.0	16,584.4	696.6	13,248.4	13,402.4	-154.0
프랑스	3,266.6	4,803.2	-1,536.6	2,473.0	3,840.7	-1,367.7
이태리	3,077.1	5,789.0	-2,711.9	2,256.4	4,613.1	-2,356.7
영국	2,698.7	2,532.5	166.2	2,126.3	2,142.1	-15.8
네덜란드	2,406.7	2,302.2	104.5	1,841.3	1,934.6	-93.4
체크	2,171.8	2,332.0	-160.1	1,639.9	1,787.8	-148.0
스웨덴	1,932.9	1,778.3	154.6	1,328.6	1,457.8	-129.2
벨기에	1,729.6	1,781.4	-51.7	1,329.7	1,529.1	-199.4
우크라이나	1,561.2	744.6	816.7	1,180.5	491.5	689.0
러시아	1,512.3	5,214.7	-3,702.4	1,331.8	4,407.4	-3,075.6
리투아니아	1,326.6	304.0	1,022.6	933.1	191.4	741.7
헝가리	1,294.0	1,216.8	77.2	927.0	927.3	-0.3
덴마크	1,268.0	1,005.5	262.5	1,134.3	955.4	178.9
미국	1,197.1	1,762.8	-565.7	1,098.4	1,795.2	-696.8
스페인	1,135.3	1,771.5	-636.2	723.9	1,459.1	-735.2

자료원 : 폴란드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www.mpips.gov.pl/english)

79.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품목별 수출입

<폴란드의 품목별 수출입>

(단위 : US\$백만)

품 목	2003			2002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합계	53,576.9	68,003.9	-14,427.0	41,009.8	55,112.7	-14,102.9
승용차	2,246.3	3,356.0	-1,109.7	1,393.7	2,532.7	-1,139.0
선박	2,213.0	1,647.2	565.9	1,084.5	1,264.4	-179.9
자동차부품	2,156.9	1,615.1	541.8	1,400.5	1,071.0	329.5
의자	2,136.6	357.9	1,778.7	1,506.5	213.8	1,292.7
내연기관	2,101.5	187.2	1,914.3	1,515.1	149.5	1,365.6
기타가구	1,554.7	242.9	1,311.8	1,246.5	200.1	1,046.4
케이블	1,192.0	428.4	763.6	880.6	328.9	551.7
텔레비전	1,107.7	245.0	862.7	1,088.8	218.7	870.1
석탄	746.4	106.1	640.2	816.4	108.9	707.5
철강구조물	697.2	190.2	507.1	540.0	158.7	381.4
공기타이어	563.6	241.7	321.9	422.5	180.4	242.1
코크스	535.1	3.9	531.2	352.0	4.2	347.8
철강제 기타	531.9	468.3	63.7	356.9	309.9	47.1
여성용 의류	524.3	119.7	404.6	507.4	109.6	397.9
화장지	511.0	125.0	386.1	420.0	114.3	305.7
동합금	497.4	4.6	492.8	419.2	2.5	416.6
석유및역청유	467.5	779.3	-311.8	458.1	617.2	-159.1
전기회로기기	449.2	498.1	-48.9	323.6	381.5	-57.9
엔진 부품	425.1	836.7	-411.5	295.6	588.2	-292.6
남성용 의류	415.2	97.0	318.2	356.2	70.6	285.6

자료원 : 폴란드 경제부 (www.mpips.gov.pl/english)

8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연도별 수출입

(단위:백만불, %)

구분	2001		2002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336	-36.3	349	3.7	382	9.5	807	111.2
수입	46	-19.2	47	3.4	73	56.1	89	20.7
수지	290	-38.6	302	4.1	309	2.3	718	132.4

자료원 : KOTIS

8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품목별 수출입

<품목별 수출입>

수출

(단위 : 천불,%)

품목명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82,254	9.5	807,233	111.2
칼라TV	68,760	-2.1	308,688	348.9
무선전화기	22,609	-28.5	39,156	73.2
자동차부품	43,509	8.7	58,027	33.4
승용차	25,671	168.1	67,328	162.3
폴리에스터직물	27,359	-22.0	22,805	-16.6
합성수지	14,129	86.1	17,821	26.1
무선통신기기 부품	1,414	-16.6	27,181	1,822.0
보조기억장치	10,682	43.7	18,516	73.3
컴퓨터 부품	2,165	-66.4	26,120	1,106.5

수 입

(단위 : 천불, %)

품목명	2003		200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3,548	56.1	88,789	20.7
선박	75	-84.1	6,452	8,543.3
자동차부품	7,718	1,696.9	13,878	79.8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4,638	1,827.7	4,801	-67.2
냉장고	2,328	8,379.3	4,974	113.7
기타난방및전열기기	5,451	35.6	5,584	2.4
가축육류	2,628	-27.6	9,709	269.4
무선통신기기부품	5,265	-25.4	3,550	-32.6
원동기	1,981	59.9	4,323	118.2
전구	2,444	67.9	2,891	18.3

자료원 : KOTIS

82. 대외투자진출 통계

<폴란드의 해외 투자액>

(단위 : US\$백만)

연 도	연간투자액	누계투자액
1998	316	
1999	31	
2000	17	
2001	-90	1,107
2002	173	1,280

* 정보원 : UNCTAD -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Country fact sheet : Poland

83.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가별 투자유치

<폴란드의 국가 별 투자유치 누계(2004)>

No.	국가명	총 투자자	2004년 투자(백만불)	투자 누계(백만불)
1	프랑스	101	1,575.7	16,026.1
2	네덜란드	126	981.7	11,154.2
3	미국	118	1,428.1	10,163.7
4	독일	258	1,175.1	10,149.5
5	국제	14	1,305.0	4,648.7
6	영국	56	204.1	4,337.2
7	이태리	67	224.5	4,089.3
8	스웨덴	60	437.5	3,715.2
9	벨기에	27	413.8	2,902.6
10	덴마크	50	33.2	2,096.2
11	스위스	28	57.9	1,617.5
12	오스트리아	40	179.9	1,223.7
13	한국	6	202.0	1,167.9
14	키프로스(Cyprus)	4	4.4	1,110.5
15	아일랜드	6	5.2	1,026.2
16	포르투갈	4	10.0	678.4
17	룩셈부르크	19	104.5	673.0
18	핀란드	20	122.1	578.5
19	그리스	4	1.5	561.6
20	스페인	11	38.3	486.3
21	러시아	3	-800.0	409.1
22	일본	18	108.4	362.3
23	노르웨이	14	0.5	345.2
24	크로아티아	2	12.6	219.0
25	캐나다	13		210.9
26	오스트레일리아	3	1.7	159.5
27	터키	4		100.1
28	체코	5	13.7	75.0
29	이스라엘	4		70.4
30	슬로베니아	2	8.9	70.3
31	남아프리카	1		57.2
32	헝가리	4		55.8
33	중국	2		45.0
34	필리핀	1		40.0
35	Liechtenstein	5	0.6	16.9
36	모나코	1	6.8	6.8
			총 계	84,477.6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PAIIZ)

84.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업종별 투자유치

<업종별 투자 유치>

업 종	2004년(백만불)	누계(백만불)
제조업	3,251.5	32,199.9
- 운송장비	703.0	6,663.6
- 화학제품	485.9	3,245.2
- 금속제품	468.4	1,278.3
- 전기기계 및 장비	450.6	3,250.0
- 비금속제품	304.9	4,205.5
- 기계류	218.0	1,023.7
- 펄프, 종이	181.0	2,086.0
- 고무, 플라스틱	165.3	1,459.0
- 식품가공	135.3	6,624.8
- 가구	101.1	349.7
- 섬유류	32.8	290.5
- 목재 및 목제품	5.3	1,692.1
- 가죽제품	0.0	31.4
금융	2,115.2	18,878.5
부동산업	865.5	2,952.7
무역	848.7	9,517.4
건설	560.3	2,110.1
전력, 가스, 수자원	507.8	3,207.6
농업	14.5	76.3
호텔, 식당	10.9	885.3
지역사회, 개인서비스업	3.8	2,732.2
광업	1.6	228.6
물류, 통신	-321.9	7,861.4
TOTAL	7,857.7	84,477.6

자료원 : 폴란드 투자청(PAIIIZ)

*주 : 마이너스 수치는 부채 지불 등으로 인한 자본유출액

85.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폴란드 투자교류 통계

<우리나라와의 투자 교류>

1. 한-폴 투자교류 통계 (2004년, 누계)

(단위 : U\$백만)

구 분	폴란드 통계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한국진출	6	1,167.5	70	1,259.6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PAIZ), 한국수출입은행

2. 진출기업 (2004년, 누계)

(단위 : U\$백만)

업 체 명	투 자 금 액
대우(전자)	936.4
LG전자	180
SK케미컬	35
삼성전자	7
LG인터내셔널	6
한양정밀	3.5

자료원 : 폴란드 투자청 (PAIZ)

86. 물가금융지표

<물가 금융 지표 (2004년 기준)>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도=100) : 100.8
- 물가상승율 : 3.5%
- 통화량(십억PLN, 연말) : 339.77
- 통화증가율 : 5.5%
- 주가지수 : 22,249.98
- 연평균환율(PLN/US\$) : 3.6540
- 은행이자율 : 3.4%

*자료원 : 폴란드 중앙은행, 유로머니

87. 노동통계

<노동 통계 (2005년 기준)>

- 임금상승률 : 4.9%
- 주당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2005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업인구(천 명)	3,095	3,095	3,053	2,958	2,867
실업률 (%)	19.5	19.4	19.3	18.8	18.3
월평균임금(gross:PLN) (Enterprise sector)	2,385.39	2,411.49	2,480.50	2,471.22	2,423.92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www.stat.gov.pl)

200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인구(천 명)	3,042	3,006	2,971	2,938	2,943	3,000
실업률 (%)	19.3	19.1	18.9	18.7	18.7	19.1
월평균임금(gross:PLN) (Enterprise sector)	2,428.12	2,412.66	2,439.59	2,386.34	2,504.99	2,748.11